

조사보고서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2009. 3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정중영 · 최태영

보험연구원

머 리 말

이슬람 보험을 뜻하는 타카풀은 1979년 처음 등장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타카풀 전문회사는 2008년 말 현재 19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90억~130억 달러에 달해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슬람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이슬람교도수의 증가, 그리고 잠재적 보험소비자인 이슬람지역 청·장년층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타카풀 시장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일찍이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발전잠재력에 주목한 AIG, 푸르덴셜, 도쿄해상과 같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타카풀회사를 설립하여 타카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카풀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진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인 타카풀시장 진출 전에 현지 시장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이슬람 율법이나 타카풀 메커니즘 등 타카풀 고유 특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은 타카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세계 보험업계에서 타카풀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타카풀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타카풀 관련 보고서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슬람 지역의 경제 현황 및 이슬람 금융 전반,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타카풀 관련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및 시장 진출시 고려 사항 등 국내 보험회사들이 유념해야 할 다양

한 시사점들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타카풀시장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 되어 우리 보험산업이 타카풀시장이라는 신흥시장 진출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목 차

요 약	1
I. 서 론	27
1. 연구배경 및 목적	27
2. 연구 범위 및 구성	28
II.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	29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29
2. 이슬람 금융의 현황	41
3.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	49
III. 타카풀의 운용구조와 발전 전망	63
1. 타카풀의 개념	63
2. 타카풀의 구조와 운영모델	65
3. 타카풀의 역사와 발전 전망	85
IV. 이슬람 주요국 경제 · 금융 및 타카풀시장 현황	92
1. 아랍에미리트(UAE)	92
2. 사우디아라비아	106
3. 카타르	119
4. 바레인	128
5. 쿠웨이트	143
6. 말레이시아	152

7. 인도네시아	175
V.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191
1. AIG 타카풀-에나야	191
2. 푸르덴셜 BSN 타카풀	197
3. 홍콩토쿄해상타카풀	201
VI. 시사점	207
1. 타카풀 운용현황에 기초한 시사점	207
2. 국가별 시장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211
3. 사례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217
참고문헌	220
[부 록]	226
1. 이슬람 주요국 개황	226
2. 전세계 타카풀회사 및 타카풀 전문교육기관 목록	233

<표 차례>

<표 II-1> 샤리아 금지 조항	31
<표 II-2> 현대 이슬람 금융 발전사	36
<표 II-3> 이슬람 금융의 자산규모	41
<표 II-4> 세계 이슬람 인구	42
<표 II-5>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운용 현황	48
<표 II-6> 주요 이슬람 투자펀드	48
<표 II-7> 영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슬람 금융상품	52
<표 II-8>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회원 국가별 현황	54
<표 II-9>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국제기관	58
<표 II-10>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회원 현황	59
<표 II-11> 이슬람 주가 및 수쿠크 관련 지수	61
<표 III-1> 타카풀과 전통적 보험 및 공제와 차이점	69
<표 III-2> 혼합모델 운영 수익 구조	79
<표 III-3> 타카풀의 발전 역사	87
<표 III-4> 타카풀시장 전망치	91
<표 IV-1> UAE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93
<표 IV-2> UAE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94
<표 IV-3> UAE 외국인 투자 및 자유무역지대 주요 인센티브 정책 ...	95
<표 IV-4> UAE 산업별 GDP 구성비	96
<표 IV-5> GCC 국가 개발 프로젝트 규모	97
<표 IV-6> 수쿠크 발행 규모별 10대 종목	100
<표 IV-7> 중동 주요국 주식 시장 개방 현황	100
<표 IV-8> UAE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1
<표 IV-9> UAE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02
<표 IV-10> UAE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103

<표 IV-11>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07
<표 IV-12>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08
<표 IV-13>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별 GDP 구성비	109
<표 IV-14> 주요 이슬람 국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111
<표 IV-15>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특수은행 및 기금운영기관	112
<표 IV-16> 주요 중동 국가 주식 시장 개요	112
<표 IV-17>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13
<표 IV-18> 사우디아라비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14
<표 IV-19> 사우디아라비아 종목별 수입보험료 실적 추이	114
<표 IV-20> 사우디아라비아 보험침투율 및 보험밀도	115
<표 IV-21> 카타르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20
<표 IV-22> 카타르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21
<표 IV-23> 카타르 산업별 GDP 구성비	122
<표 IV-24> 카타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4
<표 IV-25> 카타르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25
<표 IV-26> 카타르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126
<표 IV-27> 바레인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29
<표 IV-28> 바레인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30
<표 IV-29> 바레인 산업별 GDP 구성비	131
<표 IV-30> GCC 에너지 자원 현황	131
<표 IV-31> 바레인 금융허브개발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132
<표 IV-32>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 국내 자산 및 외국 자산 추이	134
<표 IV-33> 바레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135
<표 IV-34> 바레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137
<표 IV-35> 바레인 내 보험회사 수 연도별 변동 추이	137
<표 IV-36> 바레인 보험회사 총수입보험료 현황	138
<표 IV-37> 바레인 재보험회사 및 리타카폴회사 총수입보험료	139
<표 IV-38> 바레인 타카폴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141

<표 IV-39> 쿠웨이트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44
<표 IV-40> 쿠웨이트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45
<표 IV-41> 쿠웨이트 산업별 GDP 구성비	146
<표 IV-42> 세계 이슬람 금융기관 순위	147
<표 IV-43> 쿠웨이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149
<표 IV-44> 쿠웨이트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49
<표 IV-45> 쿠웨이트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150
<표 IV-46> 말레이시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53
<표 IV-47> 말레이시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54
<표 IV-48> 말레이시아 산업별 GDP 구성비	155
<표 IV-49> 제 8차 경제개발계획 성과 및 제 9차 계획 목표	156
<표 IV-50> 제 9차 경제개발계획 예상 지출 내역	156
<표 IV-51>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수 변화 추이	157
<표 IV-52> 세계 이슬람 금융기관 현황	158
<표 IV-53> 말레이시아 내 인가받은 은행기관	161
<표 IV-54>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 수 및 지점수	162
<표 IV-55>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의 주요 상품	162
<표 IV-56>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 현황	164
<표 IV-57> 말레이시아 내 수쿠크를 발행한 외국기업 및 내역	166
<표 IV-58> 말레이시아 이슬람 증권 시장 규모	167
<표 IV-59> 말레이시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68
<표 IV-60> 말레이시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169
<표 IV-61> 말레이시아 타카폴 총수입보험료 추이	171
<표 IV-62> 말레이시아 타카폴 총자산 및 종류별 비중 변화 추이 ·	171
<표 IV-63> 말레이시아 내 인가받은 타카폴회사	173
<표 IV-64> 세계 타카폴회사 순위(총자산순)	173
<표 IV-65> 인도네시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176
<표 IV-66> 인도네시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177

<표 IV-67>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구성비	178
<표 IV-68>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실적	179
<표 IV-69> 세계 이슬람 금융 잠재시장 규모	180
<표 IV-70>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구조 추이	181
<표 IV-71> 인도네시아 은행 수 변화 추이	182
<표 IV-72> 인도네시아 주요 은행의 자산·대출·예금 변화 추이 ...	183
<표 IV-73> 인도네시아 지역별 은행 및 대출 비중 변화 추이	184
<표 IV-74> 인도네시아의 증권 거래 추이	185
<표 IV-75> 인도네시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187
<표 IV-76> 인도네시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188
<표 IV-77> 인도네시아 타카풀 수입보험료 현황	189
<표 IV-78> 인도네시아 타카풀회사 현황	189
<표 V-1> AIG 타카풀-에나야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193
<표 V-2> AIG 타카풀-에나야 종목별 판매 건수	194
<표 V-3> AIG 타카풀-에나야 요약 손익계산서	195
<표 V-4> AIG 타카풀-에나야 상해 및 건강타카풀 담보 주요 내용 ...	196
<표 V-5>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가족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	198
<표 V-6>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일반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	199
<표 V-7>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판매상품 현황	199
<표 V-8> 변액타카풀(Takafullink) 펀드 할당 비율	200
<표 V-9> 변액타카풀(Takafullink) 수수료(Wakalah Charge)	200
<표 V-10> 홍룡토쿄해상타카풀 설립 개요	202
<표 V-11> 홍룡토쿄해상타카풀의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	203
<표 V-12> 홍룡토쿄해상타카풀의 일반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203
<표 V-13> 홍룡토쿄해상타카풀의 가족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204
<표 VI-1> 주요 7개 이슬람 보험시장 성장 잠재력	217

<그림 차례>

<그림 II-1> 이슬람 법률의 근원과 지류 개념도	29
<그림 II-2> 이슬람 금융시장의 요소	32
<그림 II-3> 무다라바 흐름도	37
<그림 II-4> 무샤라카 흐름도	37
<그림 II-5> 무라바하 흐름도	38
<그림 II-6> 이스티스나 흐름도	38
<그림 II-7> 이자라 흐름도	39
<그림 II-8> 수쿠크 거래 기본 구조	40
<그림 II-9> 세계 이슬람 국가 및 이슬람교도 분포도	43
<그림 II-10> 세계 수쿠크 발행 규모 추이	44
<그림 II-11> 세계 수쿠크 발행 국가별 비중 변화	44
<그림 II-12> 세계 수쿠크 발행 통화 변화	45
<그림 II-13> 세계 수쿠크 섹터 변화	46
<그림 II-14> 이슬람 투자펀드 연도별 증가 추이	47
<그림 II-15> 주요국 이슬람 금융 발전 단계	50
<그림 II-16> 니케이신문 이슬람 금융 관련 기사 게재 건수 추이	53
<그림 III-1> 타카풀의 기본적 구성요소	67
<그림 III-2> 순수 와칼라 모델의 운영구조	73
<그림 III-3> 적하(Dripping)의 개념도	74
<그림 III-4> 무다라바 모델의 운영구조	76
<그림 III-5> 말레이시아의 무다라바모델 운영 예(가족타카풀)	77
<그림 III-6>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의 운영구조	79
<그림 III-7> 리타카풀의 기본적 구성요소	82
<그림 III-8> 리타카풀모델의 운영구조(순수 와칼라모델)	83
<그림 III-9> 세계 타카풀시장 규모 변동 추이	88
<그림 III-10> 세계 타카풀 지역별 분포	89

<그림 III-11> 타카폴 종목별 비중 및 회사 수	90
<그림 IV-1> UAE 보험시장 규모 추이	102
<그림 IV-2> UAE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규모 비교	104
<그림 IV-3> 주요 중동 산유국 오일머니 유입 추이	110
<그림 IV-4> 사우디아라비아 타카폴시장 규모 및 보험침투율	117
<그림 IV-5> 카타르 보험시장 규모 추이	125
<그림 IV-6> 카타르 보험시장 연평균 성장률(2002~2006년)	126
<그림 IV-7> 바레인 은행 및 이슬람 은행 성장률 추이	134
<그림 IV-8> 바레인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규모 비교	140
<그림 IV-9> 쿠웨이트 보험시장 규모 추이	150
<그림 IV-10>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규모 및 이슬람 자본시장 비중 ...	159
<그림 IV-1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자산 추이	163
<그림 IV-12> 은행 총자산 대비 이슬람 금융 자산 비율	163
<그림 IV-13> 말레이시아 사채 발행액 중 수쿠크 비중 추이	165
<그림 IV-14> 말레이시아 수쿠크 종류별 비중	165
<그림 IV-15>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규모 추이	169
<그림 IV-16>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규모	170
<그림 IV-17> 말레이시아 타카폴 자산 및 전체 보험시장 대비 비중 변화 추이 ..	172
<그림 IV-18>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규모 추이	187
<그림 IV-19>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규모	188
<그림 VI-1> 주요 5개국 타카폴시장 규모 및 보험침투율	212

요 약

I. 연구목적 및 배경

- 최근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는 유가상승에 따른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7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슬람 지역은 6%대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됨.
-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맞추어 이슬람 금융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HSBC, Citi, UBS, AIG 등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들이 적극 진출하는 등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오일머니에 의한 시설투자 증가가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세계 타카풀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음.
-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한 AIG, Allianz, HSBC 등의 다국적 보험회사들은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최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타카풀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도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본 보고서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주요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하여 경제 및 금융 동향을 이슬람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해외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 이슬람 금융시장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시장별로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기술적 분석 등 본래 기능인 일반적 요소와 함께 이슬람 율법을 충족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된 구조로 운영
 - 모든 금융기관은 내부에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금융거래는 샤리아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슬람 금융상품에는 주로 무다라바, 무샤라카,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이자라, 수쿠크 등과 같은 이슬람 고유의 금융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2. 이슬람 금융의 현황

- 세계 이슬람 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7천억 달러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이슬람 자금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쿠크 시장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이슬람 투자펀드 급성장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급성장 중임.

-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이슬람 펀드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부동산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각종 헤지펀드도 이슬람권에 투자되고 있음.
- 실물이 수반되지 않거나 불확실성, 투기, 금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샤리아 원칙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던 파생상품들도 샤리아 원칙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에 힘입어 점차 개발되고 있음.

3.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 여건과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고 있음.
 -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신상품 개발, 이슬람 금융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규제책정, 인재양성 등의 면에서 이슬람 금융시장을 선도
 -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은 주택용자, 펀드, 각종 임대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이 진전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홍콩과 같은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Ⅲ. 타카풀의 운용구조와 발전 전망

1. 타카풀의 개념

- ☐ 전통적 보험은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슬람교도들은 이용하기 곤란함.
 - 전통적 보험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급 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보험회사는 이자를 수반하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슬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음.
- ☐ 그러나 이슬람교도들도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이슬람사회에서도 보험기능이 필요하였고, 오랜 동안의 논의를 거쳐 샤리아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상호부조와 각출에 기초하는 타카풀을 활용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
 - 197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보험에 대한 이슬람 율법적 결정이나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보험 기능에 관한 논의가 이슬람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
 - 1985년 제다에서 개최된 이슬람제국회의기구의 율법위원회에서는 '보험과 재보험에 관한 결정 9호'를 통해 우선 전통적인 보험은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에게는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 한편, 샤리아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전통적인 보험의 대안으로 상호부조와 각출에 근거한 협동적 보험으로 타카풀과 협동적 보험에 입각한 재보험의 경우로 리타카풀시스템을 인정
- ☐ 타카풀에서 계약자는 전통적 보험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카

풀운영사에게 예탁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예탁금 중에서 일부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기부금으로 지불되는 시스템임.

2. 타카풀의 구조와 운영모델

- 타카풀은 계약자 펀드와 운영사 또는 주주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고, 계약자와 운영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보통은 이윤을 공유하는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슬람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대상을 선택, 즉 이슬람 채권(sukuk)에 대한 투자는 허용
 - 모든 타카풀은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 이슬람율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항상 샤라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받아야 함.
- 타카풀은 전통적 보험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로 대별되는데, 계약자와 타카풀운영사간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운영모델이 존재
 - 계약관계에는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며, 보험영업을 통한 잉여나 투자활동에 의한 이익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위험 발생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지며, 운영 초기자본은 누가 제공할 것인가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임.
- 타카풀 운영모델은 우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델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델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와칼라(Wakalah), 무다라바(Mudharabah) 및 양자를 결합하는 혼합방식으로 대별됨.

- 와칼라의 기본개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를 대표하여 활동할 것을 위임하고, 미리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 지급하는 소위 수수료계약방식임.
 - 무다라바의 개념은 한쪽은 업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자본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로서, 양자는 공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미리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이익배분계약방식임.
 - 타카풀의 기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와칼라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무다라바방식을 적용하는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은 대부분 영업부분은 수수료계약방식으로, 투자운영에 대해서는 이익배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의 워크프 모델은 운영사와 계약자간에 공유하는 이익은 없음.
- 일명 타바루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수단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운영사는 무이자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자는 각출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며, 운영사나 계약자는 잉여금이나 이익을 수령하지 못함.
 - 이러한 비영리 모델은 사회 혹은 정부 소유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 잉여금 펀드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통적인 상호보험회사와 가장 유사
- ☐ 파키스탄에서는 타카풀의 고유 단점을 개선하고자 영리와 비영리의 원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와칼라-워크프 혼합모델을 개발
- 타카풀은 계약자 펀드의 결손이 누적될 경우 계약자들이 타카풀 공동체로부터 탈퇴를 제약할 수 없고, 운영사펀드에 의해 제공되는 무이자대출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타카풀펀드에 있어서 손실준비금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타카풀의 고유 문제를 개선하고자 계약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사들이 계약자 펀드에 초기자본을 투입하도록 하며, 운영사에 의해서 양도된 펀드 그리고 계약자에 의해서 지불된 각출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개념
- 이슬람 재보험인 리타카풀(Retakaful)은 타카풀 개념의 기본적 요소들을 모사한 것으로 타카풀모델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음.
 - 리타카풀은 타카풀에 직접 참여하는 계약자그룹 대신에 회사그룹이 상호 보호의 개념에 동의하여 연대 보증하는 것임.
 - 참가하는 타카풀 운영자들은 그들의 기본 리스크를 리타카풀 풀(pool)에 이전하고, 타카풀 펀드에서 리타카풀 기부금을 지불
 - 즉, 리타카풀 기부금은 운영자의 타카풀 펀드에서 지불되고, 리타카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타카풀 펀드로 할당되어야함.
 - 리타카풀운영자는 샤리아 원칙에 입각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풀 안에 있는 모든 출재회사(cedant)들이 인수계약에 의해 조건표준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것을 보증
 - 리타카풀은 재보험펀드가 결손이 생길 경우 무이자대출을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타카풀 펀드들 중 하나가 대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음.

3. 타카풀의 역사와 발전 전망

- 근대적 의미의 이슬람 보험은 1977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리타카풀시장까지 주목받고 있음.
- 타카풀의 실질적인 운영은 수단의 파이살이슬람은행이 수단이슬람보

험회사라는 이름의 타카풀 전문회사를 설립한 1979년에 처음 시작되었음.

- 198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카풀법(Takaful Act)이 발효되어 말레이시아 최초의 타카풀회사인 타카풀말레이시아가 설립되었고, 이후 리타카풀 전문 보험회사도 생겨남.
- 1985년에는 이슬람제국회의기구의 율법위원회에서 샤리아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전통적인 보험의 선택대안으로 타카풀시스템을 인정함으로써 이슬람 교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해소됨.
-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슬람 금융이 급성장하면서 타카풀시장도 동시에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이슬람국가 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국가에서도 타카풀회사의 설립이 활발해짐.
- 2006년을 기점으로 확대되는 리타카풀시장에 주목한 하노버 리타카풀, 바레인, 문니치리 등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이 차례로 진입함.
- 세계 타카풀시장은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06년에 약 57억 달러 규모로, 2003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 꾸준히 확대되며 연평균 2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국가별 타카풀시장규모는 이란이 전체의 64.7%, GCC 국가들이 18.8%,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12.1%, 이슬람 대국 수단이 속해있는 아프리카가 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손해보험인 일반타카풀이 약 95%로 생명보험인 가족타카풀을 압도하고 있고, 일반타카풀 내에서는 자동차타카풀과 재산 및 상해(재해)타카풀의 비중이 90%를 육박하고 있음.
- 향후 세계 타카풀시장은 2015년까지 적어도 약 77억 달러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체 보험시장 성장률을 4%, 타카풀시장 성장률을 20%로 가정할 경

우 2015년에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약 5조 3천억 달러, 타카폴시장은 134억 달러수준에 이를 전망

IV. 이슬람 주요국 경제·금융 및 타카폴시장 현황

1. 아랍에미레이트(UAE)

- UAE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건설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석유산업의 빠른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연평균 7%가 넘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실현
 - UAE 정부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 문호를 개방하고 각종 투자 규제들을 철폐하여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공격적인 투자 유인책을 전개하고 있음.
 - UAE는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낮은 세금,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물류거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UAE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자유경제정책과 맞물려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이슬람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으로 설립된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UAE가 중동지역의 금융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UAE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거두면서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신규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UAE 중앙은행은 선별적으로 신규 인

허가를 해주고 있음.

- UAE의 보험시장은 2007년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약 35억 5,500만 달러로 세계 46위에 해당하며, 이는 중동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
 - 2006년 이후 2년 연속 25%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UAE의 보험시장은 건설투자 붐이 일면서 기술보험 및 재물보험과 같은 손해보험 부문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보험밀도와 보험침투율은 2007년 기준으로 각각 811.6달러(세계 34위)와 1.9%(세계 64위)로 GCC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 UAE의 타카풀시장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에서 2% 비중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30%를 상회하며 고성장 중임.
 - 살라마, 아부다비국립타카풀엔아만 등의 대형 타카풀회사들은 자동차 타카풀과 가족타카풀 같은 개인용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 UAE의 보험시장은 보험회사 및 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보험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정이 필요함.
 -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타카풀 사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별개의 감시·감독 체제를 갖고 있으며, 두바이국제금융센터의 보험감독은 높은 수준의 RBC와 지급준비율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2.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 내수 증대 및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매년 4% 이상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거두고 있음.

-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수출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대외거래 지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오일머니와 최근까지 고유가에 따른 경제성장 및 정부지출 증대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국내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금융부문이 크게 도약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 금융정책을 조정하여 오일머니로 벌어들이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쿠크 시장규모는 말레이시아와 UAE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규모
-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시장은 약 22억 8,900만 달러 규모로 세계 52위,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는 14위에 위치하는 등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보험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밀도는 94달러로 세계 6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침투율 역시 0.6%로 세계 87위의 낮은 수치임.
 - 보험회사 인허가 및 퇴출권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금융청은 최근 발효된 보험업법과 감독규제를 통해 보험회사에 최저자본수준을 과거보다 상향하여 리스크 관리능력 신장에 감독의 역점을 두고 있음.
- 전체 보험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카폴시장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

- 사우디아라비아 타카풀회사들은 일반타카풀 중에서도 자동차타카풀, 단체보다는 개인 타카풀상품 영업에 주력하고 있음.
-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타카풀 상품이 샤리아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훈련된 전속설계사 채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3년 타카풀 모델에 의거해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을 제정하였으며, 보험분쟁해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험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있음.

3. 카타르

- 석유 및 천연가스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카타르는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중임.
 - 부유 중산층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기반 산업과 원유 생산에 대한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카타르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카타르 정부는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하여 대규모 가스산업 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육성계획 추진과 국제금융청 건설,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GCC 국가들 중 금융산업 육성 움직임이 늦었던 카타르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산업 지원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석유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및 운영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카타르금융센터를 창설함.
 - 카타르의 은행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매력적인 금리 수준,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 영업이익 및 수수료기반 이익의 급증에 힘입어 고성장을 하고 있음.

- 카타르의 보험시장 규모는 약 5억 3,800만 달러 규모로 중동 GCC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음.
 - 원유수출의 호조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부동산 및 건설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음.
 - 보험밀도는 세계 35위에 해당하는 640달러로 GCC국가들 중 UAE 다음으로 가장 높은 보험밀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침투율은 0.9%로 1%에도 미치지 못함.
 - 2002~2006년간 카타르 보험시장은 연평균 약 27.8% 성장하며 세계 평균인 8.9% 뿐만 아니라 GCC 평균 20.5%에 비해서도 가파른 성장을 시현
 - 카타르 정부가 2004년 외국자본 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 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역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서, 향후 외국계 타카풀회사의 활동에 따라 카타르 타카풀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바레인

- 석유 및 가스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레인은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과 가스산업 지원프로그램의 추진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향후 석유 및 가스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비석유부분에 대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로 추진 중에 있음.

- 바레인은 협소한 국토면적과 적은 인구수, 적은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일찍부터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
 - 2009년까지 바레인금융허브를 건설,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 국제이슬람등급기관, 국제이슬람금융시장, 유동성관리센터 등 이슬람 금융 국제기구들이 바레인에 설립됨.
- 바레인의 보험시장은 전년대비 20.7%가 증가한 약 3억 6,100만 달러로 지난 3년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이 큰 폭의 성장세를 각각 보이며 바레인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경제 활황이 지속되면서 재보험 물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바레인 재보험 시장의 급성장 역시 바레인 전체 보험발전을 이끌고 있음.
- 바레인 타카풀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40%에 육박하는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 바레인 타카풀시장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시현중임.
 - 일반타카풀이 전체 타카풀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타카풀이 전체 타카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바레인은 국제타카풀협회,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 바레인보험협회를 설립하여 타카풀의 선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5. 쿠웨이트

-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 석유 생산량 증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2005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
 -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는 차세대 기금을 통한 탈석유화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자국을 중동의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항만, 도로, 투자자유지역 등 국내 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이미 최초의 이슬람 금융기관이자 자산규모로는 세계 2위인 쿠웨이트금융원을 출범시키는 등 이슬람 금융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2003년에는 이슬람 금융법을 제정하면서 이슬람 금융 감독권을 쿠웨이트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이슬람 전업은행 뿐 아니라 일반은행의 이슬람 창구 업무도 허용
- 쿠웨이트의 보험시장은 세계 69위의 낮은 수준이며, 여타 중동국가들처럼 손해보험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보험밀도와 보험침투율은 각각 257.3달러와 0.6%에 지나지 않아 세계 및 아시아 평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샤리아를 준수하는 타카풀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타카풀 상품시장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6.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경제는 견실한 수출 증가, 내수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제조업 수출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거래 편중현상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다양함.
- ☐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다양성, 효율성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비교적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1983년 시행된 이슬람은행법에서 인가받은 이슬람 은행에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했고 채권,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 기법이 발전
 - 정부 주도의 금융특화 정책이 담긴 마스터 플랜 시행으로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금융 시장으로 발전함.
 -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은 은행과 타카풀, 수쿠크, 증권시장 등이 모두 갖추어져 종합 금융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관련법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뛰어남.
- ☐ 말레이시아의 보험시장은 약 88억 2,400만 달러 규모로 이슬람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세계 33위 수준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해 투자연동 상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생명보험 시장이 급성장함.

- 말레이시아의 보험밀도는 세계 44위권인 332달러이고 보험침투율도 4.6% 수준으로 낮은 편임.
- 말레이시아의 타카풀시장은 최근 3년간 성장률이 21%에 달할 만큼 세계 타카풀시장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중임.
- 자동차차카풀과 화재타카풀이 주력인 일반타카풀에 비해 사망보험 위주인 가족타카풀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짐.
- 영업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타카풀 상품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비이슬람교도들의 타카풀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방카타카풀이 말레이시아 주요 타카풀 판매채널이지만 설계사나 브로커를 통한 판매가 가지는 직접적인 홍보와 교육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면채널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음.

7.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민간소비의 확대, 투자 증가, 수출의 견실한 증가 등에 힘입어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 개최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부터 이슬람 금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슬람 금융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995년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정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은 은행산업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은 약 69억 달러로 세계 36위권에 해당되는 이슬람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하지만, 세계 4위의 엄청난 인구수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
 - 생명보험은 변액연금 판매가호조를 보이며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손해보험은 물가불안과 보험료 인하 가격경쟁, 휘발유 보조금 삭감으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진
 - 인도네시아의 보험밀도는 약 30달러로 세계 최하위권이며, 보험침투율 역시 1.6%에 불과해 인도네시아 보험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음.
- 인도네시아의 타카풀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는 있지만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대에 불과할 만큼 아직은 미미
 - 타카풀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카풀회사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음.

V.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1. AIG 타카풀-에나야

- AIG는 타카풀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미래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여 2006년 AIG 타카풀-에나야를 설립함.
 - 바레인 타카풀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바레인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금융관리감독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AIG가 바레인에 타카풀회사를 설립한 이유임.
 - 주력상품을 일반타카풀로 한정하고, 특히 에너지타카풀과 같은 독창

적이면도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 및 집중화 전략으로 신생 타카풀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AIG는 오일머니 유입으로 당분간 중동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이슬람 금융 및 타카풀 사업의 성장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임.

2. 푸르덴셜 BSN 타카풀

- 푸르덴셜 BSN 타카풀 역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타카풀시장에서 신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푸르덴셜홀딩스가 2006년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타카풀 전문회사
 -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아시아 및 이슬람 금융 허브로 육성하고자 외국계 회사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됨.
 -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과 천 만명에 가까운 심파난국립은행(BSN) 고객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푸르덴셜 BSN 타카풀은 막강한 판매채널과 심파난국립은행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짧은 설립역사에도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 비교적 유연하게 샤리아 원칙을 적용하는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의 투자연계 상품 개발에 푸르덴셜의 금융 노하우가 잘 활용되고 있음.

3. 홍콩토쿄해상타카폴

- ☐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회사이자 일본 금융기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타카폴에 임하고 있는 토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세계 타카폴 사업 확대를 목표로 현지 홍콩그룹과 제휴하여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을 설립
 - 통합형 타카폴 상품의 판매 호조와 판매채널 및 사무비용 절감 노력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인 영업 첫해에 영업수익이 말레이시아 타카폴시장에서 3위를 기록
 - 세계 타카폴시장에 진출한지 10여 년의 짧지 않은 기간동안 체득한 타카폴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노하우 등도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의 조기정착을 견인한 주요 요인임.
 - 개인성 방카타카폴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상사, 자동차 제조사, 건설사, 유통사 등 많은 일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및 기업성 상품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짐.

VI. 시사점

1. 타카폴 운용현황에 기초한 시사점

- ☐ 타카폴시장의 진출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금융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요함.
 - 타카폴 모델은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응용모델이 가능한데, 다양한 상품개발과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 현지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제전반과 역사 및 문화적 특성 등 이슬람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요구됨.

- 더욱이 각국 금융기관의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활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이를 통한 연구자료 발간, 외부 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워크샵,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연구 교류활동과 이슬람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함.
- 현재 타카풀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여러 가지 방법과 가정에 입각하여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균형된 시각으로 정밀하게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카풀은 틈새시장으로 이의 개척에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수반되므로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함.
 - 많은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전제조건에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들이 적절하게 감안되었는지 등 정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타카풀과 전통적인 보험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타카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자가 급증하고, 리타카풀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영향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
 - 리타카풀운영사는 아직 소수이지만, 독특한 상관습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리스크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식해야만 함.
 - 또한 샤리아에 입각한 사업모델과 주문에 의한 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임.
 - 특히, 대리인을 기본으로 한 리타카풀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타카풀에서도 출제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동 관리하고, 경쟁사와

인수성적도 공유하도록 하는 타카풀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선 사항임.

2. 국가별 시장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 타카풀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국가들의 보험침투율을 통해 보험시장 성장 잠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의 보험침투율은 4%대로 적정수준인 3%를 상회
 - 인도네시아는 보험침투율이 1.6%로써 적정수준이 대략 2%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시장은 아직 적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험침투율이 0.6%로 적정수준 6%에 상당히 하회하고 있으며, 바레인과 UAE는 보험침투율이 각각 1.98%(2006년)와 1.9%로서 적정수준인 6%와 7%에 크게 미달
 - 따라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걸프 연안의 3개국이 서남아시아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7개국을 보험침투율 외에 보험 및 타카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정책, 법규 및 감독체제, 사회·종교적 분위기 등을 바탕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중동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는 UAE는 보험시장 인프라를 비교적 잘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험시장 발전이 타카풀 시장 발전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보험시장 중에서도 특히 생명보험시장이 잘 발달한 것은 생명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종교적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며, UAE국제금융센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보

험 수요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정부정책 및 법규가 보험과 타카풀에 중립적으로 작용하고, 외국자본이 타카풀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카풀시장 성장이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음.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해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의 비중이 각각 5.6%, 4.8%에 이를 정도로 극히 왜소한 시장을 갖고 있으며, 타카풀시장이 보험시장에 비해 각각 11%, 23%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두 국가의 타카풀시장은 정부의 성장 장려책이 특별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만연된 보험 기피 현상이 상대적으로 타카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보험감독 및 법규체제가 국제금융센터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모습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험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파악되며, 보험에 대한 감독 및 운용 규정에 여러 제약이 있고 보험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불명확함.
- 바레인의 보험시장 인프라는 UAE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타카풀시장에 대한 인프라는 UAE보다 선진적으로 평가됨.
 - 중립적인 보험 관련 정부정책과 법규, 보험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해소 등의 모습은 바레인 보험산업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바레인의 타카풀시장은 보험시장의 13%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UAE는 2.3%), 이는 바레인의 타카풀 관련 법규가 타카풀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는 등 타카풀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UAE보다 앞서 있기 때문임.

- 쿠웨이트는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타카풀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상황이 바레인과 흡사한 양상임.
 - 사업허가를 내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정부 정책은 쿠웨이트 보험시장 진입에 촉진제 역할을 해왔으며, 생명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사회·종교적 분위기 역시 보험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고 있음.
 - 외국자본 지분 소유를 100%까지 인정하는 등의 개방적 성향의 정부 정책은 타카풀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7개국 중 타카풀시장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서, 6%대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은 타카풀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성장엔진의 역할을 함.
 - 이슬람 금융 허브를 목표로 타카풀회사에게 조세면제 혜택을 주는 등 말레이시아 정부는 타카풀을 국가 핵심 사업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임.
 -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이 보험시장 발전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타카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이슬람 보험시장 발전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 타카풀회사 및 지점 설립에 대한 납입자본금이 보험회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등 보험시장에 비해 타카풀시장 진입이 수월한 감독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5개국에 비해 타카풀과 보험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균형있게 구축하고 있으며, 5~6%대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이 발전하고 있음.

- 타카풀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은 사회·종교적 분위기는 보험시장 중에서도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
- 감독기관은 타카풀 사업자와 보험회사 모두 Risk-Based Capital 적정성 모델에 근거하여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험과 타카풀 모두에게 중립적인 관리감독 자세를 보이고 있음.

3. 사례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서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광범위한 지점망을 가진 현지 대형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
 - 상품 개발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지에 전국적 유통망은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 방카타카풀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
 - 판매비용 절감 효과와 은행의 고정 고객 확보 등의 장점들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손쉽게 방카타카풀을 주요 유통채널로 고려하는 이유임.
 - 관련 법규 및 감독에 관한 내용 숙지, 효율적인 유통채널로서의 면밀한 활용도 검증, 상품구조가 다소 복잡한 타카풀에 대한 현지 은행원 대상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선행되어야 함.
- 충분한 시간동안 이슬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빠른 시장 진출을 통해 가급적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함.
 - AIG 그룹과 푸르덴셜홀딩스는 타카풀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글로벌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타카풀시장 전반에 대한 사전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음.

-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홍콩토크해상타카풀을 설립하기 이전에 약 10년 간의 현지 시장조사 및 중동지역 타카풀 사업을 통해 타카풀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음.
- 같은 이슬람권이더라도 국가마다 샤리아를 적용하는 기준과 해석, 금융 및 보험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규범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타카풀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의 이슬람권 경제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일시적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축적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 금융기관들이 다시 투자에 다시 나서는 등 이슬람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IM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7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넘겠지만 이슬람 지역, 특히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6%대의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맞추어 이슬람 금융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HSBC, 씨티(Citi), UBS, AIG 등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들이 적극 진출하는 등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이슬람 금융의 자산규모는 약 7천억 달러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연평균 약 15%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이슬람 금융이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¹⁾

또한 오일머니에 의한 시설투자 증가가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Takaful)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 타카풀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약 57억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향후 2010년에는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찍부터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한 AIG, 알리안츠(Allianz), HSBC와 같은 다국적 보험회사들은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최근 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타카풀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카풀시장에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흥시장 후보지로 부각되는 타카풀시장 관련 연구조사가 현재

1) 2007년 7월 24일 한국중동협회 주최 ‘이슬람금융국제컨퍼런스’에서 파이살(Fisal) 은행의 압둘 하미드 아부 무사 총재의 발언 중 일부이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슬람 주요 국가들의 보험시장 현황과 보험 관련 법률 및 감독제도 등을 조사하고, 다국적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진출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주요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하여 경제 및 금융 동향을 이슬람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해외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보험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의 중동 5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2개국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본 서론의 연구배경 및 목적에 이어서 II장에서 이슬람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타카풀의 개념, 운용구조, 사업모델 그리고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상기 7개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환경과 더불어 타카풀시장 현황 및 관련 법률과 감독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신시장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였다. V장에서는 현재 타카풀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보험회사들의 진출과정, 현재까지의 성과와 중장기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VI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타카풀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바람직한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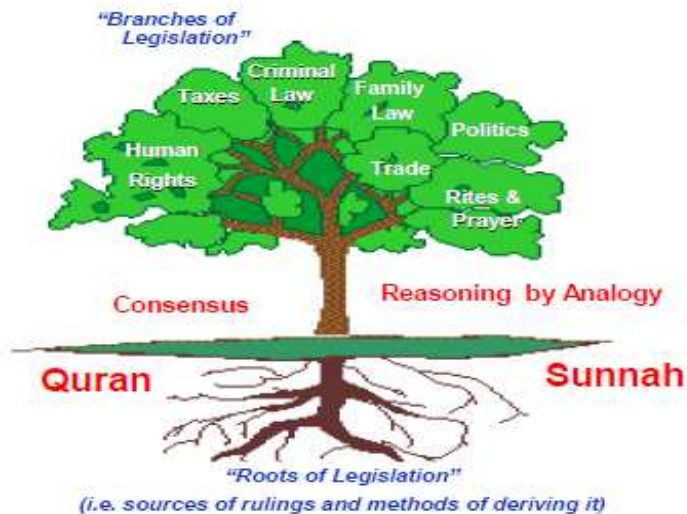
Ⅱ. 이슬람 금융의 개요 및 현황

1. 이슬람 금융의 개요

가. 이슬람 금융과 샤리아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 교리(dogma)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특히 이슬람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칙인 샤리아(Shariah)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사람의 길’을 뜻하며, 개인의 종교적 수행, 생활양식, 습관, 문화 등 이슬람교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모든 측면을 규범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이다.

<그림 II-1> 이슬람 법률의 근원과 지류 개념도



자료 : Tobias Frenz, Madhu Sridharan and Krishna Iyer(2008), Developing a Takaful product in India-Risks and Challenges, 10th Global Conference of Actuaries; February 7-8, 2008 at Hotel Taj President, Cuffe Parade, Mumbai.

샤리아는 이슬람교도의 삶에 관한 최상의 지침서로써 그 본질은 성전인 코란(Quran)과 순나(Sunnah)에 기초를 두고 있다. 코란은 알라신의 말을 들은 예언자 마호메트(Prophet Mohammad)가 이를 아랍어로 기술한 성서이고, 순나는 코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호메트가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삶의 표본을 보인 언행에 근거한 이슬람교도의 생활규범을 말한다.²⁾ 코란과 순나는 천 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슬람 법학자인 샤리아 법학자들의 독자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양할 뿐 기본적인 내용의 수정 및 폐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코란이나 순나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변화 혹은 발전, 예를 들면 출산억제, 인간복제, 장기이식 또는 신용카드나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 등 상업적 문제와 관련된 것은 법률적 추론과 명망 높은 샤리아 학자들의 판단을 통해 샤리아에 의거하여 다루어진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단 샤리아 학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판결인 파트와(Fatwa)는 즉시 샤리아의 일부가 되며, 따라서 일종의 판례법(case law)으로 고려될 수 있다. 때로는 상호 모순이 존재하는 이러한 다원주의적 방식이나 종교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슬람 법률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특정 사안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이슬람 학자나 지역별로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이슬람 학자나 특정 지역에서 재단(裁斷)된 파트와가 세계의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³⁾

이슬람 금융은 이처럼 코란과 순나를 양대 법원(法源)으로 하는 샤리아를 준수하는 은행거래, 증권거래, 보험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가리킨다. 샤리아는 <표 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자, 불확실성, 투기와 더불어 주류, 담배, 돼지고기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슬람 금융에 있어서 주요 원칙이 되고 있다.

2) Tobias Frenz, Madhu Sridharan and Krishna Iyer(2008) p.46 참조

3) 이로 인하여 많은 금융상품들이 각기 다른 모델로 개발되고 있으며, 표준화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II-1> 샤리아 금지 조항

주요 내용
① 금전 사용에 있어서 리바(Riba: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계약 중의 가라르(Gharar: 불확실성)을 금지한다.
③ 마이사르(Maisir: 투기행위)를 금지한다.
④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 주류, 담배, 무기 등의 하람(Haram: 금기품목)을 사용 또는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료 : 國際協力銀行海外投資情報財團(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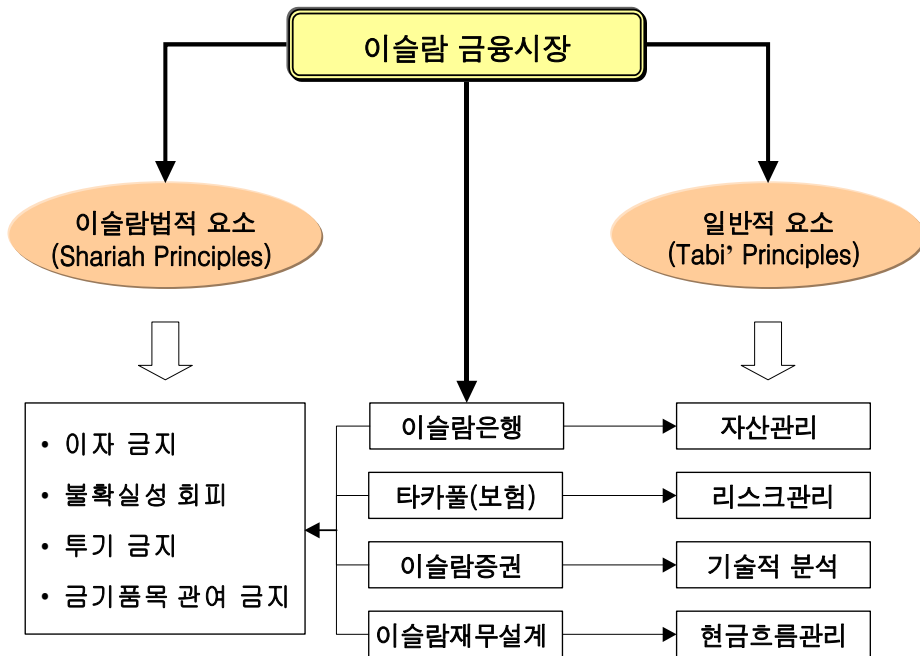
이슬람권에서 돈은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써 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치가 창출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출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행위인 이자는 부당 이득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일반 은행에 보통예금을 하는 것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재에도 이슬람교도들은 소위 장롱예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당좌예금을 주로 이용하거나 보통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인출하여 기부하는 등 샤리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샤리아는 금기품목(Haram)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슬람교도에게 자금 공여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공 사업이나 주류 제조 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나 용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박과 같은 투기 행위도 이슬람 금융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샤리아의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살았던 7세기의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으로써 번창했지만, 사막으로 둘러싸인 악조건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 이런 이유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상기의 원칙들이 생겨났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도들이 안심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 반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충족한 것이 이슬람 금융시장이다. 이슬람 금융에서는 <그림 II-2>와 같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시장별로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기술적 분석 등 본래 기능인 일반적 요소와 이슬람

유효법적 요소 모두가 충족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은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약 3명 정도로 구성)로부터 금융거래가 샤리아를 준수한다는 것(Shariah compliance)을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림 II-2> 이슬람 금융시장의 요소



자료 : Saiful Azhar Rosly(2005)

나. 이슬람 금융의 발전 과정

이슬람 금융의 기원은 서기 7세기(이슬람력 1세기) 이슬람 최초의 세습왕조인 오마야(Umayyad) 왕조시대에 발행된 수쿠크(Sukuk)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아랍어 '색(Sak)'의 복수형으로 영어 'check'의 어원으로 알려져 있는 수쿠크는 당시에는 주로 가신들에게 현금

외에 지불되는 금리로 사용되었다.

현대 이슬람 금융의 역사는 1963년 이집트의 아흐마드 엘-나자르(Ahmad El Najjar)이라는 인물이 미트감르저축은행(Mit Ghamr Local Saving Bank)을 개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미트감르저축은행은 최초의 이슬람 은행으로 이익배분제(profit-sharing)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은행들이 1967년까지 이집트에 9개가 설립되었다. 이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이들 은행들은 주로 무역과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작하여 투자하였고, 예금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상업은행이라기 보다는 예금투자기관(saving investment institutions)의 기능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교도를 위한 저축은행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후 이슬람 금융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⁴⁾ 가맹국이나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원래 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나 술, 도박,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교리에 의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금융은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거액의 오일머니(Oil money)⁵⁾가 유럽과 미국의 은행에 예금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슬람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유가쇼크 후, 고가로 석유수출이 가능하게 된 산유국들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흘러들어왔고 이 자본은 자국내에 투자되거나 재정지출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상당부분은 잉여자금으로 국

4) 걸프협력회의(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경제와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과 치안, 국방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이다.

5) 오일머니란 OPEC가맹국의 석유수출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자본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석유의 생산과 거래에 따라 이동되거나 누적되는 자금으로 사용되며, 좁게는 ①OPEC의 석유수출에 의한 수입(收入)총계, ②OPEC의 잉여자금으로서 OPEC 가맹국의 경상수지흑자 총계, ③단순한 OPEC의 외화 준비 등을 의미하고 있다. 1973년의 유가쇼크 이후 발생한 자본으로 석유거래가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일달러(Oil dollar)라고도 하고, 또한 이 자본을 보유한 국가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교국의 수장을 의미하는 셰이크를 따서 셰이크달러(Sheik Dollar)라고도 한다.

제 단기 금융시장에 유입되었다. 국제 금융계가 산유국 자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오일머니는 유로 커런시 시장(Euro Currency Market)⁶⁾을 경유해 대부분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유입되었는데, 당초 유동성이 높은 단기자금이었지만 점차 운용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1970년대 이슬람 금융은 상업은행의 소매부문 발전, 유가급등에 의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71년 이집트에서 설립된 나세르은행(The Nasir Social Bank)도 비록 정관에는 이슬람이나 샤리아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무이자상업은행(interest-free commercial bank)임을 천명하였다. 1975년에는 사회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이슬람제국회의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산하의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이 설립되었다. 이슬람개발은행은 샤리아 원칙에 기반을 두고 무이자로 회원국들에 용자를 해주며, 특히 자금제공 이외에 이슬람 금융 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동을 중심으로 두바이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 1975), 수단파이살이슬람은행(The Faisal Islamic Bank of Sudan, 1977), 이집트파이살이슬람은행(The Faisal Islamic Bank of Egypt, 1977), 바레인이슬람은행(The Bahrain Islamic Bank of Sudan, 1979) 등 다수의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높은 원유가격을 배경으로 이슬람 금융이 계속 팽창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선물시장의 형성으로 산유국에 의한 원유가격의 결정력 저하, 원유가격 하락, 산유국들의 탈석유의존 정책 등의 요인으로 기존 오일머니의

6) 유로시장(Euro market)이란 특정국 통화표시 금융자산이 그 나라의 영토 밖에서 자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되는 국제금융시장으로, 유로커런시의 예수 및 대출업무가 행하여지는 유로커런시시장과 유로증권이 발행·인수·유통되는 유로본드시장으로 대별된다. 유로커런시시장은 1950년대 말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유로달러시장으로부터 비롯된 단기금융시장으로, 처음에는 유로달러만이 거래되었으나 오늘날 달러화 외에도 파운드화, 마르크화, 프랑화 등 서구 각국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달러화가 전체 시장의 2/3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커런시시장은 유로달러시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영향력은 다소 저하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에는 리스금융을 의미하는 이자라나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 등 이슬람 금융상품의 다양화가 진전되기도 하였다. 또한 샤리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이슬람 투자회사가 다수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이슬람 금융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이란, 파키스탄, 수단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수쿠크, 주식, 투자신탁, 부동산 펀드 등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만들어져 운용되었으며, 이슬람 금융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등장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또한 다우존스이슬람지수(Dow Jones Islamic Index),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샤리아경쟁지수(Index of Shariah-compatible stock) 등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는 주식지표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非)이슬람 권역인 유럽·미국 등에서도 주택융자 등의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HSBC,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BNP 파리바 등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처를 갈망하던 서구 투자은행들이 이슬람 금융 자회사나 이슬람 금융 전문부서인 이슬람 금융창구(Islamic Window Operation)를 세우고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슬람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이슬람 산유국의 오일머니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중동 이슬람 산유국은 계속되는 유가의 상승으로 석유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 금융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투자자 층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종래 미국 국채나 패니 매(Fannie Mae)채, 프레디 맥(Freddie Mac)채와 같은 높은 등급 정부기관채의 매입 등 미국 채권시장에 대량 유입되었지만, 9.11테러사건 이후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미국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대체시장으로써 이슬람 금융시장에 오일머니 자금이 유입되는 측면도 있다.

<표 II-2> 현대 이슬람 금융 발전사

년 대	주 체	금융상품	지 역
1970년대	상업은행	부다라바와 예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	중동, 아시아
1980년대	상업은행, 타카풀사, 이슬람 투자 회사	상업은행 금융상품, 타카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1990년대	상업은행, 타카풀사, 이슬람 투자사, 브로커 및 딜러	상업은행 금융상품, 타카풀, 투자신탁, 부동산 펀드, 수쿠크, 주식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2000년 이후	상업은행, 타카풀사, 이슬람 투자사, 이슬람 투자은행, 자산운용회사, 전자상거래, 브로커 및 딜러	상업은행 금융상품, 타카풀, 투자신탁, 부동산 펀드, 수쿠크, 주식, 자산운용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자료 : 國際協力銀行海外投資情報財團(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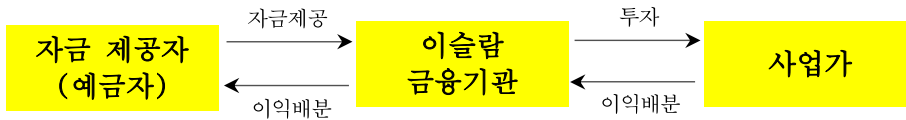
또한 이슬람 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제, 세제 등의 제도정비와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와 같은 이슬람 금융 국제기관들의 표준화 노력에 의해서 이슬람 금융시장의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어 온 것도 근래 이슬람 금융시장의 발전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 이슬람 금융상품의 종류

1) 무다라바(Mudarabah : 신탁 금융)

무다라바는 자금 제공자가 사업가에 대해서 자금을 신탁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말한다. 자금 제공자는 사업가에게 자금의 운용을 공여하고 사업가는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약정기간이 도래하면, 양자는 미리 정한 약정 비율에 따라서 이익(혹은 손실)을 분배한다. 이슬람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사업가로부터 회수하여 배당의 형태로 자금 제공자인 예금자에게 배분하는 소위 이익배분시스템(profit sharing system)을 취하고 있다.

<그림 II-3> 무다라바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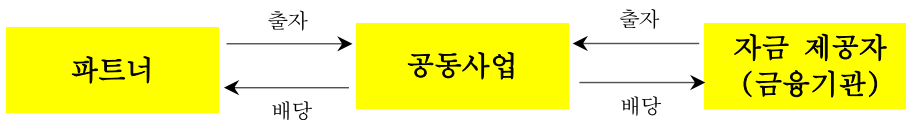


자료 : M. Kabir Hassan and Mervyn K. Lewis(2007)

2) 무샤라카(Musharaka : 출자 금융)

무샤라카란 사업가와 이슬람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로 사업에 출자하여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른 배당 수령권 및 경영 발언권을 가지며, 또한 손실 발생시 리스크 부담의 책임을 함께 지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성격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공동사업의 계약이다. 파트너로부터의 출자는 자금 뿐만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 기술, 매니지먼트 등 현물출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무다라바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II-4> 무샤라카 흐름도



자료 : M. Kabir Hassan and Mervyn K. Lewis(2007)

3) 무라바하(Murabaha : 소비자 금융)

무라바하는 이슬람 금융기관이 주택이나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을 대신해 대금을 상품 공급자에게 지급한 뒤 상품 구입자로부터 대금과 일정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라바하는 이슬람 금융거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5> 무라바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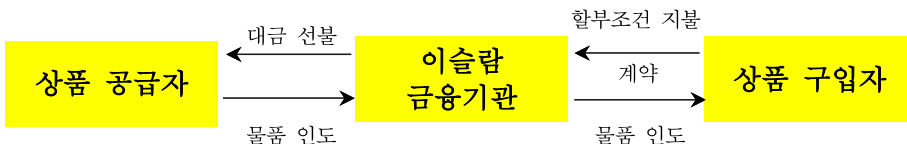


자료 : M Kabir Hassan and Mervyn K. Lewis(2007)

4) 이스티스나(Istisnaa : 생산자 금융)

‘만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스티스나는 생산자 금융의 일종으로 신규 주택이나 공장설비와 같이 수요자가 요청하는 미래에 생산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용자를 해주고, 물품 완성 후 금융기관은 이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상품 구입자와 이슬람 금융기관은 제조하는 상품 내역(스펙, 만기일, 가격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이후 이슬람 금융기관은 상품 제조업자에게 대금을 수취인, 즉 상품 구입자에게 부담한다. 대금지불 방식은 완불, 할부, 공정도에 따른 지불 등 모두 가능하다. 최근 중동국가들에서 이자라(리스 금융)와 결합하여 최초 건설단계에는 이스티스나로 계약하고 운영단계에서 이자라로 계약하는 복합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스티스나는 지불방식이 유연하다는 점 외에도, 실물자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슬람 상거래 원칙 관점에서 상당한 예외에 속하는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6> 이스티스나 흐름도



자료 : M Kabir Hassan and Mervyn K. Lewis(2007)

5) 이자라(Ijara : 리스 금융)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유사한 형태인 이자라는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자산을 구입 및 소유한 이슬람 금융기관이 리스 이용자에게 임대하며 임대기간 중에 임대료를 징수한다. 토지, 건물, 설비기계류,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자금 조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1-7> 이자라 흐름도



자료 : KOTRA(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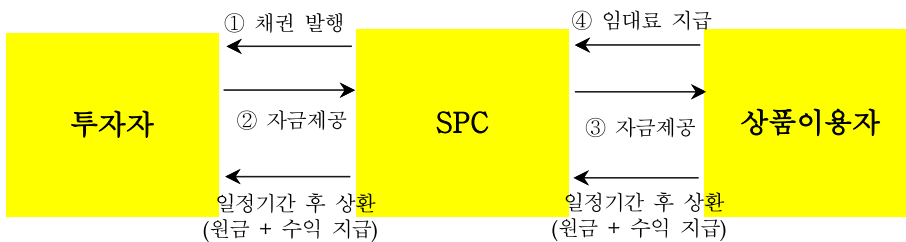
6) 수쿠크(Sukuk : 이슬람 채권)

이슬람 채권을 뜻하는 수쿠크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투자금으로 벌인 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만을 가지는 전통적 채권과 차이가 있다.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는 발행 가능한 수쿠크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중 실물자산에 대한 리스를 통해 발생할 임대수익이나 임대료 지급시 발행하는 이자라 수쿠크(Sukukal-Ijara)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발생할 이윤을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무샤라카 수쿠크(Sukuk al-Musharaka)가 가장 많이 발행되는 형태이다.

수쿠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사업 실시자로부터 설비 등을 구입한 후 특수목적회사는 해당 설비 등을 사업가에게 임대해 준다. 특수목적회사는 해당 설비의 임대료를 수쿠크로 발행해 지급한다. 수쿠크는 일반적인 채

권과 동일하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등의 세계 각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 가능하며, 유로채의 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등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기간은 1년부터 최장으로 20년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림 11-8> 수쿠크 거래 기본 구조



자료 : 고용수, 김진홍(2007)

7) 파생 이슬람 금융상품

이전에는 파생 금융상품이나 선물거래는 샤리아가 금지하고 있는 투기 행위에 해당되어 환율리스크나 금리리스크 등의 연계매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이슬람 금융기관은 보통 규모가 작고 금융 공학에 능숙한 인재가 부족해 파생 금융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환율리스크나 금리리스크 등의 연계 매매수단이 없으면 이슬람 금융의 향후 발전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이슬람 금융권에 확산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이슬람 법학자들은 샤리아에 저촉되지 않는 금융파생상품 개발 및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샤리아 해석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금융 파생상품 거래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기준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슬람 금융의 현황

가. 이슬람 금융 자산 규모

쿠웨이트금융원(Kuwait Finance Hous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이슬람 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7천억 달러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이슬람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대차대조표의 기재된 부분 외의 거래도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연평균 약 23~25% 정도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⁷⁾

이슬람 금융의 총자산 규모 7천억 달러 중에서 이슬람 금융기관이 약 1,780억 달러, 전통적 상업은행이 약 2천억 달러, 이슬람 자본시장이 약 3천억 달러, 타카풀 자산이 약 2백억 달러, 그 외(주로 부유층의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유럽이나 중동의 프라이빗 뱅크)의 자산이 약 90~12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 이슬람 금융의 자산규모

(단위 : 억 달러)

금융기관 유형	자산규모
이슬람 금융기관	1,780
전통적 상업은행	2,000
이슬람 자본시장	3,000
타카풀	200
기타*	90~120
합 계	7,070~7,100

주 : * 주로 부유층의 자산을 운용하는 유럽·중동의 프라이빗 뱅크(PB)
 자료 : Kuwait Finance House(2007)

7) 2007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IFSB/JBIC/JOI 공동개최 이슬람 금융 세미나에서 쿠웨이트금융원 통계치를 인용

이슬람 금융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런던, 뉴욕, 취리히 등 비이슬람 지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약 15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약 24%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이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자산 축적과 투자충 확대가 지속되면 이슬람 금융시장은 201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표 II-4> 세계 이슬람 인구

(단위 :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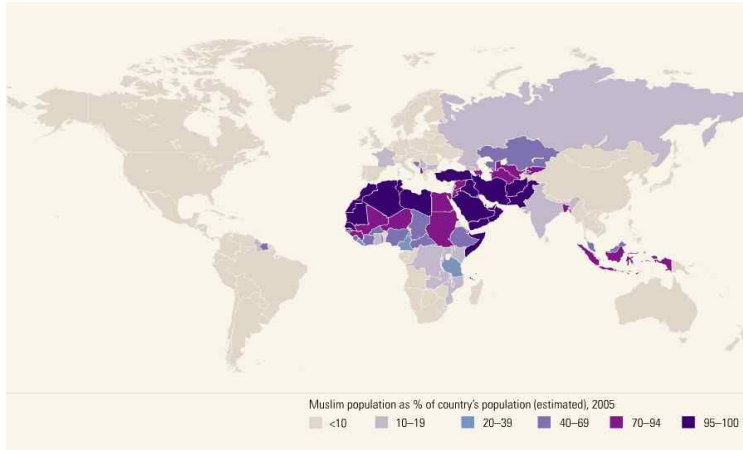
국 명	이슬람교도수	비율(%)*	국 명	이슬람교도수	비율(%)
인도네시아	180	88	에티오피아	22	35
인도	108	11	수단	21	75
파키스탄	128	97	사우디아라비아	21	100
방글라데시	109	87	우즈베키스탄	18	75
터키	64	99	예멘	17	100
이란	59	95	시리아	13	85
나이지리아	58	48	러시아	12	8
이집트	55	90	말레이시아	12	54
알제리	30	99	탄자니아	11	35
모로코	28	99	소말리아	9	98
아프가니스탄	25	99	튀니지	9	98
이라크	22	95	말리	9	80

주 : * 총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이슬람교도의 비율임.

자료 : CIA(2008)

8) 2009년 1월 13~14일 IFSB 주최로 한국에서 열렸던 'Seminar on Islamic Finance 2009'에서 Rifat Ahmed Abdel Karim, IFSB 사무총장 기조발언에서 발췌

<그림 II-9> 세계 이슬람 국가 및 이슬람교도 분포도



자료 : CIA(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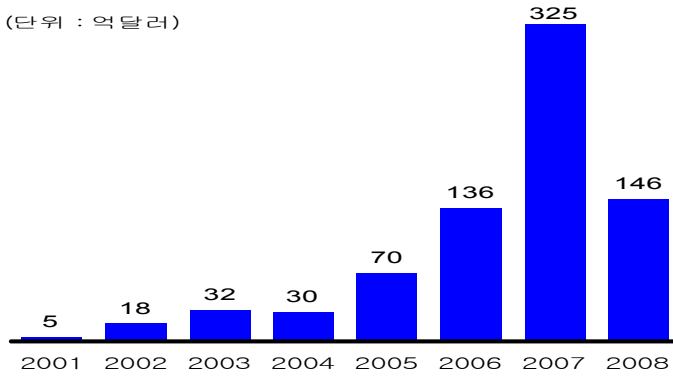
나. 수쿠크 거래 현황

불과 2000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수쿠크 시장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이슬람 투자펀드 급성장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근래 들어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자 개념을 이용한 증권이라는 이유로 샤리아에 부적격이었던 수쿠크가 2000년대 초 샤리아 적격 구조의 수쿠크가 개발되면서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금융상품 중 최근 가장 급성장한 수쿠크 발행규모는 2001년 5억 달러, 2003년 32억 달러, 2005년 70억 달러, 그리고 2007년에는 325억 달러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46억 달러에 머무른 2008년을 제외하고는 약 61%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II-10> 세계 수쿠크 발행 규모 추이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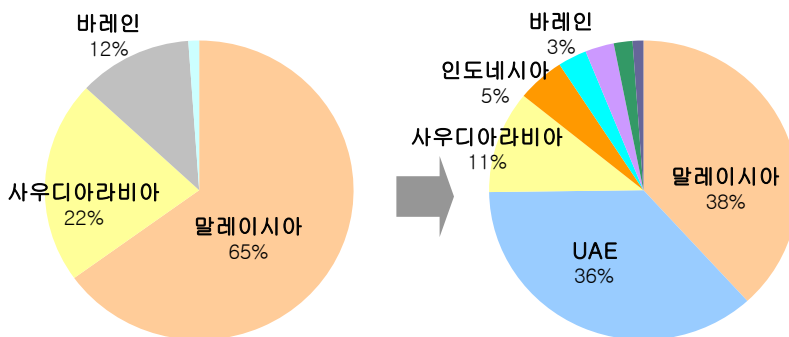
자료 : David Testa(2009)

2003년에는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수쿠크의 약 90%가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에서 발행되는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에는 수쿠크로 자본 조달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발행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림 II-11> 세계 수쿠크 발행 국가별 비중 변화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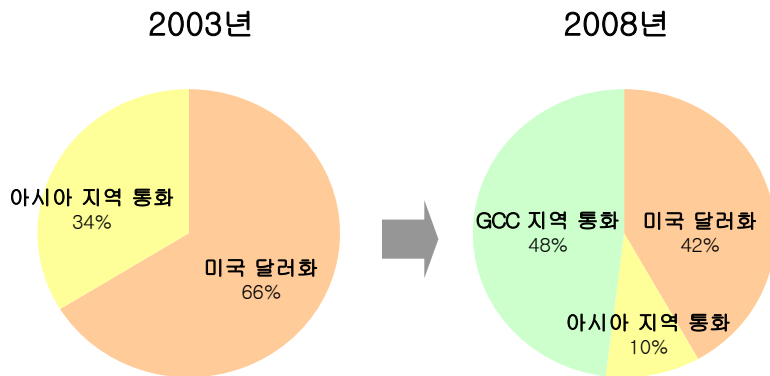
2008년



자료 : David Testa(2009)

그동안 수쿠크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실물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는 이자라 및 무샤라카로 구성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쿠크 발행의 66%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었으나 이후 말레이시아 화폐인 링깃(Ringgit)화, UAE의 디르함(Dirham)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알(Riyal)화 표시 수쿠크 발행이 늘어나면서 2008년 미국 달러화 비중이 42%로 감소하는 등 발행 통화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그림 II-12> 세계 수쿠크 발행 통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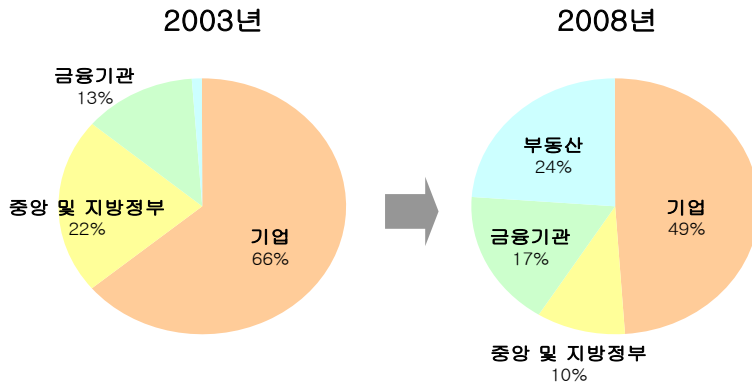


자료 : David Testa(2009)

한편 수쿠크는 초기에는 중동, 말레이시아 등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혹은 민간기업이 주로 발행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중동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방기업 및 차입시장 다변화와 차입비용 절감을 원하는 여러 지역의 부동산 투자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에는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국제기관으로서 첫 수쿠크를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하였고, 같은 해 독일 Saxony-Anhalt 주정부가 1억 유로의 수쿠크를 발행하였다. 200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사빅(SABIC)이 20년 장기 수쿠크를 발행한 바 있으며, UAE 국영 부동산 기업인 낙힐(Nakheel)은 35억 달러

에 달하는 거액의 수쿠크를 발행하는 등 수쿠크 시장은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II-13> 세계 수쿠크 섹터 변화



자료 : David Testa(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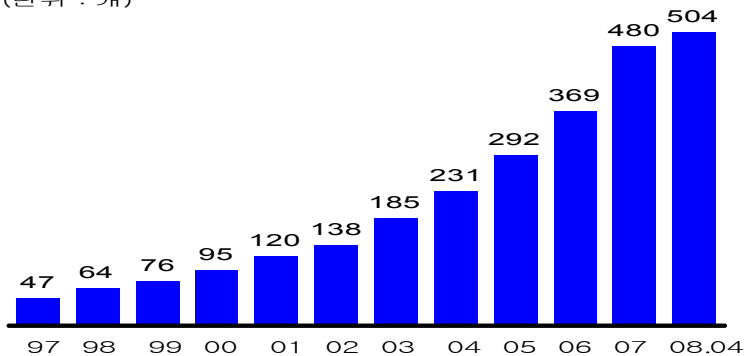
다. 이슬람 투자펀드 거래 현황

이슬람 금융시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발달과 더불어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이슬람 투자펀드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부동산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 최근에는 각종 헤지펀드도 이슬람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슬람은행보협회(IIBI: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Insurance)에 따르면, 전세계 이슬람 투자펀드의 숫자는 1995년 10여 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504개로 급증했으며, 운용 자산규모도 339억 700만 달러로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77개의 신규 이슬람 투자펀드가 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111개, 2008년 1~4월에만 24개의 신규 이슬람 투자펀드가 발행될 정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6%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이체뱅크, ABN 암로,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명 투자은행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슬람 금융부문을 신설하면서, 2010년까지 이슬람 투자펀드는 천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적 책임투

자(SRI)가 각광받으면서 반사회적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슬람 투자펀드를 윤리적 펀드(ethical fund)라고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투자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인식 때문에 엄격한 샤리아 율법에 의해 불확실한 거래 및 레버리지, 도박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금지하는 이슬람 펀드는 기본 투자원칙으로써 다른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림 II-14> 이슬람 투자펀드 연도별 증가 추이

(단위 : 개)



주 :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Eurekahedge, AmInvestment Management(2009).

이슬람 투자펀드는 아시아 태평양,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되고 있으나 투자규모로 보면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504개 펀드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운용사가 담당하고 있는 펀드는 133개로 2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운용사는 126개를 담당,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펀드 금액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두 국가에서 설정된 펀드가 245억 달러로 전체 펀드의 72%에 달한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 투자펀드 설립이 용이하고 투자활동도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5> 국가별 이슬람 투자펀드 운용 현황

국 가 명	펀드 숫자(개)	비 중	금액(백만 달러)	비 중
사우디아라비아	133	26%	20,360	60%
말레이시아	126	25%	4,141	12%
쿠웨이트	76	15%	3,437	10%
UAE	39	8%	2,002	5%
인도네시아	25	5%	253	1%
싱가포르	21	4%	559	2%
바레인	14	3%	368	1%
파키스탄	13	3%	240	1%
기타	57	11%	2,547	8%
합 계	504	100%	33,907	100%

자료 : Eurekahedge, AmInvestment Management(2009).

<표 II-6> 주요 이슬람 투자펀드

펀드명	국 가 명	자산(백만 달러)
Public Ittikal Fund	말레이시아	1,126.9
Public Islamic Equity Fund	말레이시아	615.5
SBB Dana Al-Ihsan	말레이시아	409.7
Pacific Dana Aman	말레이시아	317.1
AlAhli Global Trading Equity Fund	사우디아라비아	299.0
AmIttikal	말레이시아	290.2
Mayban Dana Yakin	말레이시아	239.5
Public Islamic Opportunities Fund	말레이시아	233.1
PTB Amanah Saham Darul-Iman	말레이시아	195.3
HSBC Insurance Takaful Global Fund	싱가포르	169.0
SBB Dana Al-Ihsan 2	말레이시아	139.3
Great Eastern Dana Restu	말레이시아	101.3
Hwang-DBS Dana Izdihar	말레이시아	89.7
Amana Growth Fund	미국	85.9

자료 : Bloomberg

라. 파생상품 거래 현황

최근에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거나 불확실성, 투기, 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샤리아 원칙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던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들이 샤리아 원칙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에 힘입어 점차 개발되고 있다.

옵션거래의 경우, 장래의 손익이 우발적 사상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 때문에 샤리아 원칙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보다 단순한 형태의 거래인 선물거래조차도 장래 시점에서의 거래에 관한 약정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샤리아에 어긋나 거래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파생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 말레이시아 법인은 2006년 4월부터 금리스왑, 크로스 통화스왑, 선물과 유사한 거래를 개시하였고 씨티그룹도 같은 해 10월 두바이 투자공사인 두바이인베스트먼트그룹(Dubai Investment Group)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며, 쿠웨이트금융원, 말레이시아 법인 또한 금리스왑의 형태인 이자라 렌탈스왑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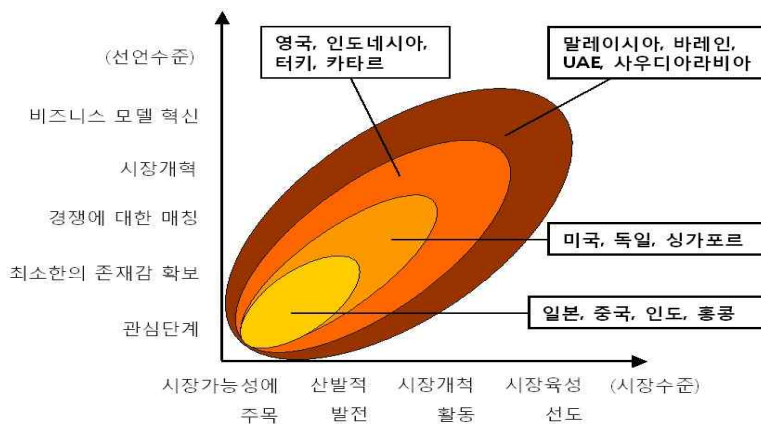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슬람 각지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나 UAE의 두바이 등 샤리아 해석에 비교적 유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샤리아 법학자들간의 해석이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과 일반 파생상품 거래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국제스왑파생거래협회(ISDA: International Swap and Derivative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이슬람식 파생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향후 이슬람 금융 파생상품의 다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 여건과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이

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신상품 개발, 이슬람 금융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규제채정, 인재양성 등의 면에서 이슬람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 2그룹 국가들로 분류되는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 카타르, 브루나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등은 제 1그룹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국가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싱가포르, 시리아, 레바논과 같은 제 3그룹 국가들에서는 주택융자, 펀드, 각종 임대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이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등의 비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II-15> 주요국 이슬람 금융 발전 단계



자료 : 國際協力銀行海外投資情報財團(2007)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금융제도가 각 국가들마다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 은행이 이슬람금융 업무를 실시하는 소위 이슬람 창구업무(Islamic Window Operation)를 허용하고 있어 대형 은행이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슬람 금융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에 바레인에서는 반드시 이슬람 전문은행에서만 이슬람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씨티그룹은 자회사인 씨티이슬람투

자은행(Citi Islamic Investment Bank)을 설립하여 바레인 내에서 이슬람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두 나라가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종교적 엄격성과 금융 산업을 얼마만큼 중시하는 데서 갈려진다. 즉, 말레이시아는 교리해석에 있어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유연하고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성장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어 신흥 참가자들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방식을 허용했다. 이에 반해 바레인은 말레이시아에 비해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준수하는데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어 명확한 대조를 보인다.

가. 비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 금융 현황

1) 영국

영국은 비이슬람권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금융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약 19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이슬람 금융 관련 자산이 1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영국에서의 이슬람 금융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의 이슬람교도와 50만 명의 이슬람교도 여행자가 체류하고 있는 영국은 자국 내 이슬람교도들을 위해서 2003년부터 제도정비 등의 방법으로 이슬람 금융서비스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HSBC는 이슬람 예금이나 이슬람 주택융자 등 개인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유럽연합(EU)에서 첫 이슬람 전문은행인 영국이슬람은행(IBB: Islamic Bank of Britain)이 설립되었다. 또한 로이즈 TSB(Loyds TSB)도 2006년 6월부터 영국 전역에 이슬람 금융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를 배경으로 2008년 2월 영국 정부는 2012년 개최되는 런던 올림픽 예산자금의 일부를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며, 중동 기업들 역시 수쿠크 발행을 확대하면서 2008년 3월말 현재 런던거래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수쿠크 발행액은 11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교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슬람 금융을 한층 발전시키고자 이슬람 금융 관련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2003년에는 이슬람 주택융자 세제를 개정하고 2005년에는 무라바하 거래의 배당이나 이자라의 임대료에 대한 세제상의 손실금 산입을 인정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동등한 세제 중립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쿠크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종래의 채권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정부가 세제 개정을 약속하는 등, 영국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 금융 관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표 II-7> 영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슬람 금융상품

기 관 명	주요 이슬람 금융 상품
Loyds TSB	당좌예금, 보통예금, 주택대출, 학생 대상 당좌예금(무이자 차입 제공)
영국이슬람은행(IBB)	당좌예금, 보통예금(이익공유), 정기예금(이익공유), 개인대출, 주택대출
HSBC	보통예금, 주택대출, 손해보험

자료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요약·정리함.

2) 미국

9·11 사태 이후 반이슬람 정서가 강해진 미국에서도 자국 내 이슬람교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라바하 방식의 주택자금 융자나 자동차 론과 같은 가계 관련 이슬람 금융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데번은행(Devon Bank)과 프레디 맥(Freddie Mac)의 경우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대규모의 이슬람교도 주민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샤리아에 적합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2006년에는 텍사스 자원개발기업인 이스트카메론(East Cameron)이 레바논 증권회사 BSEC를 통해 수쿠크를 발행하여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설비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금융자본의 메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미국 내 이슬람 금융산업은 아직 개발할 여지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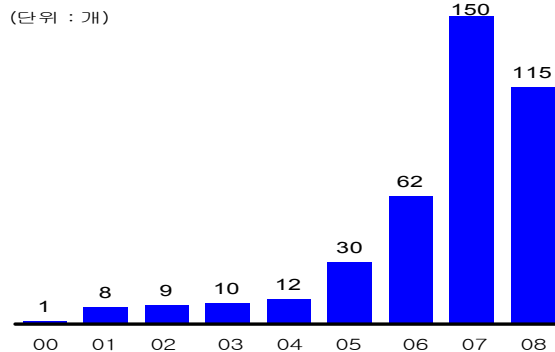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국 내보다는 아시아, 중동 등의 신흥시장에 주력한 후 이의 경험을 살려 장기적으로 국내까지 영업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씨티그룹은 1996년 바레인에 진출하여 최초로 이슬람 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6년에는 싱가포르 등지에서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G 또한 씨티그룹과 같은 해에 처음으로 바레인에서 타카풀사업을 시작하였다.⁹⁾

3) 일본

일본은 2007년 1월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수쿠크 발행을 앞두고 이슬람 금융 국제 세미나를 연 것을 계기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일본의 유력 언론들이 연일 이슬람 경제와 금융에 대한 특집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점도 이슬람 금융에 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림 II-16> 니케이신문 이슬람 금융 관련 기사 게재 수 추이



자료 : Etsuaki Yoshida(200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이슬람 금융업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7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 활동을 통해 이슬람 금융에 관한 최신 정보 취득 및 170여 개 회원들과의 교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9) 'V.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의 '1. AIG 타카풀-에나야'를 참조

<표 II-8>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회원 국가별 현황

국가명	전체수	정회원	준회원	참관회원
말레이시아	27	2	3	22
UAE	24	1	3	20
수단	16	1	1	14
바레인	16	1	-	15
쿠웨이트	14	1	-	13
사우디	10	2	1	7
카타르	9	1	1	7
일본	7	-	-	7
국제기관	5	1	4	-
파키스탄	4	1	1	2
요르단	4	1	-	3
브루나이	3	1	-	2
이집트	3	1	-	2
이란	3	1	-	2
싱가포르	3	1	-	2
터키	3	-	-	3
몰디브	2	1	1	-
방글라데시	2	1	-	1
홍콩	2	-	1	1
레바논	2	-	1	1
팔레스타인	2	-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	-	2
미국	2	-	-	2
영국	2	-	-	2
지부티	1	1	-	-
인도네시아	1	1	-	-
시리아	1	1	-	-
중국	1	-	1	-
모리셔스	1	-	1	-
필리핀	1	-	1	-
캐나다	1	-	-	1
독일	1	-	-	1
한국	1	-	-	1
모로코	1	-	-	1
세네갈	1	-	-	1

주 : 34개국 178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흑색표시는 비이슬람국가(흑은 기관)임.
 자료 : IFSB Member List.(2008년 12월 기준)

일본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적극적인 진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3개 은행은 일본국 제협력은행과 함께 이슬람금융연구회를 조직해 이슬람 금융 전반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말레이시아 금융그룹 CIMB와 말레이시아에 이슬람금융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두 금융기관은 2007년 3월에 각각 UAE 두바이에 지점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현지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벤처캐피털회사인 일본아시아투자(Japan Asia Investment Co. Ltd.)도 1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파키스탄출신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했으며, 2007년 1월에는 이온크레디트서비스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일본 기업 중 처음으로 136억 엔의 수쿠크를 발행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다이와자산관리(Daiwa Asset Management Co. Ltd.)는 샤리아 원칙에 입각해 선정한 기업들로 하여금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이슬람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 Fund)를 만들어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일본 보험회사들도 이슬람 금융사업에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 2006년 일본 최초로 말레이시아 유력 은행그룹인 홍콩그룹과 제휴하여 홍콩 토쿄해상타카풀(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l Berhad)을 설립한 토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다양한 타카풀 상품과 홍콩그룹의 광범위한 판매채널을 발판으로 진출 2년 만에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에서 3위의 타카풀회사로 급부상하였다.¹⁰⁾ 이 밖에 일본 메이저 보험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도 2009년 1월 카타르 최초로 외국자본 손해보험회사로 인가받아 재보험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일본 보험회사들의 이슬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싱가포르

인구의 15% 정도가 이슬람교도인 싱가포르는 바레인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슬람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슬람 금융 발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

10) 'V.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의 '3.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을 참조

은 편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전문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슬람 금융 서비스는 단지 일반 금융기관의 이슬람 금융창구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국제 금융 허브로서 이슬람 금융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와 세금 제도 등을 개혁하는 등 일반 금융을 중심축으로 이슬람 금융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¹¹⁾ 2005년 9월 은행법을 개정해 무라바하 거래에 수반하는 은행의 비금융거래(물품의 구입 및 판매 업무)도 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슬람 금융거래 관련 과세 면제 조치를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차례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06년 2월에 아시아 최초로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 샤리아 100지수(FTSE SGX Asia Shariah 100 Index)를 개시했다. 이 지수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등의 기업들 중 샤리아에 저촉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아시아 기업 주식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금융관리국은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업진흥기금(FSD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을 조성하여 대학에서 진행되는 이슬람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싱가포르이슬람교협의회(MUIS: Majlis Ugama Islam Singapura)도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샤리아 법학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싱가포르 최대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GCC 회원국들로 구성된 펀드와 공동 출자하여 이슬람 금융업 발전을 위한 아시아 투자은행(Investment Bank Asia)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5) 중국

중국은 대체적으로 중동 현지에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

11) 2008년 1월 13일~14일 IFSB 주최로 한국에서 열렸던 'Seminar on Islamic Finance 2009'에서 Tai Boon Leong 싱가포르 재무부 대표는 고척동 전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한 고위층을 중심으로 이슬람 금융 및 투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이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

산 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2005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중동순방을 계기로 현지에 홍콩 투자회사와 중동 증권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걸프차이나펀드(Gulf China Fund)라는 이름의 투자기금이 조성되었다. 인프라 정비 사업 투자를 위해 약 2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를 계기로 중국국제투자신탁회사(CITIC)와 바레인의 샤밀은행이 공동으로 1억 달러의 중국 부동산 전용 이슬람펀드를 만드는 등 다양한 펀드가 이슬람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나.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

1) 금융시장 표준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현재 이슬람 금융은 비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금융의 저변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협조체제 강화 및 국제 표준 통일을 위한 많은 수의 국제기구들이 2000년 이후 창설되고 있다. 이는 역내 풍부한 오일머니의 유입 확대와 활용 효율화를 위해 이슬람 금융의 역할이 매우 절실해짐에 따라, 국가간 협조체제 강화와 국제표준 통일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국제기관들 중에서도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비이슬람 국가 및 기관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이슬람 금융이 국제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 홍콩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2008년 8월 참관위원회에 가입하였다.

<표 II-9>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국제기관

기 관 명	설립연도	설립국가	주요 업무	참가 기관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 (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1991	바레인	회계·감사, 윤리 및 샤리아 해석 기준 제정 등	총 29개국의 민간 금융 기관, 회계 사무소 등 약 140 개 기관 및 단체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2002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 관련 국제 기준 마련 등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 국제감독 기관, 금융회사 등 34개국 178개 기관
국제이슬람금융시장 (IIFM: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	2002	바레인	이슬람 금융 거래의 표준화 제정 등	이슬람 국가 중앙은행, IDB, 이슬람 금융기관 등 34 개 기관 및 단체
유동성관리센터 (LMC: Liquidity Management Center)	2002	바레인	수쿠크 등 이슬람 금융 유동성 동급 등	바레인이슬람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IDB, 쿠웨이트은행 등 4사 공동 출자
국제이슬람신용등급기관 (IIRA: Islamic International Rating Agency)	2005	바레인	수쿠크 등급 등	이슬람 국가 중앙은행, 이슬람 금융기관 등 다수

주 : IDB는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의 약자임.
 자료 : 日本國際協力銀行(2007)

<표 II-10>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 회원 현황

	주요 회원
정회원(21) (Full Members)	○ 금융감독기구(5)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 싱가포르 통화청,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몰디브 금융청 ○ 중앙은행(14) 바레인, 방글라데시, 지부티,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카타르, 수단, 시리아, UAE ○ 기타(2) : 이슬람개발은행, 브루나이 재무부
준회원(21) (Associate Members)	○ 국제금융기구(4) : IMF, World Bank, BIS, ADB ○ 금융감독기구(9) 두바이 금융감독청, 수단보험감독청, 카타르 금융감독청, UAE 증권감독청, 라부안 금융감독청(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통화청,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 홍콩 HKMA, 몰디브 자본시장청 ○ 중앙은행(4) : 중국인민은행, 레바논, 필리핀, 모리셔스 중앙은행 ○ 기타 (4)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이슬람민간개발협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참관회원(136) (Observer Members)	○ 금융감독기구(3)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요르단 보험위원회, 한국 금감원·금융위원회 ○ 중앙은행(2) : 일본, 모로코중앙은행 ○ 기타(1) : 세네갈 재정경제부 ○ 금융기관(130) 말레이시아(22), UAE(20), 바레인(16), 쿠웨이트(13), 수단(13), 카타르(7), 사우디아라비아(7), 일본(6^a), 요르단(2), 터키(3), 이집트(2), 이란(2), 영국(2^b), 미국(2^c), 싱가포르(2^d), 브루나이(2), 파키스탄(2), 독일(1), 캐나다(1), 팔레스타인(1), 남아프리카(2), 방글라데시(1), 레바논(1) a)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Securities and Dealers Association, Mizho Cooperate Bank,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Nomura Securities, Mitsubishi UFJ Securities Co., Ltd. b)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Gatehouse Bank plc c) Dow Jones Indexes 외 1개 기관 d) Fitch ratings service 외 1개 기관

주 : 1) 2008년 12월 말 현재 34개국 178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2) IFSB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사무국, 기술분과위원회, 11개 전문그룹으로 구성됨.

자료 : IFSB Member List

2) 이슬람 금융 투자 관련 주가 및 수쿠크 지수 개발

글로벌 자금이 이슬람 국가 및 금융산업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이슬람권은 각종 주가 지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1999년 영국의 지수 비즈니스 기업 FTSE와 미국의 정보제공 기업 다우존스가 각각 이슬람 주가 지수를 개발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개발된 다우존스-씨티그룹 수쿠크지수(Dow Jones Citigroup Sukuk Index)는 지수 제공 주체가 샤리아 적격성 심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수쿠크에 투자할 수 있다.

이슬람 주가 및 수쿠크 관련 지수 종목들은 반드시 이슬람 국가 기업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술, 돼지고기, 무기, 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고 있는 기업이나 비도덕적인 사건을 일으킨 기업 등은 지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들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모든 기업이 지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 주가 및 채권 관련 지수의 범위는 넓은 편이다.

이슬람 주가지수는 지수 제공자가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종목 모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샤리아 100지수(FTSE SGX Asia Shariah 100 Index)의 경우 싱가포르 텔레콤, 도요타, 중국이동통신 등의 외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의 한국기업도 이 지수들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I-11> 이슬람 주가 및 수쿠크 관련 지수

지 수 명	제공 주체	개 요
Dow Jones Islamic Market Index	Dow Jones Indexes	- 샤리아위원회를 자사 내에 마련해 세계 모든 종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체크 - 국가·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등으로도 분류
DJRHB Islamic Malaysia Index	Dow Jones Indexes	- 말레이시아 대기업 금융 그룹 RHB가 다우존스와 공동 개발 -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 상장 - 45개 종목이 대상
FTSE Bursa Malaysia Emas Shariah Index	FTSE, KL 증권거래소	- KL 증권거래소 상장종목 중 샤리아위원회 적격성 심사를 거친 247개사 대상
FTSE Global Islamic Index	FTSE	- 각국 샤리아 적격 기업의 주식 대상 - 4개 통화로 거래(\$, 엔, 파운드, 유로)
FTSE SGX Shariah Index	FTSE	- 2006년 2월 개시 - FTSE, 싱가포르거래소, Yasaar 리서치에 의해 FTSE SGX Asia Shariah 100 Index가 운용
Dow Jones Citigroup Sukuk Index	Dow Jones Indexes	- 2006년 3월 개시 - 다우존스와 씨티그룹이 샤리아 적격 국제채권(글로벌 수쿠크)으로 구성된 지수를 작성 - 세계 최초 수쿠크 관련 지수

자료 :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요약·정리함.

3)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슬람 금융 진출 확대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도가 제고되면서 새로운 이슬람 은행의 유럽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전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 금융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수쿠크 발행액 중 약 20%가 서방 금융기관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예금부문 역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이슬람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씨티그룹은 1996년, HSBC는 1998년, UBS는 2002년에 각각 바레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금융상품을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카타르국제이슬람은행(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과 같은 이슬람 은행들도 2004년 8월 영국 런던에 영국이슬람은행(IBB)을 설립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중동계 대형 금융기관들도 서구지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Ⅲ. 타카풀의 운용구조와 발전 전망

1. 타카풀의 개념

이슬람교에서는 신만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손실위험이 있을 경우 경감시켜야 한다는 마호메트의 메시지는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보험은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슬람교도는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전통적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으며, 납입된 보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적 보험은 투기나 도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전통적 보험은 가입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리스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교리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험계약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 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투자하여 운용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도 계약자에게 배당된다. 이슬람 율법상 투자에 의한 이익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이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나 예금에 의해 얻어지는 이자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돼지고기, 주류, 담배, 무기 등 금기품목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 때문에 전통적 보험에 가입한 이슬람교도들은 이자가 발생하거나 투자처가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보험은 샤리아의 금지조항인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므로 이슬람교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슬람교도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이슬람 사회에서도 보험기능은 물론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197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보험에 대한 이슬람 율법적 결정이나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보험기능에 관한 논의가 이슬람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제다(Jeddah)에서 개최된 이슬람국제회의기구(OIC)의 율법위원회(Fiqh Council)에서는 ‘보험과 재보험에 관한 결정 9호 (Resolution No. 9 Concerning Insurance and Reinsurance(Jeddah/KSA 1985))’를 통해, 전통적인 보험은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에게는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보험의 대안으로 샤리아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상호부조와 각출(contribution)에 근거한 협동적 보험으로 타카풀(Takaful)과 협동적 보험에 입각한 재보험 성격의 리타카풀시스템(Retakaful System)을 인정하였다. 즉, 상호부조에 기초하는 협동의 개념을 통한 보험은 이슬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샤리아 원칙 준수 및 공동 각출금에 기초하여 상호부조의 방식을 도입한 타카풀의 개념을 확립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슬람 법학자들은 “믿는 자를 곤경에서 구하고, 가난한 자를 구하는 사람은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알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타카풀(Takaful)’과 ‘타바루(Tabarru)’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전자는 ‘공동체 안에서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해 주기로 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의 ‘카파라(Kafalah)’에서 파생되었다. 장래의 재난 대비를 위해 이슬람교도가 자금을 서로 각출한 상호부조 기금에 이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후자의 타바루는 각출, 자선 등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재난을 당했거나 불행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에 각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개의 성격을 지닌 공동기금을 운용하여 확장시키는 한편, 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험금 및 배당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카풀의 기본 원리이다.

‘상부상조’와 ‘각출’의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는 타카풀에서 계약자는 전통적 보험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카풀운영사(Takaful Operator)¹²⁾에

12) 본 보고서에서는 타카풀운영사와 타카풀회사, 타카풀사를 혼용해서 기술하였다.

게 예탁하고, 사고 발생시 그 예탁금 중에서 일부가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보험금은 이슬람교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이른바 희사(喜捨, zakat)를 행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이슬람 교리에 반하지 않는다. 희사는 이슬람 교도의 오행인 신앙의 고백, 예배, 희사, 단식, 순례 중의 하나이다. 비이슬람 세계에서 발달한 전통적 보험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이슬람 공동체에 뿌리내려 온 상호부조 사상이 사회적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전통적 보험은 계약자의 순수위험(pure risk)이 회사의 투기적 위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리스크의 거래를 포함하며, 보험회사는 우발적사건으로 인한 지급 청구권 보장의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다. 이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급 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보험회사는 이자를 수반하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슬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도는 이러한 전통적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부조와 각출에 기초하는 타카풀을 활용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타카풀의 구조와 운영모델

가. 타카풀의 기본 구조

타카풀은 계약자 펀드(takaful or policyholders' fund)와 운영사 또는 주주 펀드(operator's or shareholders' fund)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계약자 펀드는 전통적인 상호보험회사와 매우 유사한 방법인 순수협조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보험영업에 의한 잉여금과 손실액은 모두 계약자 펀드로 귀속된다. 운영사는 잉여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계약자펀드는 운영사 펀드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사 펀드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리비용과 수수료 등은 운영사 펀드에서 지불된다.

이러한 타카풀은 계약자와 운영사가 연대책임(Solidarity)을 지며, 보통은 이윤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계약자 펀드는 연대책임원칙 하에서 관리되는 리스크의 풀(pool)로 인식되므로 계약자 펀드에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사는 무이자대출(interest free loan or qard hasan)을 통해 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재무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한편, 이윤공유는 신중성과 균형감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계약자나 운영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만큼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카풀도 이슬람 금융의 일종이므로 그 운영은 개별 사항이나 모든 면에서 샤리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샤리아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고정이자부증권(fixed-income securities)¹³⁾에 대한 투자 및 주류나 도박 등 비이슬람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대한 투자는 허용된다. 또한 모든 타카풀은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이슬람율법감독위원회(Shariah Advisory or 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항상 샤리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¹⁴⁾ 이 위원회에 소속된 이슬람 법학자들은 이슬람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이익배분정책, 보험상품설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¹⁵⁾ 그러나 이슬람 보험분야에서 존경받는 이슬람 법학자들의 부족과 이슬람 율법의 진정한 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점 부재는 이슬람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율법감독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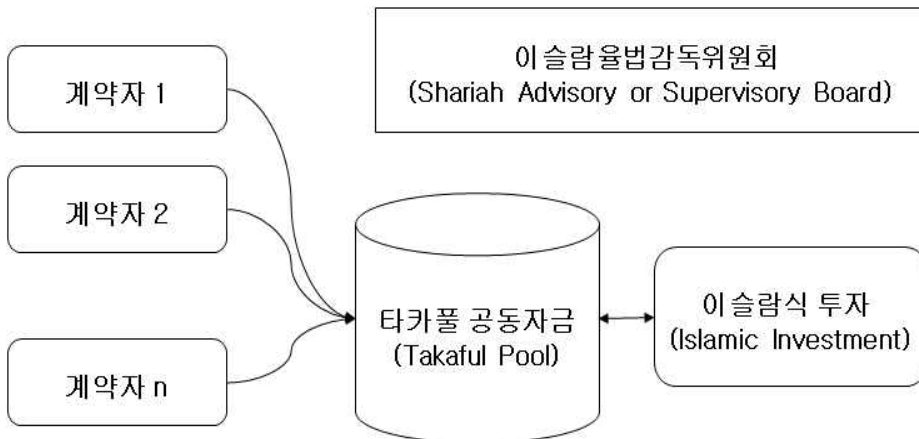
13) 이슬람 율법에서 고정이자부증권 즉, 채권(bond)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채권에 부착된 이표(利票, coupon payment) 때문이다.

14) 이슬람율법감독위원회의 실례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프루덴셜 BSN(Prudential BSN Takaful Berhad) 홈페이지(<http://www.prubsn.com.my/family-takaful.php>)나 HSBC 아마나(HSBC Amanah) 홈페이지(www.hsbcamanah.com/1/2/hsbc-amanah/about-us)를 참조

15) 예를 들면, HSBC 아마나는 모든 이슬람 거래와 상품들은 시장 출시 전에 반드시 이슬람율법감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UAE, 카타르, 영국, 미국, 방글라데시에서의 HSBC 아마나 영업은 중앙이슬람율법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의 HSBC 아마나는 독립된 지역이슬람율법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회는 신상품의 개발을 지연시켜 이슬람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부 저명한 이슬람 법학자들이 여러 개의 이슬람을법감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이슬람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모든 타카풀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participant or policyholder), 타카풀운영사 및 이슬람을법자문위원회를 기본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I-1> 타카풀의 기본적 구성요소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한편, 타카풀에서는 운영사가 계약자와 대리인 계약 혹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자금을 운용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타카풀운영사가 계약자 대신에 다른 계약자의 예탁금에서 각출해 지불한다. 그리고 계약자로부터 각출한 자금은 어디까지나 타카풀운영사에게 단지 예탁된 것이며, 계약자 소유라는 것이 전통적인 보험이나 공제와 다른 점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보험이나 공제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기본적인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제 역시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제료는 일

16) Best's Rating Methodology(2008), p.4.

체 되돌려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액수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적 성격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타카풀의 경우, 사고가 나면 각출금은 전액 출자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이 공제와 다른 점이다. 또한 공제에서도 공제료로 투자가 행해지는 경우 이슬람 율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에게는 타카풀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타카풀운영사의 수입은 주로 수수료나 투자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배분금이며, 보험회사와 같이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적 대행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카풀 계약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도록 비용, 이익, 보험금 지불 등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계약서상으로 명기한다. 그러나 전통적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중 관리비용이나 보험금 및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얼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확실하다. 계약자간의 각출금을 상호부조의 취지로 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제와 거의 유사하므로 국제협동조합상호보험연합(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ral Insuarance Federation)에 가입하고 있는 타카풀운영사가 많다.

<표 III-1> 타카풀과 전통적 보험 및 공제와 차이점

구 분	타 카 풀	기존 보험	기존 공제
기본구조	- 계약자가 타카풀운영사에게 각출금(보험료)을 예탁 - 사고발생시 타예탁금으로부터 각출금(보험료) 수령 - 예탁금에서 리타카풀료, 사업비, 타카풀금 등을 공제 후 잉여금은 계약자에게 반환 - 타카풀운영사는 대리인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기초해 예탁금 투자나 각출금 지불 등의 사무를 행함	- 계약자로부터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 -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 - 반대급부 계약	- 계약자(구성원·단체)로부터 공제단체·조합에 대해서 공제료를 지불 - 사고발생시 공제단체·조합이 공제금을 지불 - 위험분담 계약
보험자	- 없음	- 보험회사	- 공제단체·조합
계약자	- 불특정 다수의 이슬람교도 - 이슬람교도 이외도 가능	- 불특정 다수	- 공제단체·조합원
보험료 및 귀속	- 리스크에 따라 각출금(보험료) 구분 및 계약자 귀속	-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구분 및 보험회사 귀속	-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구분 및 공제단체·조합 귀속
보험료 지불방법	- 월납, 연납, 일시납 등 다양	- 좌동	- 좌동
보상기간	- 일반타카풀은 1년이 주류 - 가족타카풀은 5년이 주류	- 손해보험은 1년 - 생명보험은 장기가 주류	- 좌동
사고시 지불방법	- 일반타카풀은 실손, 가족타카풀은 정액이 주류	- 좌동	- 좌동
판매자	- 대리점, 브로커, 창구판매, 직판 등	- 좌동	- 좌동
법률	- 말레이시아에는 타카풀법 존재 - 싱가포르 등은 금융법에 포함	- 금융법 혹은 보험업법 등이 존재	- 좌동
감독기관	- 각국의 금융담당 부처	- 좌동	- 좌동
영업인가	- 타카풀운영사는 인가제	- 보험회사는 인가제	- 좌동
겸영	- 타카풀운영사는 생손보 겸영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카풀운영사와 보험회사의 겸영 불가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험회사가 타카풀 전용부서 개설을 통해 운영 가능	- 생손보 겸영불가	- 좌동
투자	-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투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감사	- 국제·국내법이나 회계기준에 의거 - 이슬람율법위원회 감사	- 국제, 국내법이나 회계기준에 의거	- 좌동
재보험	- 리타카풀 사용(현재는 공급 부족으로 재보험 이용도 많음)	- 재보험	- 좌동

자료 : 福岡藤乃(2008)

한편, 타카풀운영사는 비영리조직 또는 영리조직 모두 가능하며, 현재는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타카풀 펀드를 관리하는 상업적 타카풀운영사가 더욱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업적 타카풀운영사의 경우 계약자의 리스크와 투자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계약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데, 여기에는 가격결정(pricing) 및 평가(valuation), 배분(distribution), 취득(acquisition), 인수(underwriting), 청구(claims handling), 투자 및 자산관리, 회계, 그리고 재보험인 리타카풀에 대한 협의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타카풀운영사는 수수료기준 보수(fee-based compensation) 또는 계약자에게 발생한 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는데 보수는 타카풀 모델에 따라 다양하다.

나. 타카풀의 운영모델

타카풀은 전통적 보험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로 구분되는데, 계약자와 타카풀운영사간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운영모델이 존재한다. 계약관계에는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며, 보험영업을 통한 잉여나 투자활동에 의한 이익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위험 발생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지며, 운영 초기자본은 누가 제공할 것인가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타카풀 운영모델은 우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델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델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수수료 계약방식인 와칼라(Wakalah¹⁷⁾)와 이익배분 계약방식인 무다라바(Mudharabah¹⁸⁾) 및 양자를 결합하는 혼합방식으로 대별되며, 후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와크프 모델(Waqf¹⁹⁾)

17) 와칼라(wakalah)는 ‘대리인 계약’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이다.

18) 무다라바(Mudharabah)는 파트너십의 일종으로 일부 파트너들은 자본을 제공하고 다른 파트너들은 노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에서 노동 혹은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자를 무다리바(mudharib)라고 한다.

19) 와크프(waqf)는 ‘자선단체’ 혹은 ‘신탁’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이다.

Model)이다.

와칼라의 기본개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를 대표하여 활동할 것을 위임하고 미리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슬람 계약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수수료는 절대금액이나 계약액의 일정비율로 미리 협의해 정한다. 무다라바의 개념은 한쪽은 업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자본을 제공하는 계약형태로 양자는 공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미리 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샤리아를 준수해야하는 타카풀도 운영구조면에서 상당부분 전통적 보험과 유사하지만, 가장 차별되는 점은 행정 및 자산 관리 업무와 리스크 수반 기능을 구분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타카풀운영사로 하여금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계약자의 각출금은 타카풀운영사의 주주 지분을 위한 주주펀드(Shareholders' Fund)와 계약자의 공동각출을 위한 계약자 펀드(Takaful Fund 혹은 Policyholders' Fund)로 나누어 관리된다. 타카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랍어로 대리인을 의미하는 와칼라인 타카풀운영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데, 업무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운용자금을 포함하여 각출금(보험료)의 일정액이 주주펀드 명목으로 타카풀운영사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타카풀운영사에게 예치하는 것에 불과한 계약자 펀드가 된다. 사고가 일어나 손해가 발생하면 이 계약자 펀드에서 보험금에 해당하는 지불이 이루어지게 된다.²⁰⁾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지불 금액이 확정되면 이 지불을 이슬람권에서는 '상부상조'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이슬람교리 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타카풀에서도 이슬람 금융을 통한 자산이 운용되면 이슬람교리 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자금의 구분은 일반타카풀이나 가족타카풀 모두 공통적이다.

한편, 계약자리스크계정(PRA: Participant's Risk Account)은 모든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때 공동출연의 형태로 상호부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계정이다. 이 계정은 일반적으로 타카풀 펀드라고 불리는데 개별 가족, 그룹 가족, 연계투자, 배당금 등과 같이 사업상

20)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에서는 보통 계약자 펀드 내에 저축을 목적으로 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금 지불에서 제외된다.

구별되는 하나 이상의 리스크 펀드가 존재할 수 있다. 저축 및 투자 형태의 가족타카풀 상품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부수적인 펀드가 요구된다. 계약자 투자계정(PIA: Participant's Investment Account)은 저축과 투자를 위해 각출금이 출연되어 운용되는 계정으로 타카풀운영사에 의해서 투자된다. 이 펀드는 사실상 상호적인 것이 아니며, 가족타카풀 계약으로 참가하는 개인의 배타적인 자산이다. 이 펀드는 정기납 혹은 일시납 계약을 위해 사용되며 상호부조 책임은 PRA과 PIA 모두 매월 혹은 매년 정기납 기준으로 부담된다. 타카풀 보험금부(takaful benefit)는 손실보상 합계에 계약 종료 시점에서 PIA에 축적된 금액과 타카풀 펀드에 있는 잉여금의 비율 몫을 합산한 것이 되며, 해약시에는 보통 PIA의 금액에서 해약 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불되고 만기에는 PIA 금액이 합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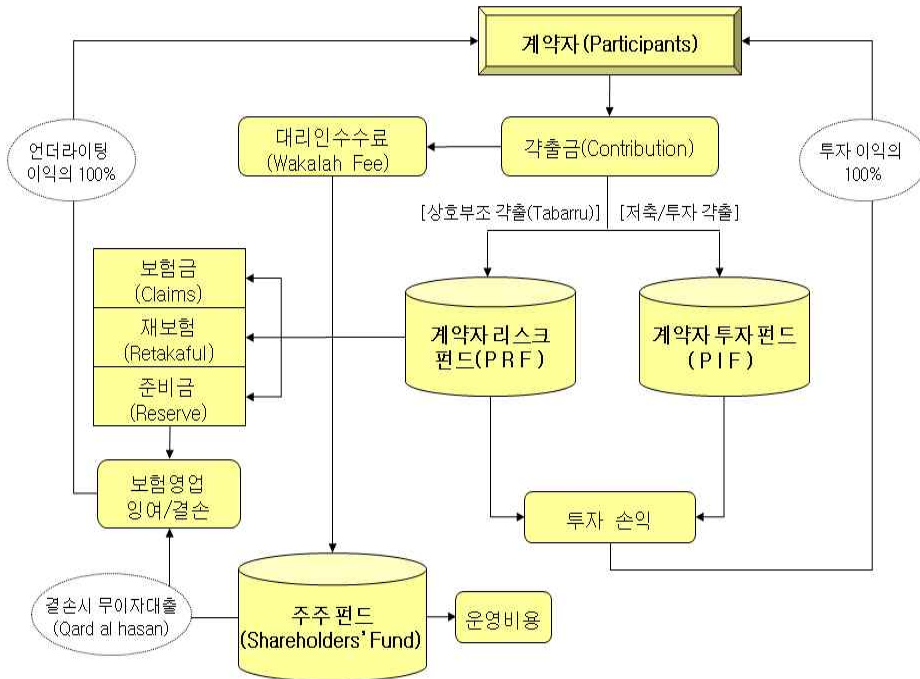
한편, 계약자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금은 보통 그것이 축적되는 PIA를 통해서 계약자들에게 배분되는데, 크기는 타카풀 모델에 의존하며 타카풀운영사에게도 배분된다. 리스크 펀드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운영사의 이슬람율법감독위원회에 의해서 자선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배상금 지급(adverse claims experience)에 대비해 보통 과거 영업이익에서 리스크 펀드로 비상위험준비금(claims contingency reserve)을 설정한다. 계약자들에게 배분된 잉여금은 보통 PRA에 각출한 금액에 비례하며 계약자들은 이를 계약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다.

1) 와칼라 모델

가) 순수 와칼라 모델(Pure Wakalah Model)

순수 와칼라 모델은 타카풀운영사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자를 대표해 펀드를 관리하며, 또한 모든 계약자들에게 공정성, 형평성 및 적정성을 보장한다. 대신에 타카풀운영사는 운영비용을 포함하는 수수료를 미리 계약된 조건에 따라 보통 선불로 받으며, 영업이익이나 투자이익을 배분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카풀운영사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2> 순수 와칼라 모델의 운용구조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순수 와칼라 모델의 운영흐름을 보면, 우선 계약자들로부터 모집한 각출금 (보험료)에서 선불의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를 차감한 순 각출금이 리스크에 대비한 상호부조 각출²¹⁾과 저축·투자를 위한 각출²²⁾로 분할된다. 계약자리스크 펀드(PRF: Participant's Risk Fund)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금, 재보험 및 준비금 조정을 위해 지불되는 상호적 공동자금이며, 타카풀 각출의 다른 부분은 계약자 투자펀드(PIF: Participant's Investment Fund)에 맡겨진다. 계약자 투자펀드와 계약자 리스크펀드의 초과분이 샤리아원칙에 입각한 자산에 투자되며, 발생하는 모든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은 계약자에게 완전히 분배된다. 만약 영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추가자금을 각출하

21) 전통적 보험의 위험보험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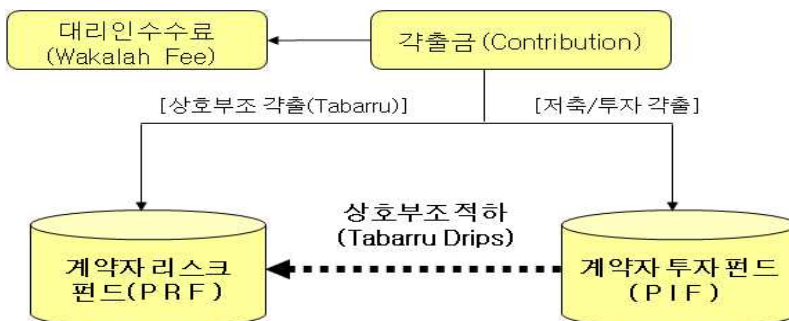
22) 전통적 보험의 저축보험료에 해당한다.

는 것이 아니라 타카풀운영사가 무이자대출(Qard al hasan)로 제공하며,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이자대출의 상환시기와 금액은 불확실하다. 대리인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타카풀 각출금에서 고정된 일정비율로 지불되며 펀드투자를 위한 부가적 수수료가 PIA의 펀드가치 비율로 지불된다. 이러한 수수료는 운영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지만 이익에 대한 배분이 없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없다.

이론상으로 타카풀운영사는 보험리스크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은 계약자들 사이에 독자적으로 발생하므로 리스크부담은 계약자간 연대보증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타카풀 펀드에서 보험영업의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충당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타카풀운영사는 적지 않은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즉, 영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타카풀운영사는 무이자대출로 만회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이슬람 금융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자부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 위험도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

한편, 상호부조 각출은 매월 내지는 매년 적용되기 때문에 정기납부나 일시납부에 대해서는 적하(dripping)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에 따르면, 대리인수수료를 차감한 각출금은 일단 PIF에 예치하고 이는 개별 계약자를 위해 유지 및 관리되며, 조성된 펀드들은 타카풀운영사가 투자한다. 계약자들은 계약 초기에 약정된 상호부조 각출금이 정기적으로 PIF에서 타카풀 계정인 PRA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받는다.

<그림 III-3> 적하(Dripping)의 개념도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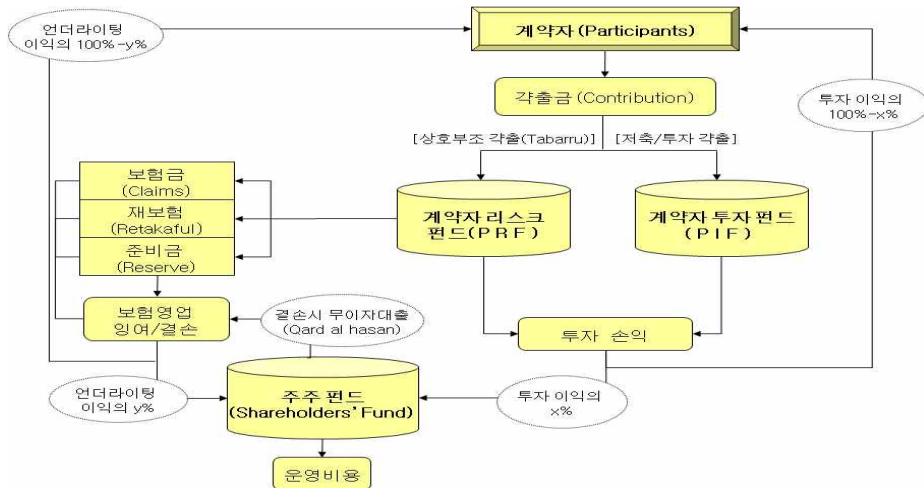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순수 와칼라 모델은 타카풀운영사가 매출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각출금 규모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받고, 타카풀 펀드의 운영을 통해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도 이를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펀드의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대리인수수료를 조정하는 인센티브 보상 와칼라 모델(Wakalah Model with Incentive Compensation)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보험영업 이익이나 투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는 인센티브 보상 모델이 국립샤리아 위원회(National Shariah Council of Malaysia)로부터 인정을 받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와칼라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모든 샤리아 율법학자나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운영사의 경우 보험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해 발생시 계약자와는 달리 이 손해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불평등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계약자들의 각출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영업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샤리아 율법학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 무다라바 모델(Mudharabah Model)

무다라바 모델은 계약자는 자금을 제공하고 타카풀운영사는 전문성과 타카풀 펀드의 관리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모델과 같은 고전적인 이익배분원칙(classic profit sharing principles)에 입각한다. 즉, 출자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을 신탁하는 계약을 맺고, 사업자는 신탁한 자금을 운용하며, 사전에 설정한 기간과 약정조건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신탁계약 모델과 유사하다. 타카풀에서 계약자는 출자자, 타카풀운영사는 사업자로 간주되고,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각출금은 계약자계정에 적립된다. 그리고 재보험료에 해당하는 리타카폴로나 보험금에 해당하는 회사금 혹은 타카풀금은 계약자계정에서 지불되며, 타카풀운영사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른 이익배분 중에서 경비를 지출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계약시 영업 이익과 투자 이익을 운영사와 계약자간에 배분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취급하게 된다. 이러한 무다라바 모

텔은 주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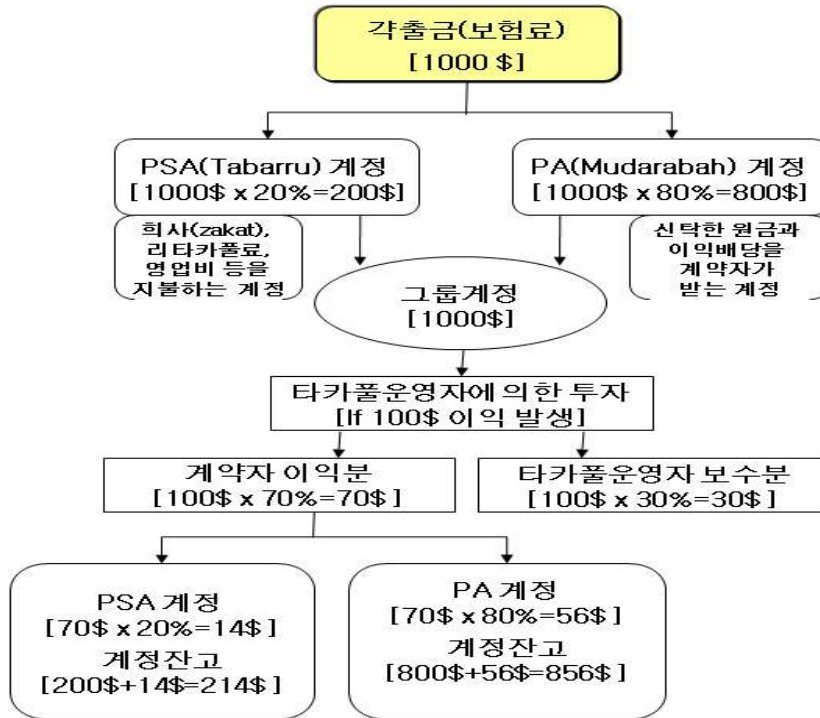
<그림 III-4> 무다라바 모델의 운영구조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말레이시아의 무다라바 모델에서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각출금을 연령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비율로 신탁(Mudharabah)을 위한 계약자계정(PA: Participant Account)과 상호부조를 위한 특별계정(PSA: Participants Special Account)으로 배분한다. PA계정은 신탁계정이므로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적립된 원금과 배당금의 합계를 받을 수 있다. PSA계정은 상호부조를 위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이 계정에서 보험금에 해당하는 타카풀금이나 재보험에 해당하는 리타카풀로 등이 지불된다. 타카풀운영사의 운영비는 PSA계정에서 지불되는 경우와 타카풀운영사의 보수에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 III-5> 말레이시아의 무다라바 모델 운영 예(가족타카풀)



자료 : 福岡藤乃(2008)

예를 들면, 타카풀 가입시 PSA계정의 비율이 20%, 타카풀운영사의 이익배분이 30%로 정해져 있고, 연간 1,000달러를 각출한(보험료로 납입) 경우, 이 1,000달러 중 200달러는 PA계정과 800달러는 PSA계정에 배분된다. 모두 타카풀운영사에 의해 투자·운용되는데, 만약 투자이익이 각출금의 10%인 100달러가 발생하였다면, 타카풀운영사의 이익배분 30%에 해당하는 30달러가 공제되고 나머지 70달러가 계정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 원래 각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샤리아 율법학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업의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서로 돕기 위한 상호계약이 아닌 상업화를 의미하므로 상호부조를 위한 각출이 아니라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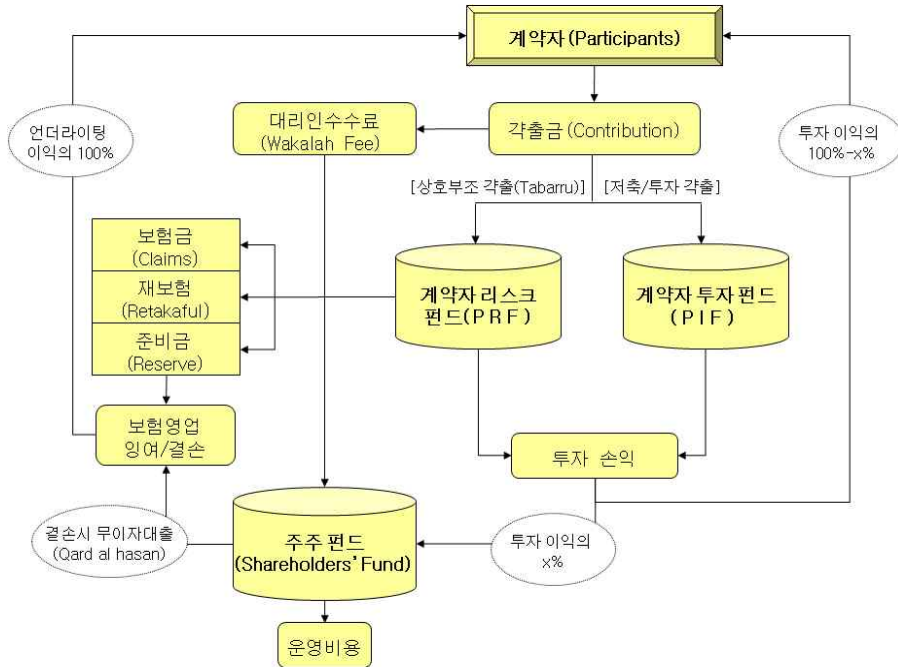
금으로 작용하며, 이는 각출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다라바 모델은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익배분을 투자 부문에만 적용하고 샤리아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투자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다른 형태는 운영비용을 주주펀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되는 타카풀금, 리타카풀 비용 및 준비금 등과 같이 타카풀 펀드인 계약자리스크계정을 통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다라바 모델은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타카풀 펀드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형태와 규모를 계약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Mudharabah-Wakalah Model)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은 타카풀의 기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수료계약의 와칼라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이익배분의 무다라바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혼합모델에서는 영업부분은 수수료계약방식으로, 투자운영에 대해서는 이익배분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타카풀운영사는 와칼라 모델과 같이 계약자의 대리인이 되어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들의 타카풀 각출금에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를 부담시키고, 모든 영업이익은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무다라바 모델에 입각하여 타카풀운영사가 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계약자와 운영사간에 사전 협의된 약정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운영을 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타카풀운영사는 잉여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인센티브 수수료(incentive fee)라는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계약자펀드의 잉여금은 이슬람 율법상 계약자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인센티브 수수료를 취하는 타카풀운영사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림 III-6>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의 운영구조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표 III-2> 혼합모델 운영 수익 구조

타카풀 Pool 외주	이슬람식 계약 (샤리아 계약)	회사 수입
- 행정관리(administration) - 배분(distribution) - 영업(underwriting) - 회계·재무(actuarial & finance)	와칼라 계약	각출금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고정 수수료 또는 일정 고정액(선택)
타카풀 펀드의 투자	옵션 1: 와칼라 계약	운영자금의 일정비율
	옵션 2: 무다라바 계약	투자이익의 약정비율

자료 : 福岡藤乃(2008)

이러한 혼합모델에서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계약이 혼합된 관계로 계약자와 운영사간에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하려하는 소위 체리피킹(cherry-picking)²³⁾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연하면, 보통 투자에 의한 이익이 계약자 소득의 주원천이며 보험영업의 결과는 리타카폴 조정 등을 통해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계약자와 타카폴운영사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영업과 투자활동을 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합모델은 중동의 많은 타카폴운영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폴 상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관리의용이성으로 인해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바레인중앙은행의 경우 바레인 내의 모든 타카폴운영사는 이 혼합모델만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워크프 모델(Waqf Model)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의 워크프 모델은 운영사와 계약자간에 공유하는 이윤은 없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²⁴⁾, 일명 타바루 모델(Tabarru Model)이라고 한다.²⁵⁾ 운영사는 무이자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자는 각출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며, 운영사나 계약자는 잉여금이나 이익을 수령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영리 모델은 사회 및 정부 소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잉여금 펀드만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통적인 상호보험회사와 가장 유사하다.²⁶⁾

23)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란 체리과수원에서 가장 탐스러운 체리 몇 개만을 따게 되면 나무에는 판매가치가 떨어지는 체리들만 남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떤 좋은 대상을 골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래 마케팅에서 고객이 특정 브랜드 혹은 회사의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만을 구입하는 현상을 말하였으나,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경제여건이나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진 재테크 대상(주로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24) Al Sheikhan Takaful Company, Sudan이 대표적인 회사

25) Obaidullah(2005), p.128.

26) 상호보험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잉여금이 생기면 계약자 잉여금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하거나 계약자 배당으로 배분한다.

3) 와칼라-와크프 모델(Wakalah-Waqf Model)

타카풀 운영상 계약자와 타카풀운영사간의 관계는 전통적 보험보다 친밀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미해결된 대출을 상환하거나 손실이 해결될 때까지 타카풀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할 의무를 지닌 계약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카풀 고유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파키스탄 학자들은 와칼라-와크프혼합모델(hybrid wakalah-Waqf concept)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타카풀은 샤리아와 관련된 법률적 측면에서 의무적인 각출이 아니라 '우연히 행하는 선물의 의미'인 각출이라는 형태로, 타카풀 펀드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법률적 실체가 아닌 계약자에 의해 소유된다는 사실 하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샤리아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회복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운영사 펀드에 의해 제공되는 무이자대출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타카풀 펀드에 있어서 비상준비금(contingency reserves)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와크프는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일종의 종교적 각출이며, 신탁자에 의해서 정의된 수익자 그룹을 위해 무기한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와크프가 자손들을 수익자로 설정하여 영농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는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모델은 앞서 언급한 와칼라-무다라바 모델과 같이 계약자 펀드를 설정하는데 차이점은 운영사들이 와크프 펀드에 초기자본을 투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언급된 샤리아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모두를 해결한다. 샤리아의 원칙으로 볼 때 와크프 펀드는 소유권을 갖는 독립된 법적 샤리아의 실체이므로 표면적인 어려움은 해결된다. 따라서 운영사에 의해서 양도된 펀드와 계약자에 의해서 지불된 각출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펀드 자체는 비상준비금(투입된 자본)을 포함하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무이자대출의 필요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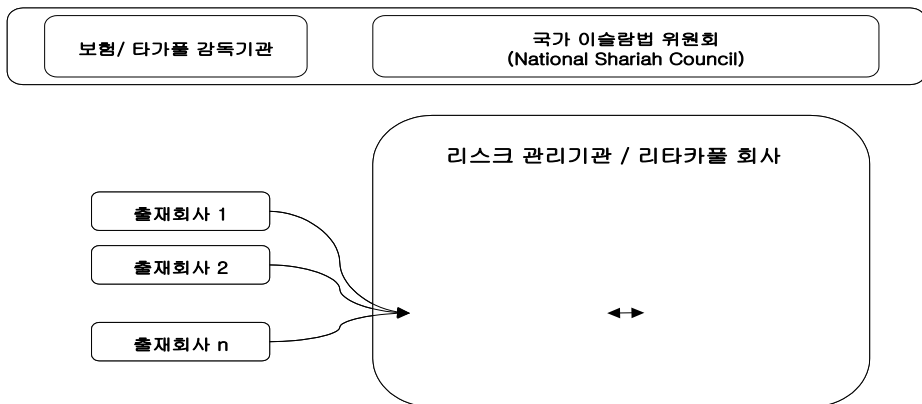
샤리아 원칙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와크프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향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파키스탄의 규제 초안에는 워크프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명백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4) 리타카풀 모델(Retakaful Model)

타카풀의 재보험인 리타카풀은 대체로 앞서 설명한 타카풀 모델에 의해 운영된다. 리타카풀 운영은 타카풀 모델의 기본 요소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타카풀에 직접 참여하는 계약자 그룹 대신에 회사 그룹이 상호보호의 개념에 동의하여 연대 보증하는 것이 리타카풀이다. 리타카풀에 참여하는 타카풀운영사들은 그들의 기본 리스크를 리타카풀 풀(pool)로 이전하고, 타카풀 펀드에서 리타카풀 각출금을 지불한다. 리타카풀 각출금은 운영사의 타카풀 펀드에서 지불되고, 리타카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타카풀 펀드로 분배된다. 리타카풀운영사는 샤리아 원칙에 입각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한다. 또한 리타카풀 풀 안에 있는 모든 출재회사(cedant)들이 인수 계약에 의해 표준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것을 보증한다. 리타카풀은 리타카풀 펀드가 결손이 생길 경우 무이자대출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 타카풀 펀드들 중 하나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림 III-7> 리타카풀의 기본적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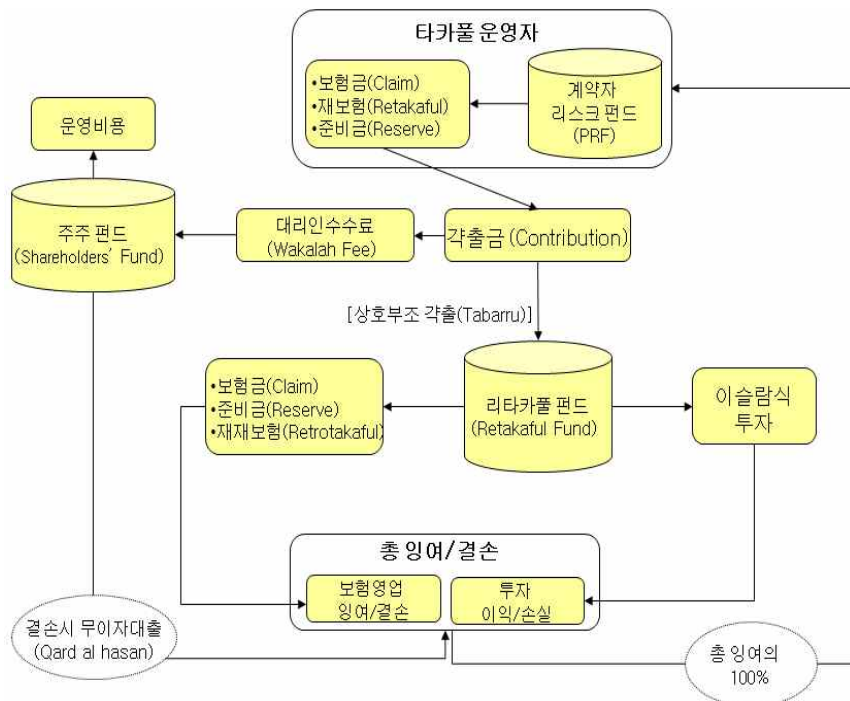


자료 : Zainal Kassim, Richard Letarte and Marie-Luc Rober(2008)

리타카풀 모델의 선택은 국제적 보험 물건을 인수하려고 하는 리타카풀운 영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사용 중인 와 칼라 모델이 리타카풀 모델로 선호되고 있다.

한편, 리트로타카풀(Retrotakaful)은 리타카풀사업을 다른 리타카풀회사에게 재보험하는 이슬람 재재보험(再再保檢)을 말한다. 리트로타카풀의 사업 목적 은 리타카풀의 담보능력을 증대시키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인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재보험과 달리 참여 회사수와 담보능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림 III-8> 리타카풀모델의 운용구조(순수 와칼라모델)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5) 타카풀 모델의 특징

전통적 보험과 비교할 때 타카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으로 먼저 보험요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된다는 점이다. 통상 보험회사는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보험요율서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 보험요율서를 아랍어로는 '타리프(Tariff)'라고 하는데, 타카풀의 경우는 이 타리프를 준수할 필요없이 저렴한 보험요율을 제시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향이 있다. 타카풀의 경우 보험요율, 즉 타리프의 요율수준은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고, 파산 리스크를 회피하며, 원활한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 펀드로부터 보험료에 해당하는 각출금으로 조달하지 못할 지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불불능의 상황에 처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론적으로는 계약자로부터 추징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주펀드로부터 무이자대출이 제공된다.

타카풀의 계약 단위는 보통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렴한 요율의 개인 물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타카풀도 보험의 메카니즘인 '대수의 법칙' 즉, 소규모의 작은 계약도 많이 모이면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보인다는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보험의 비용도 소규모 계약의 경우는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경우 오일 머니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건으로 거액 물건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계약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높아져서 요율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타카풀에서도 이슬람 재보험인 리타카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칙상 리타카풀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중동 지역에서도 비교적 석유 관련 대형 물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재보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리타카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타카풀 전업회사는 일반 재보험 회사에 비해 규모도 작고 등급 설정도 취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발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타카풀의 장점은 이슬람의 교리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다. 아랍어로 자카(zakā)²⁷⁾ 즉, 회사(喜捨)는 이슬람권에서 추천되는 행위이며, 타카풀의 각

출은 확실히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타카풀의 메커니즘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는데, 계약자 펀드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원금을 초월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호보험회사와 같은 개념이 있지만 일반의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저축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카풀은 비이슬람권에서도 점차 환영받고 있다.

이외에도 운영비를 조달하는 주주펀드와 계약자의 묶인 계약자펀드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출자한 돈의 흐름이 투명하다는 점도 타카풀의 장점으로 꼽힌다.

3. 타카풀의 역사와 발전 전망

가. 타카풀의 역사

타카풀의 역사는 14세기 전 이슬람 관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 의미의 타카풀은 1977년 파타(Fata: 이슬람의 율법적 결정)가 이슬람세계연맹의 율법위원회(Fiqh Council of Muslim World League)에 의해 이슬람화되면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카풀의 실질적인 운영은 수단의 파이살이슬람은행(Faisal Islamic Bank)이 수단이슬람보험회사(Islamic Insurance Company of Sudan)라는 이름의 타카풀 전문회사를 설립한 197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같은 해 아랍이슬람보험회사(Arab Islamic Insurance Company)가 두바이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영보험공제(NCCI: National Company for Co-operative Insurance)가 100% 정부출자로 세워졌다.

한편, 198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카풀법(Takaful Act)이 발효되어 말레이시아 최초의 타카풀회사인 타카풀말레이시아(Takaful Malaysia)가 설립되었고, 이후 리타카풀 전문 보험회사도 생겨났다. 1985년에는 이슬람제국회의기구

27) 마호메트의 메카시대에는 희사(喜捨)·자선(慈善)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메디나 시대로 들어서자 자발적 회사로는 사다카(sadaqa)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고, 자카는 구빈세(救貧稅)로 뜻이 변화되었다.

(OIC)의 율법위원회에서 샤리아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전통적인 보험의 대안으로 타카풀 시스템을 인정함으로써 이슬람 교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었다. 즉, “전통적 상업보험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불확실성, 도박, 이자와 같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지만, 상부상조의 원칙과 이슬람 율법에의 순종 그리고 각출에 입각한 이슬람 보험은 허용한다”는 1985년 피크아카데미(Fiqh Academy)의 판결은 이슬람 보험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태동기에 불과한 타카풀은 특히 윤리적인 투자나 계약의 완전한 투명성 등이 강조됨으로써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슬람 금융이 급성장하면서 타카풀시장도 동시에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고려할 만큼 부유한 이슬람교도 수가 증가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투자에 대한 제약을 받아오던 이슬람인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선회하면서 시장 확대와 함께 새로운 타카풀회사의 설립도 잇따르고 있다. 1997년에는 최초의 이슬람 리타카풀회사인 아세안리타카풀국제회사(Asean ReTakaful International limited)가 설립되고, 전통적인 이슬람국가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영국, 중국,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비이슬람국가에서도 타카풀회사의 설립이나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확대되는 리타카풀시장에 주목한 하노버 리타카풀, 바레인, 문니치리 글로벌 재보험회사들이 리타카풀시장에 차례로 진입했다.

<표 III-3> 타카풀의 발전 역사

년 도	주 요 내 용
1977	- 이슬람 보험을 위한 Fata(이슬람의 율법적 결정)가 이슬람세계연맹의 율법 위원회(Fiqh Council of Muslim World League)에 의해 이슈화
1979	- 수단이슬람보험회사가 파이살이슬람은행(Faisal Islamic Bank)에 의해 최초 타카풀회사로 설립 - 아랍이슬람보험회사(Arab Islamic Insurance Company)가 두바이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에 의해 두바이에 설립
1984	- 말레이시아에서 타카풀법(Takaful Act)이 발효되고, 타카풀말레이시아(Takaful Malaysia)라는 세계 두 번째, 말레이시아 최초 타카풀사가 설립
1985	- 이슬람제국회의기구(OIC)의 율법위원회에서 샤리아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전통적인 보험의 선택대안으로 타카풀 시스템을 인정
1997	- 최초의 타카풀사인 아세안리타카풀국제회사(Asean ReTakaful International limited)가 설립
2006	- 하노버 리타카풀, 바레인, 문니치리 등의 재보험 회사들이 리타카풀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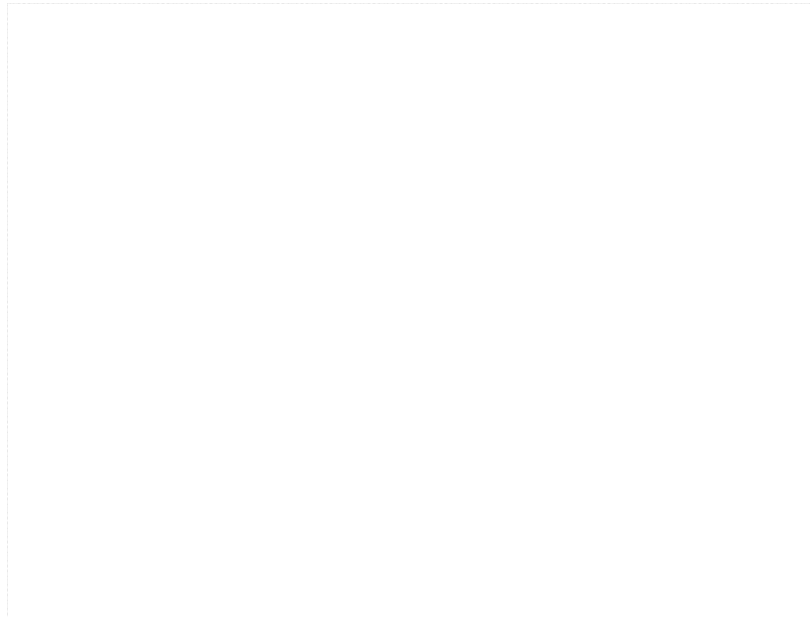
자료 : 福岡藤乃(2008)

나. 타카풀시장의 현황 및 전망

최근 세계적인 타카풀회사인 타카풀 리(Takaful R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카풀시장은 총수입보험료²⁸⁾ 기준으로 2006년에 약 57억 달러 규모로, 2003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 꾸준히 확대되며 연평균 2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전통적 보험과 비교하기 위해 타카풀의 각출금(cotribution)을 수입보험료로 통칭한다.

<그림 III-9> 세계 타카풀시장 규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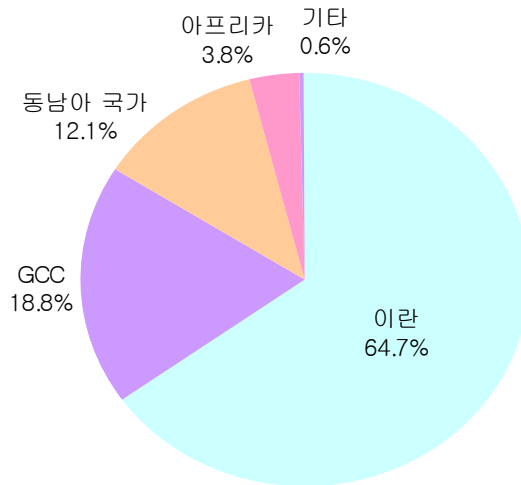


주 : 총수입보험료 기준임.

자료 : Takaful Re(2008)

한편, 국가별 타카풀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이란이 36억 8,500만 달러로 전체 64.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타카풀 외에 전통적 보험업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을 만큼 이슬람 국가들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는 한편, 외국 금융기업 진입에 소극적인 이란이라는 국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 다음으로 GCC 국가들이 10억 700만 달러로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6억 8,800만 달러로 12.1%, 이슬람 대국 수단이 속해있는 아프리카가 2억 1,450만 달러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10> 세계 타카풀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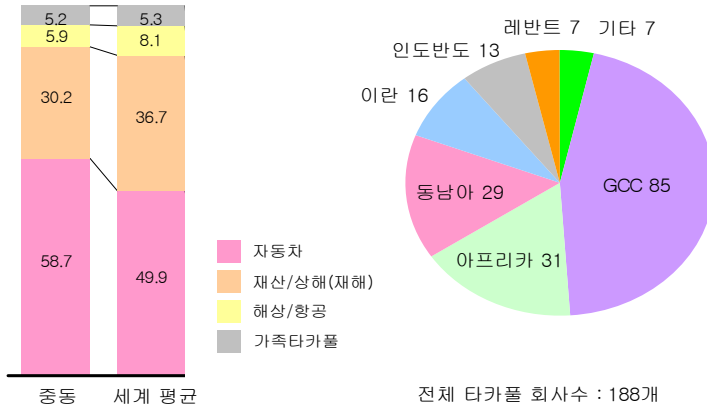
자료 : Takaful Re(2008)

세계 타카풀시장에서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일반타카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로 생명보험인 가족타카풀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는 저축적 성향이 강한 가족타카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경제 개발에 따른 일반타카풀의 수요 증대 효과로 일반타카풀 선호 현상이 매우 강하다. 또한 일반타카풀에서 자동차타카풀과 재산 및 상해(재해)타카풀의 비중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전세계 타카풀회사²⁹⁾ 수는 2008년 말 현재 약 188개로 집계되고 있다. 타카풀 전문회사와 리타카풀사는 각각 170개, 18개로, 이 중 중동국가(GCC, 레반트,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108개를 점유하고 있어 중동지역이 타카풀의 주요 시장임을 입증하고 있다.

29) ICMIF에 등록된 전세계 타카풀 전문회사와 리타카풀회사를 집계했으며, 회사명 및 해당 국가 목록은 본 보고서 뒷편의 부록을 참조

<그림 III-11> 타카풀 종목별 비중 및 회사 수



자료 : Takaful Re(2008), ICMIF(2009).

타카풀 역사가 아직 30여 년에 지나지 않고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도 불과 몇 년 사이임을 감안한다면 타카풀의 잠재력을 논할 때 다양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타카풀 보험협회장인 Md Azmi Abu Bakar Md Azmi Abu Bakar는 2015년에 전 세계 타카풀시장의 규모가 109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중동이 38%, 아시아가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가족타카풀은 매년 20%, 일반타카풀은 8%씩 성장해 2015년 가족타카풀 규모는 총타카풀 보험료의 약 65%에 해당하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약 15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이슬람교도 수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 상황 및 비이슬람권에 비해 매우 낮은 GDP의 1% 내외의 보험침투도를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들어 윤리적이고 투명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닌 타카풀에 비이슬람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그 앞으로 타카풀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³⁰⁾은 이슬람 보험산업이 2015년에는 이슬람교도

30)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0 Oct 2006, "Premiums soar for Islam-based insurance")

들의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에 힘입어 2006년의 4배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디스 역시 2015년까지 이슬람 보험회사는 250개로 증가하고 수입보험료 규모도 2005년에 20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의 주요 보험컨설팅사 중 하나인 AXCO는 2006년 기준으로 타카풀시장은 약 30억 달러 규모로 그 중 동남아시아가 56%, 중동이 3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가장 주요한 타카풀시장으로 동남아시아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전세계 타카풀시장 역시 향후 10년간은 1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아울러 걸프지역 타카풀시장도 연간 15~20%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타카풀시장에 대한 전망은 기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도약 단계에 있는 전세계 타카풀시장이 2015년까지 적어도 약 77억 달러까지는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고려할 때 걸프지역 타카풀 시장도 약 20억 달러 규모까지는 무난한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의 성장속도, 즉 전체보험 시장 성장률은 4%, 타카풀시장 성장률은 각각 15%와 20%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이 되면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약 5조 3천억 달러, 타카풀시장은 각각 전체 보험시장의 1.7%에 해당하는 91억 달러(15% 증가율 가정시)와 2.5%에 해당하는 134억 달러(20% 증가율 가정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4> 타카풀시장 전망치

(단위 : 십억 달러, %)

년도	전체보험	타카풀시장			
	4%성장시	15%성장시	시장비중	20%성장시	시장비중
2006	3,723	2.6	0.7	2.6	0.7
2007	3,872	3.0	0.8	3.1	0.8
2008	4,027	3.4	0.9	3.7	0.9
2009	4,188	4.0	0.9	4.5	1.1
2010	4,355	4.5	1.0	5.4	1.2
2015	5,299	9.1	1.7	13.4	2.5

자료 : Tobias Frenz, Madhusudhanan Sridharan and Krishna S Iyer(2008).

IV. 이슬람 주요국 경제·금융 및 타카폴시장 현황³¹⁾

1. 아랍에미레이트(UAE)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UAE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건설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석유산업의 빠른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연평균 7%가 넘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부 은행의 금융 손실, 증시폭락 및 국제유가 하락세에 시달려 왔으나, 수출 호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조치 등으로 인해 2008년 경제성장도 예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는 2005년 흑자 전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정부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GDP 대비 15.2%의 흑자 전망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디르함(Dirham)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민간부문의 임금 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2005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은 2008년에도 지속되어 1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1) 이슬람 주요국들의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수출보험공사에서 발간된 경제/금융 관련 보고서들의 내용을 인용·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IV-1> UAE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9.7	8.2	9.4	7.6	7.9
GDP(억달러)	1,052	1,322	1,631	1,841	2,296
1인당 GDP(달러)	24,474	28,736	33,295	35,406	41,753
재정수지/GDP	-0.4	8.1	11.6	14.2	15.2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2.5	13.5	13.3	14.4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UAE의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 수출 증가와 중동 및 여타지역으로의 재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4년 275억 달러에서 2007년 64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경상수지도 2006년까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07년에는 세계 경기둔화로 인해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둔화 현상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은 오일머니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총외채규모는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GDP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GDP 대비 외채비중은 평균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석유자원 부재로 해외차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외채비중이 GDP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UAE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¹⁾
환율(Dh)	3.67	3.67	3.67	3.67	3.67
경상수지	12,262	27,684	36,468	36,380	36,410
상품수지	27,539	42,762	57,500	64,255	66,514
수출	90,997	117,287	145,586	180,897	207,651
수입	63,458	74,525	88,086	116,642	141,137
서비스수지	-12,074	-14,573	-17,800	-20,828	-25,672
외환보유액	18,530	21,010	27,617	77,239	67,239
총외채잔액	32,755	41,760	53,189	66,497	73,708
총외채잔액/GDP	31.1	31.6	31.3	33.5	32.1
D.S.R. ²⁾	1.4	1.7	2.1	2.6	1.8

주 : 1) 2008년은 추정치임.

2) D.S.R.(Debt Service Ratio, 외채상환비율)은 재화 및 용역의 수출로 인한 경상수지에 대한 외채 원리금상환액(보통 1년 이상의 중장기차입금)의 비율을 말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UAE 정부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공격적인 투자 유인책을 전개하고 있다.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투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 통제, 국내 판매 의무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 아부다비, 샤자 등에 개설된 약 30여 개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무제한 보장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43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33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표 IV-3> UAE 외국인 투자 및 자유무역지대 주요 인센티브 정책

구 분	인센티브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공장부지, 전력, 산업용수 등 사업비용 저렴 - 외환통제 전무 - 투자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반가공품, 기계류 및 장비 수입시 관세 면세 - 마약, 주류, 무기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 규제 전무 - 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공식적인 세금부과 전무
자유무역지대 (Free Zone) 인센티브*	- 100% 외국인 투자허용 - 외국인로자 자유 채용 - 과실송금에 대한 규제 및 외환통제 전무 - 법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5년간 면세(추가 15년간 면세 가능) -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고용인력에 대한 면세 - 수입·수출세 전무

주 : * UAE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인 두바이의 Jebel Ali Free Zone의 인센티브임.

자료 : UAE 두바이 홈페이지(www.dubaicity.com/business/free-zone)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UAE는 석유 및 가스부문이 GDP의 35%, 총수출의 46%, 재정수입의 74%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UAE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조업, 금융, 서비스, 관광 등 비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서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및 관광 산업육성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UAE 정부의 산업 다각화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석유산업이 UAE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표 IV-4> UAE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 업 명	구 성 비 율
석유 및 가스	35.0
제조업	13.0
서비스업	11.0
건설업	8.0
부동산	8.0
농업	1.8
기타	23.2
계	100.0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UAE는 적은 인구수로 인해 취업인구의 약 90%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란 등의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³²⁾

UAE는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낮은 세금,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물류거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석유관련 산업, 은행업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등 세 가지 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도 GCC의 공통관세인 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써 발전해 나가고 있다.

32) UAE의 실업률은 1%대로 매우 낮은 편이나, 높은 외국인 인력 의존도로 인하여 자국민의 실업률은 6%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금융시장 현황

UAE는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금융시장 특성을 활용하여 이슬람 금융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근 아부다비, 두바이 등에서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을 신설하고 있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원유자원은 부족한 편이지만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개발 투자, 자유경제 지역 및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개방, 자유경제정책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IV-5> GCC 국가 개발 프로젝트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 명	금 액
UAE	717,223
사우디아라비아	400,882
쿠웨이트	274,597
카타르	156,192
바레인	51,023
오만	2,781
걸프만 국가 합계	1,627,738
이란	151,685
이라크	33,465
총 계	1,812,888

주 : 2008년 1월 기준임.
 자료 : 糠谷英輝(2008)

UAE는 이슬람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으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anl Financial Center)를 2004년 9월에

출범시켰다. 두바이를 중동지역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생긴 중동·아프리카 지역중심의 국제금융센터로서 UAE 중앙은행과는 별도인 독립기관이다. 그리고 내부에 두바이금융감독청(DFS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 UAE 금융업 전반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5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을 자국 내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UAE가 인근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중동지역의 금융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 은행산업

2006년 현재 UAE에는 국내 상업은행³³⁾ 21개, 외국은행지점 26개 및 48개 외국은행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UAE 중앙은행은 협소한 UAE의 국내 시장에 비해 국내은행 수가 많다고 판단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외국은행에 대한 신규 영업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³⁴⁾

UAE의 경우 일반기업은 법인세 납부 등의 부담이 없으나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20%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8개 이상의 지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등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지법인 은행개설을 위해서는 불입자본금 최소 4천만 디르함 이상 및 UAE 내국인 지분 51% 이상 등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최근 UAE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거두면서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신규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나, UAE 중앙은행은 금융부문에 대한 대외 시장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⁵⁾ 다만, UAE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금융수요의 증가에

33) The National Bank of Abu Dhabi, the National Bank of Dubai, Abu Dhabi Commercial Bank, Emirates Bank International, the Mashreq Bank를 UAE 5대 주요 국내 상업은행이라고 일컫는다.

34) 단, GCC 정상회담에서 GCC 회원국의 국영은행에 한하여 GCC 역내에서는 제한없이 지점망 개설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Saudi American Bank 및 Doha Bank of Qatar에 대하여 UAE 중앙은행은 신규营业을 허가한 바 있다.

35) UAE는 1996년 WTO에 가입하여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금융부문에 대한 대외시장 개방여부는 UAE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비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신규 인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UAE의 은행들은 최근 공격적으로 지점망을 확장하고 있는데, 에미레이트 은행(Emirates Bank)은 2006년 12개에서 올해 20개까지 지점 수를 확충했으며, 두바이국영은행(National Bank of Dubai) 역시 약 40개 이상의 지점망을 확충하는 등 외국은행 진출에 따른 경쟁격화에 대비하여 영업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두바이이슬람은행(DIB)은 소매금융 확대 추세에 따라 과거 2년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2) 자본시장

UAE의 수쿠크 시장은 2008년 현재 발행규모가 약 53억 달러로 세계 전체 수쿠크 시장의 36%를 차지하며³⁶⁾, 이는 세계 전체의 38%를 점하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로 100만~1,000만 달러의 중소규모 기업 위주의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 내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발행이 많은 편이다. 이는 오일머니가 급속하게 유입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조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수쿠크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36) ‘<그림 II-11> 세계 수쿠크 발행 국가별 비중 변화’ 참조

<표 IV-6> 수쿠크 발행 규모별 10대 종목

(단위 : 백만 달러)

발행국	발행주체	발행년도	발행액	종류
UAE	Nakheel Sukuk	2006	3,520	이자라
UAE	PCFC Sukuk	2006	3,500	무샤라카
UAE	Aldar Properties Sukuk	2007	2,530	무다라바
사우디아라비아	Sabir Second Sukuk	2007	2,133	이자라
UAE	JAFZ Sukuk	2007	2,042	무샤라카
말레이시아	Nucleus Avenue Bhd MIN Senior Sukuk	2007	1,647	무샤라카
UAE	DP World Second Sukuk	2007	1,500	무샤라카
사우디아라비아	Saudi Electricity Company Sukuk	2007	1,333	이자라
UAE	DIFC Sukuk	2007	1,250	무다라바
말레이시아	PLUS Sukuk Series3	2006	1,200	무샤라카

주 : 2006~2007년에 발행된 수쿠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糠谷英輝, “世界に広がるイスラム金融と中東マネー,” 2008.

한편,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GCC지역의 금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UAE의 주식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식 시장 개방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표 IV-7> 중동 주요국 주식 시장 개방 현황

국가명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외국인 지분 한도	증시 개방 현황 및 주요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능	0	-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증시를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 증가
쿠웨이트	가능	49%	- 55%의 자본이득세 폐지
카타르	가능	25%	- 외국인 투자한도 점진적 확대 계획
UAE	가능	49%	- GCC국가 투자자들에게 완전개방 - 외국인의 주식보유 상한선 49%에서 75%로 확대 검토
오만	가능	49~70%	- 외국인 투자한도가 70%로 GCC 국가 중 가장 빠른 증시개방 속도

자료 : NBAD, 삼성증권 리포트(2008)

UAE의 주식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 두 개의 주식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특히, 두바이거래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다울(Tadawul),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증권거래소(Kuwait Stock Exchange)에 이어 GCC 국가 증권거래소들 중 시가총액 3위 규모이다. UAE 주식시장은 현재 시가총액 가중평균형 주가 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일을 1,000으로 지수화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목록에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것도 UAE 주식시장의 중요 특징이라고 할 만 하다.

<표 IV-8> UAE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백만 달러)	PER	PBR
Emaar Properties	부동산	19,087	10.65	1.92
Emirates National Bank	은행	16,658	16.18	2.43
Dubai Financial market	금융	12,665	32.06	4.81
Dubai Islamic Bank	은행	8,449	11.78	2.98
Dubai investment	금융	3,368	7.52	2.25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다.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현황³⁷⁾

1) 보험시장

UAE의 보험시장은 2007년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35억 5,500만 달러로 세계 46위에 해당하며, 중동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006년부터 2년 연속 25%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하고 있는 UAE의 보험시장은 건설투자 붐이 일면서 기술보험 및 재물보험과 같은 손해보험 부문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6년 아부다비법(Abu Dhabi Law)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37) 보험/타카풀 관련 수치와 순위는 Swiss Re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세계보험시장(World insurance) 보고서를 주로 인용하였다.

의 고용인 건강보험 보장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성장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이 35%, 재물보험이 17%, 해상 및 운송보험이 16%, 건강보험이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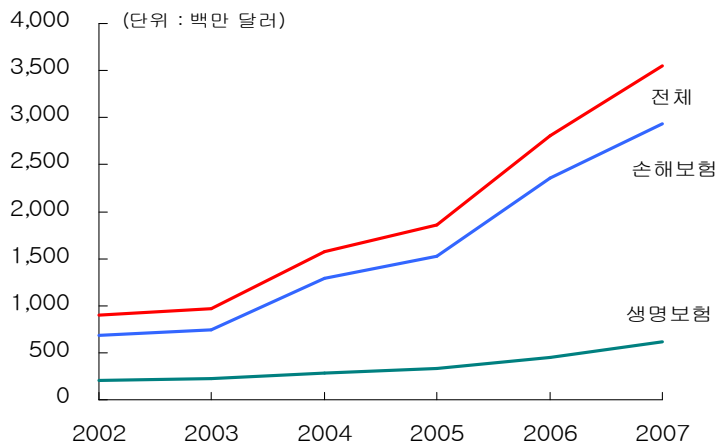
<표 IV-9> UAE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209	226	284	336	450	617
손해보험	686	744	1,291	1,526	2,358	2,938
전체	895	971	1,575	1,862	2,808	3,555

자료 : Swiss Re

<그림 IV-1> UAE 보험시장 규모 추이



자료 : Swiss Re

1인당 보험료 규모를 나타내는 보험밀도와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을 나타내는 보험침투율은 2007년 기준으로 각각 811.6달러(세계 34위)와 1.9%(세계 64위)로 GCC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

준이다. 그러나 향후 UAE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율은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새로운 법규와 친화적인 고객 트렌드에 따라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0> UAE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단위 : 달러, %)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생명보험	140.9	0.3
손해보험	670.7	1.5
전체	811.6(세계 34위)	1.9(세계 64위)
아시아 평균	210.7	6.2
세계 평균	607.7	7.5

주 : 2007년 말 기준임.
자료 : Swiss Re(2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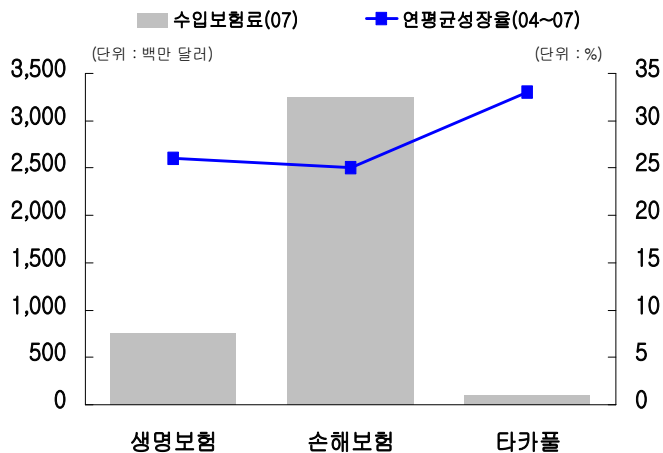
보험시장 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한때 120개 보험회사가 난립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5개 외국계 보험회사를 포함해 총 48개로 감소하였다. 특히, 상위 10개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UAE 보험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대형 보험회사 중 일부는 국영 보험회사이고 나머지 국내 보험회사는 민간 소유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분야의 75%를 점유하고 있지만 외국 보험회사들은 단체보험 중심의 생명보험 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손해보험 분야로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한편, 전체 보험회사 인력의 15%를 현지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 보유자의 부족으로 실제로 현지인 채용은 6.2%에 불과하다.

판매채널은 UAE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와 주주(또는 후원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보험회사 직판채널이 활성화 되어있는 반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는 주로 브로커에 의한 판매가 주류를 이룬다. 방카슈랑스는 개인 보험영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 타카풀시장

UAE의 타카풀시장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약 83억 달러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2% 비중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다른 보험시장 보다 가파른 성장을 시험하고 있다.

<그림 IV-2> UAE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규모 비교



자료 : Swiss Re, "Insurance in the emerging markets: overview and prospects for Islamic insurance", No. 5/2008.

UAE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타카풀회사로는 살라마(SALAMA), 아부다비국립타카풀앤아만(Abu Dhabi National Takaful and Aman)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 및 가족타카풀과 같은 개인용 보험시장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반 보험회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상업용 보험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타카풀회사들은 단체보험 판매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주택 재물보험과 주택담보대출을 패키지화한 상품이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UAE에서 활동하는 타카풀회사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보험회사들의 타카풀 사업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15년에는 타카풀 수입보험료가 6억 1,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21%에 해당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타카풀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137억 달러로 예상되는 전체 보험시장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UAE의 적은 인구수도 향후 타카풀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UAE의 보험시장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제정한 보험회사 및 대리점에 대한 감독법(Federal Law on Insurance Companies and Agents and Executive Regulation, 1984)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 기준과 최저자본금 확보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UAE는 보험 관련 법률체계가 아직 부족하고 전담기구 역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UAE 보험위원회(UAE Insurance Committee)를 설립하였으며, 보험회사 감독권한을 경제상무부산하보험최고기구(The Ministry of Economy & Commerce Insurance Supreme Authority)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신설될 보험 관련법에서는 일반 보험회사와 타카풀 사업체의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타카풀 사업체 신설에 대한 요구조건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타카풀 사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별개의 감시·감독 체제를 갖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의 보험감독은 선진화된 감독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RBC와 지급준비율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서 타카풀 사업을 하려면 일반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보험감독체제(Prudential Insurance Rulebook)를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러 이슬람금융서비스감독체제(Islam Financial Service Rulebook)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서비스 감독규정에서는 타카풀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규정화하고 있는 반면, 샤리아 준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명시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UAE 정부는 타카풀회사들에게 타카풀 상품 및 계약의 설명서 구비, 샤리아원칙준수위원회 선정, 샤리아 원칙 이행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는 리스크 관리 관행 구축,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에 의해 설정된 회계 및 감사 채택 등 타카풀 사업전개를 위한 5가지 기본 전제조건의 충족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2005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 내수 증대 및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매년 4% 이상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2007년에는 유가 조정을 위한 자발적 석유감산 등의 악재로 3.5%의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8년에는 석유증산 및 비석유산업의 호황, 정부의 해외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다시 7.2%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는 2003년 96억 달러의 흑자전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2006년에는 GDP 대비 21.2%까지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도 하락하였으나, 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조정,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에 따른 임금 인하 영향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의 고

성장 속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 달러 페그제로 인한 리알화 저평가와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임대료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V-11>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5.3	6.1	4.3	3.5	7.2
GDP(십억달러)	250.3	315.6	352.6	369.5	509.2
1인당 GDP(달러)	11,124	13,662	14,878	15,206	20,450
재정수지/GDP	11.4	18.4	21.2	12.1	21.0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6	2.3	4.1	11.7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품수지는 고유가에 기인한 석유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4년 849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439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 경상수지도 2003~2006년 연평균 52.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정부의 자체 석유 감산 정책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대비 다소 축소되었으나, 2008년에는 석유 증산에 따른 수출 확대,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는 1,779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보유액은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약 3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채규모는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대외자산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상환불능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D.S.R.도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12>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SAR)	3.75	3.745	3.745	3.745	3.745
경상수지	51,927	90,060	99,067	86,308	177,893
상품수지	84,948	126,117	147,391	143,880	259,995
수출	125,998	180,712	211,305	226,521	368,254
수입	41,050	54,595	63,914	82,641	108,259
외환보유액	27,541	26,760	27,765	34,014	60,150
총외채잔액	34,902	43,341	46,464	52,811	62,247
총외채잔액/GDP	13.9	13.7	13.2	14.3	12.2
D.S.R.	2.0	1.9	2.0	2.0	1.3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통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석유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을 경제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 King Abdullah Economic City, 총 270억 달러 규모) 개발 프로젝트, 중북부 지방 물류 중심 경제도시(PABMEC: Prince Abdul Aziz Ibn Musaед Economic City, 총 80억 달러 규모)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중심의 지산경제도시(JEC: Jizan Economic City, 총 300억 달러 규모) 개발 프로젝트, IT·지식기반 메디나 경제도시(MKEC: 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총 70억 달러 규모) 건설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7억 8천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83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기준으로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22%에 달하는 2,643억 배럴의 석유(세계 1위)와 3.9%에 달하는 7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

계 4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국토와 2,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 국가이다. 에너지 산업에 경제 동력이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보유 자원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다.

<표 IV-13>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업명	구성 비율
석유 및 가스	47.8
서비스업	33.7
제조업	9.5
건설업	4.7
농림수산업	3.3
계	100.0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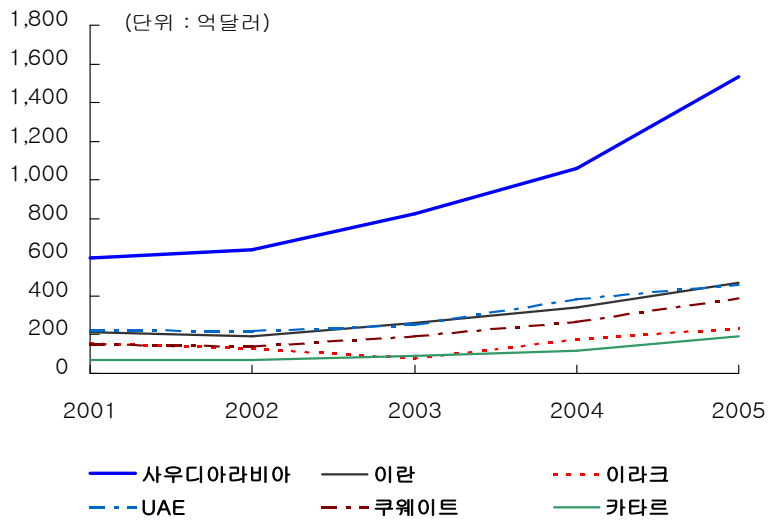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유입된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강력한 경제구조의 다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5대 경제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산업 등 민간부분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금융시장 현황

중동 GCC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보유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산유국이다. 따라서 대량의 오일머니와 최근까지 고유가에 따른 경제성장 및 정부지출 증대로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고 국내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금융부문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건설경기가 진작되면서 금융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IV-3> 주요 중동 산유국 오일머니 유입 추이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6)

<표 IV-14> 주요 이슬람 국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프로젝트명	연 도	국 명	금액(백만 달러)
Equate	2001	쿠웨이트	200
Alba	2003	바레인	250
Qatargas	2004	카타르	530
Taweelah A2	2004	UAE	150
Bapco	2005	바레인	330
Saudia	2005	사우디아라비아	480
Dolphin	2005	UAE	1,000
Sohar Aluminium	2005	오만	260
Shuaibah IWPP	2005	사우디아라비아	268
Petro-Rabigh	2006	사우디아라비아	600
Yansab	2006	사우디아라비아	847
Al-Waha	2006	사우디아라비아	526
KPPC	2007	쿠웨이트	347
Maaden / Sabic	2007	사우디아라비아	2,000

자료 : 榎谷英輝(2008)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제도는 1996년에 공포된 은행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인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상업은행, 이슬람 은행, 기타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은행 산업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07년 말 현재 총 10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이 중 9개 은행은 외국과 합작한 형태로 내국인 지분은 약 60% 정도이다.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이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 금융 정책을 조정하며 시중은행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은행들과 기금운영기관들이 존재하여 오일머니로 벌어들이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IV-15>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특수은행 및 기금운영기관

은행 및 기관명	지원분야
Saudi Arabian Agricultural Banks	농업분야
Public Investment Fund	공공산업 및 상업
Real Estate Development Fund	민간 주택개발지원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Bank	공업 등 산업개발지원
Saudi Credit Bank	신용분야

자료 : 외교통상부, “중동 지역별 · 국별 진출가이드- 사우디아라비아”, 2006.

2) 자본시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쿠크 시장규모는 2008년 현재 약 16억 달러로 세계 전체 수쿠크 시장의 11%에 해당하며, 말레이시아와 UAE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규모이다. 단기 리스의 경우에는 이자라 수쿠크가, 장기 리스일 경우에는 무사라카 수쿠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권시장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4,750억 달러 규모로, GCC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며, GCC 지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권시장은 현지인과 GCC 투자자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은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에 대한 투자만 허용되어 있다.

<표 IV-16> 주요 중동 국가 주식 시장 개요

	UAE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주식시장	DFM, ADSM	SSE	DSM	BSE	KSE
시가총액(십억달러)	116	475	91	30	226
대표업종(비중)	부동산중심 금융업(84%)	기초소재 (68%)	은행중심 금융업(43%), 기초소재(42%)	금융 (83%)	은행중심 금융업 (60%)
상장 종목수(개)	28	116	20	40	201
MCSI包 주식수(개)	28	30	16	6	46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2008)

<표 IV-17>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백만 달러)	PER	PBR
SABIC	화학	111,200	15.08	4.57
Al-Rajhi Bank	은행	35,000	20.25	5.56
Samba	은행	22,380	17.63	4.70
Fransi Bank	은행	13,200	17.98	4.40
SAFCO	농업화학	15,467	22.20	9.64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다.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현황

1) 보험시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시장은 2007년 현재 22억 8,900만 달러로 전년도에 18억 5,500만 달러에 비해 23.3%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는 세계 52위 수준에 해당하며,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는 14위에 위치하는 규모로,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시장 전체에서 손해보험 및 건강보험의 비중은 각각 60%, 3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보험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보장 및 저축성보험(혼합형 보험)의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보험은 전년대비 15.1%, 건강보험은 37.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의 세부 종목별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건강보험이 36%, 자동차보험이 28%를 점유하여 의무보험인 두 종목이 전체 보험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성 부문에서도 건강보험의 실적은 두드러져, 3년 연속 30% 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보험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보험이 전년대비 141%,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혼합형 보험)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성장한 가운데 재물보험(-4%), 항공보험(-9%), 기술보험(-12%)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IV-18> 사우디아라비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수입 보험료	비중	수입 보험료	비중	수입 보험료	비중
보장 및 저축성	51	4%	58	3%	87	4%
건강보험	365	26%	594	32%	817	36%
일반(손해)보험	957	70%	1,202	65%	1,384	60%
합계	1,374	100%	1,855	100%	2,289	100%

자료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2008)

<표 IV-19> 사우디아라비아 종목별 수입보험료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보험료	비중	수입 보험료	비중	수입 보험료	비중	
건강보험	365	27%	594	32%	817	36%	38%
자동차보험	423	31%	513	28%	651	28%	27%
재물보험	172	12%	206	11%	198	9%	-4%
상해 및 배상책임	113	8%	155	8%	154	7%	0%
해상보험	102	7%	115	6%	142	6%	23%
기술보험	79	6%	145	8%	128	6%	-12%
보장 및 저축성	51	4%	58	3%	87	4%	50%
에너지보험	33	2%	34	2%	81	4%	141%
항공	36	3%	34	2%	31	1%	-9%
합계	1,374	100%	1,855	100%	2,289	100%	24%

자료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2008)

한편, GDP 규모로 세계 24위 수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규모 대비 보험시장의 발전 정도가 현저히 뒤쳐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밀도는 94달러로 전년대비 2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65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침투율 역시 0.61%로 전년대비 0.08%p가 증가하였지만 세계 87위라는 여전

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과 마찬가지로 낮은 보험 밀도와 보험침투율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시장이 높은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단, 가계성 보험시장의 경우 국민의 식이 상대적으로 미숙하고,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하여 그 수요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의해 해외 보험회사들이 해당 지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우디아라비아 보험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오일머니 유입과 정부차원의 계획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술보험시장을 비롯, 관련 보험종목의 성장으로 연결되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시장은 향후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20> 사우디아라비아 보험침투율 및 보험밀도

(단위 : 달러)

	2005		2006		2007	
	침투율	밀도	침투율	밀도	침투율	밀도
보장성 및 저축성	0.02%	2	0.02%	2	0.02%	4
건강보험	0.12%	16	0.17%	25	0.22%	34
일반(손해보험)	0.30%	42	0.34%	51	0.37%	57
합계	0.44%	59	0.53%	78	0.61%	94

자료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The Saudi Insurance Market Survey Report", 2008.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회사 수는 2008년 3월 기준으로 총 42개이며, 정부 소유의 국영보험공제(NCCI: National Company for Cooperative Insurance)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국영보험공제는 35% 이상의 시장점유율 기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에 집중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등 공공사업의 보험가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바레인에 본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규모도 작고 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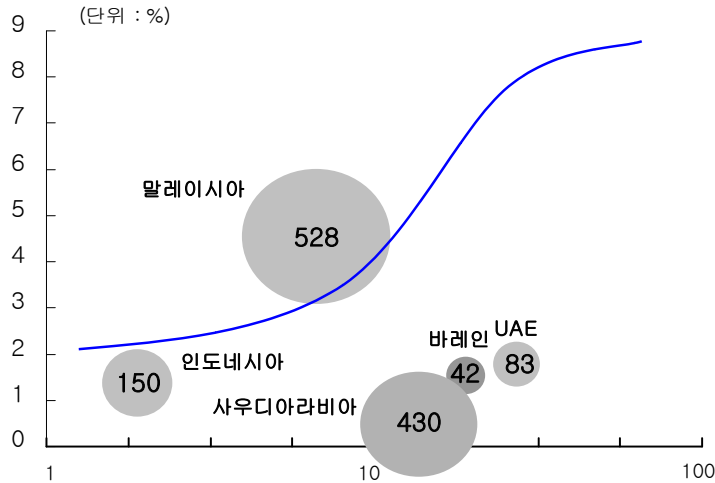
보험업법과 감독규제는 보험회사에 최저자본수준을 과거보다 상향하여 보험 회사 간의 합병을 독려하고 재보험을 제한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금융청(SAMA: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은 보험회사 인허가 및 퇴출권을 가지고 있다. 2008년 1월 현재 보험회사 중 18개 업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 24개사는 금융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허가받은 보험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금융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에 주식공모를 거치고, 지분 중 최소 25% 이상을 유동화해야 한다. 상업적인 국내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인 지분은 60%까지만 허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2) 타카풀시장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카풀시장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약 4억 3천만 달러로 자국내 전체 보험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타카풀시장에서는 5억 2,800만 달러의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수준과 성장속도에 비하여 보험침투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타카풀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4> 사우디아라비아 타카풀시장 규모 및 보험침투율



주 : 1) x좌표는 1인당 국민총생산(1,000달러)을 로그로 변환한 값이고, y좌표는 보험침투율(총수입보험료/GDP)을 나타냄.

2) 곡선은 경제수준 대비 적정 보험침투율을 나타냄.

3) 원크기는 보험시장 규모를 나타내며 단위는 백만 달러임.

자료 : Swiss Re(No.5/2008), The Geneva Paper(Vol.25, No.3)

타카풀회사는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을 취급하지만, 일반타카풀 중 자동차 타카풀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타카풀회사는 단체보다는 개인상품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가족타카풀은 단체와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타카풀 상품은 대부분 보장성과 저축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결혼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 대상 가족타카풀시장은 현재 알자지라은행(Bank Aljazira)의 타카풀타우니(Takaful Ta'awuni) 사업부와 HSBC 지사인 SABB 타카풀이 선도하고 있다. 반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타카풀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타카풀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및 건강타카풀이 앞으로 2~3년 동안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타카풀 또한 꾸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

된다.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카풀시장이 20억 달러까지 성장하여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카풀 판매는 주로 직접 판매가 사용되고 있다. 국영보험공제가 2005년 타우니아(Tawuniya)로 변경되면서 지점과 설계사를 활용한 다양한 판매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보험적 성격을 가진 타카풀 상품이 샤리아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훈련된 설계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타카풀 상품의 판매에는 전속설계사 채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타카풀의 경우 매출 증대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시장은 대체적으로 규제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2002년 건강보험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었지만 이는 해외 주재자들을 위한 의무적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건강보험 시장 규제를 위해 보험감독원(CCHI: Council of Cooperative Health Insurance)을 설립했으며, 2003년에는 타카풀 모델에 의거해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 보험업법(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 Law)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사우디아라비아금융청에서 보험감독기구(ISD: Insurance Supervision Directorate)로 이관하였으며, 아울러 보험분쟁해결위원회(Committee for Resolution of Insurance Disputes & Violations)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험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험회사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작(Joint)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또한 보험영업 수익은 우선 법정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킨 후 이차적으로 주주와 피보험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계약자 펀드의 20%는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채에 투자되어야 하며, 20%

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인증하는 은행의 채권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영업허가를 신청해 왔는데, 2008년 초까지는 과도기로 인정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보험회사도 영업이 가능하였다. 2008년 10월 현재 보험사업자 신청을 한 35개사 중 14개사만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허가를 받은 14개 업체 중 절반은 타카풀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 정도의 타카풀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다수의 타카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나 바레인도 타카풀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3. 카타르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석유 및 천연가스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카타르는 가스산업 지원정책,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에 힘입어 GDP 성장세가 가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GDP 성장률이 12.5%에 이르렀고, 2008년에도 15.3%의 두 자리 성장이 예상된다.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7만 달러를 초월하였으며, 2008년에는 9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노동자 및 파견 주재원 유입과 부유 중산층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스기반 산업과 원유 생산에 대한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기계류 수입 증가에 따른 투자실적 호조가 카타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원유 수출·수입의 증가 및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투자의 순차적 완료 등으로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흑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2003년 이전까지는 카타르 정부의 기본 생필품 가격에 대한 통제 및 보조금 정책으로 물가상승이 억제되면서 연평균 2.5%로 낮은 증가율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산업지원 확대정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1인당 GDP와 이에 따른 소비증가도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 추세는 내수증가와 더불어 임금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카타르의 평균 임금이 GCC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IV-21> 카타르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20.8	6.1	5.1	11.3	12.7
GDP(억달러)	316	412	568	639	737
1인당 GDP(달러)	41,949	53,333	67,740	72,444	91,664
재정수지/GDP	16.5	9.2	9.0	6.8	10.6
소비자물가상승률	6.8	8.8	11.8	13.7	15.0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카타르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및 LNG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133억 달러에서 2008년 303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규모도 2004년 187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55억 달러로 약 368억 달러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규모 증가로 외환보유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카타르의 외환보유액은 약 1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호조,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수지 흑자와 더불어 외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외채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3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재정수입 및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외채 조기상환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2> 카타르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QR)	3.64	3.64	3.64	3.64	3.64
경상수지	7,552	7,482	9,459	5,453	13,307
상품수지	13,275	16,698	19,240	18,092	30,307
수출	18,685	25,762	34,051	37,952	55,516
수입	5,410	9,064	14,811	19,860	25,293
서비스수지	-1,227	-924	-2,763	-4,684	-6,062
자본수지	-2,635	-3,875	-6,440	-	-
외환보유액	3,414	4,552	5,395	9,788	14,612
총외채잔액	15,011	20,422	26,900	33,090	38,628
총외채잔액/GDP	47.5	48.5	47.4	48.3	42.1
D.S.R	8.3	7.1	7.2	7.6	5.5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부문이 전체 GDP의 56%를 차지하는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등락이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약 152억 배럴 상당(세계 원유 매장량의 1.3% 점유)의 원유를 보유하여 향후 200년 이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산업은 카타르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으로써 현재까지도 정부의 제 1의 수입원이다. 한편, 카타르는 1970년 이래 석유 주도형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단일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대인 천연가스 유전층을 배경으로 천

연가스 개발사업을 국가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카타르 정부는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추진계획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가스산업 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청 건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카타르 정부는 2010년까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67억 달러를 포함하여 비에너지 부문, 특히 서비스 산업에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표 IV-23> 카타르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업명	구성 비율
석유 및 가스	55.7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11.3
제조업	7.8
건설업	6.3
무역, 식당 및 호텔업	4.7
교통 및 통신	3.7
전기 및 치수산업	1.9
기타	8.6
계	100.0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Planning Council and Global Research

나. 금융시장 현황

카타르는 GCC 국가들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에 비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간 유가폭등으로 인해 오일머니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을 설립해 미국 국채와 유로채권,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석유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및 운영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2005년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카타르금융센터는 역내 진출기업에 3년간 법인세 면제와 3년 이후 법인세 감면, 100% 지분소유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외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강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 은행산업

현재 카타르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국내은행 9개(상업은행 6개, 이슬람 전문은행 3개), 외국은행 6개, 정부계 1개 등 총 16개가 영업 중이다. 그 중 1965년 정부가 50% 출자해 설립하여 국내 총예금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카타르 국립은행(Qatar National Bank)은 국가사업에 대한 산업금융을 전담하고 외화 및 은행간 결제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카타르 최대은행이다.

카타르의 은행산업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년대비 28.9%, 총자산은 46.7%, 예금 및 대출은 각각 42.5%, 49.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카타르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매력적인 금리수준,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 영업 이익 및 수수료기반 이익의 급증에 힘입어 앞으로도 고성장세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2) 자본시장

2006년 카타르 최대은행인 카타르국립은행이 부동산 개발 용자를 위해서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카타르 첫 수쿠크를 발행한 이후 크고 작은 수쿠크들을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타 GCC 국가들에 비해 수쿠크 발행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카타르의 주식시장은 2008년 12월 시점 기준으로 2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910억 달러에 달한다. 2005년부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카타르는 GCC 국가들 중 최초로 역내 거주자 외국인의 주식매매

를 허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카타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정책과 신 산업 육성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 신규상장 종목이 더욱 증가해 활황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4> 카타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 업 명	업종	시가총액(백만 달러)	PER	PBR
Industries Qatar	산업재	27,606	16.71	7.35
Qatar National Bank	은행	16,955	20.01	4.22
Commercial Bank of Qatar	은행	8,069	18.82	4.72
Qatar Islamic Bank	은행	7,238	17.84	5.46
Qatar Gas Transport	운송	6,388	159.25	4.85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다.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현황

1) 보험시장

카타르의 보험시장 규모는 2007년 현재 5억 3,800만 달러 규모로 세계 80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동 GCC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치로 카타르에서는 보험산업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는데, 원유수출의 호조에 따른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카타르 내 부동산 및 건설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건축, 화재, 도난 관련 보험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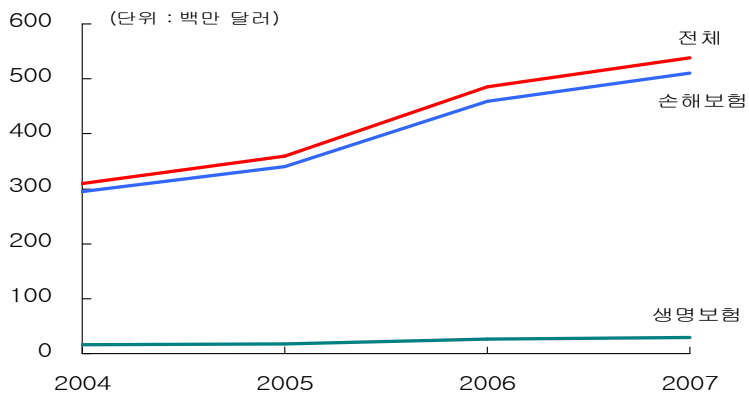
<표 IV-25> 카타르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16	18	26	29
손해보험	295	341	459	509
전체	310	360	485	538

자료 : Swiss Re

<그림 IV-5> 카타르 보험시장 규모 추이



자료 : Swiss Re

카타르의 보험밀도는 세계 35위에 해당하는 640달러로 GCC국가들 중 UAE 다음으로 가장 높은 보험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침투율은 0.9%로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GDP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V-26> 카타르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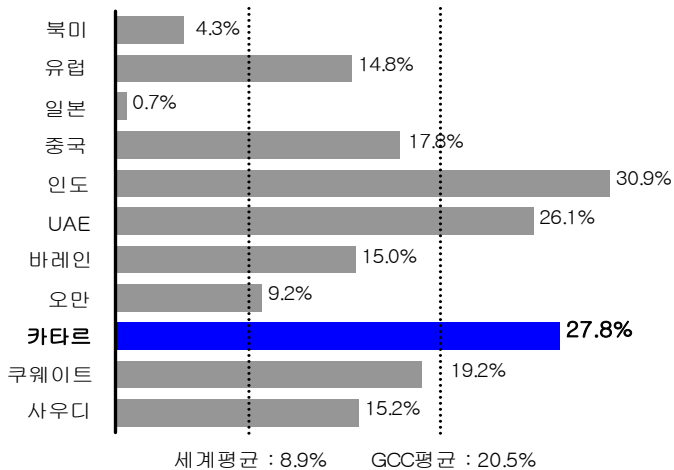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생명보험	34.2	0.0
손해보험	606.0	0.9
전체	640.2(세계 35위)	0.9(세계 64위)
아시아 평균	210.7	6.2
세계 평균	607.7	7.5

주 : 2007년 말 기준임.
 자료 : Swiss Re(2008/3)

그러나 실제로 2002~2006년간 카타르 보험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약 27.8%를 기록해 세계 평균인 8.9% 뿐만 아니라 GCC 평균 20.5%에 비해서도 크게 웃돌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IV-6> 카타르 보험시장 연평균 성장률(2002~2006년)



자료 : The Review(2007)

카타르의 보험시장에는 2008년 현재 5개의 국내 보험회사와 4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보험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시

장 선두기업인 카타르보험(Qatar Insurance)이 전체시장의 45%를, 그리고 카타르손해보험&재보험(Qatar General Insurance & Reinsurance)이 2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5%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외국보험회사 간의 경쟁은 국내보험회사의 강력한 지위와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생명보험 분야에 한정된 낮은 경쟁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QFC: Qatar Financial Centre)의 설립은 다국적 보험회사의 진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2007년 AIG와 취리히생명(Zurich Life)이 국제금융센터 감독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는 등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카타르 보험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금융센터로 조성된 세계적인 금융 환경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카타르 경제에 주목해 보았을 때, 카타르 보험시장이 GCC 시장 진출의 이상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 타카풀시장

카타르의 타카풀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찾기 어렵지만, 보험시장 전체 규모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타카풀 역시 주목할 만큼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가 2004년 외국자본 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의 개정을 통해 외국 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역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서 향후 외국계 타카풀회사의 활동에 따라 타카풀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카타르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감독기준 도입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석유나 가스 판매 위주의 경제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2008년 7월 카타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과 감독규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외 은행 및 보험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통합감독조직 설립을 준비 중이다.

카타르에서는 1966년 제정된 보험업법이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수용해 카타르 정부는 현실을 반영한 신보험업법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카타르 보험시장 전반의 관리감독은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다른 GCC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4. 바레인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중동의 소국이면서 유일한 섬나라인 바레인도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과 가스산업 지원프로그램의 추진 등에 힘입어 GDP가 2002년 이후 매년 5% 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6.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1인당 GDP도 고유가의 지속과 비철금속의 가격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2만 9천 달러로 2004년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기본 생필품에 대한 가격보조,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27> 바레인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5.6	7.9	6.5	6.7	6.9
GDP(억달러)	112	134	162	190	237
1인당 GDP(달러)	15,974	19,116	23,190	23,720	29,563
재정수지/GDP	2.6	5.1	1.9	0.6	7.4
소비자물가상승률	2.5	1.8	2.8	4.4	7.3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바레인의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4년 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50억 달러로 약 1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규모도 2004년 76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15억 달러로 약 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약 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LNG 개발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금융수요 증대로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 공적외채가 80% 이상을 차지해 외채상환부담이 비교적 적고 LNG 수출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국제 금융시장의 높은 신인도,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외채상환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28> 바레인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BD)	0.376	0.376	0.376	0.376	0.376
경상수지	415	1,575	1,918	2,723	5,023
상품수지	1,486	2,525	3,138	4,083	7,223
수출	7,621	10,131	11,703	13,633	21,459
수입	6,135	7,606	8,565	9,550	14,236
서비스수지	625	686	697	739	190
자본수지	-1,234	493	-391	-1,368	-1,179
외환보유액	1,586	1,877	2,694	4,101	5,415
총외채잔액	5,090	6,003	7,297	7,823	8,443
총외채잔액/GDP	45.4	44.8	45.0	41.2	35.6
D.S.R.	5.4	4.7	4.8	5.0	4.6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바레인의 석유 매장량은 1억 3천만 배럴로 향후 15년 정도 채굴가능한 양에 불과하며 가스매장량 또한 924억 입방미터로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석유 및 가스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비석유부문에 대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금융, 서비스 및 관광, 정보기술, 보건, 교육, 알루미늄 생산 등 6개 분야에서 연간 6~7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Offshore Banking Unit법을 제정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역내 진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투자관련 양자간 경제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미국자본의 바레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바레인은 국제거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년간 환율을 변동시키지 않으며 안정된 금융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바레인 중앙은행은 특히 금융서

비스 분야에서 효율적인 은행의 조정자로서 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바레인은 상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 회사들이 법원을 통해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권 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일정한 조건만 되면 현지 파트너와 합하지 않고도 100% 외국인 소유기업의 설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바레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자 완화와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면제(소득세, 법인세), 100% 외국투자 허용, 과실송금 자유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표 IV-29> 바레인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 업 명	구 성 비 율
서비스업	56.0
제조업(석유 및 가스 포함)	43.6
농업	0.4
계	100.0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표 IV-30> GCC 에너지 자원 현황

	석유생산량 (천 배럴/1일)	석유수출량 (천 배럴/1일)	석유매장량 (억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 (10억 m ³)	천연가스 매장량 (10억 m ³)
사우디아라비아	10,584	6,813	2,627	64	6,750
UAE	2,667	2,172	978	46	6,060
쿠웨이트	2,424	1,414	990	10	1,570
오만	785	906	56	18	1,000
카타르	990	542	152	39	25,780
바레인	180	4	1	10	90
합계	17,630	11,851	4,804	187	41,250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BP, OPEC.

나. 금융시장 현황

바레인은 GCC 국가 가운데 가장 좁은 국토와 인구,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적은 관계로 일찍부터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바레인은 최근 해외투자가 몰리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UAE의 두바이와 적극적으로 금융센터 육성을 위해 나서고 있는 카타르의 금융허브 유치 노력에 자극을 받아 2009년까지 바레인금융허브(Bahrain Financial Harbour)를 건설,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표 IV-31> 바레인 금융허브개발 마스터 플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식 명칭	- Financial Harbour Development Master Plan(BFH)
추진배경	- 마나마 중심지에 바닷가를 접한 38만m ² 의 지역을 역내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바레인 금융허브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 마련
구성	- BFH 개발은 금융센터(Financial Centre), 상업지구, Harbour Row, 호텔, 남부 주거지역, Diamond Tower, 북부 주거지역, Bahrain Performance Centre, Dhosw Harbour 등 1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비전	- 글로벌 및 현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목적	- 보다 나은 금융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 바레인의 선도적인 입지 강화
주요 타겟시장	- 투자은행부문, 상업은행, 역외 은행, 법률자문서비스, 펀드운용, IT, 이슬람 금융, 리스회사, REITs, 금융자문 등

자료 : BFH 홈페이지

그 결과 현재 금융부문은 바레인 GDP의 약 28%를 차지하며 국가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축 중 하나로 성장했다. 바레인이 세계 이슬람 금융의 중

심지 중 하나가 된 데에는 1979년 이슬람 금융기관인 바레인이슬람은행(BIB: Bahrain Islamic Ban)이 설립된 이후 부터였다. 바레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외국계 이슬람 은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해 2007년 현재 약 30여 개의 이슬람 은행, 약 14개의 타카폴회사, 약 30개의 이슬람 뮤추얼 펀드가 설립·운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바레인통화국(BMA: Bahrain Monetary Authority)이 유일한 금융 감독기관이며, 바레인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통제 및 감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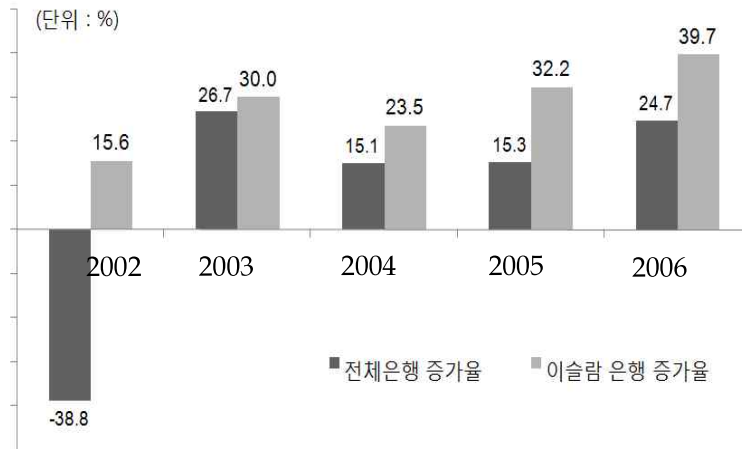
바레인에는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 국제이슬람등급기관(IIRA),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 유동성관리센터(LMC)라고 하는 이슬람 금융 관련 4개의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어 각각 국제 기준의 회계 및 감사제도 정비, 이슬람 채권 등급설정, 증권계약 양식의 표준화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정비, 수쿠크의 유통시장 육성을 포함한 이슬람 금융거래 관련 유동성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바레인 중앙은행과 은행협회 공동으로 이슬람금융연구센터(Center for Islamic Finance Studies)가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1) 은행산업

2007년 1월 기준으로 바레인 주재 금융기관 수는 총 371개로 이 중에서 이슬람 은행은 27개에 달한다. 9.11 사태 이후 2001과 2002년의 은행 자산규모는 감소했으나 2006년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25% 증가한 1,865억 달러에 달하며 그 다음해부터 곧바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이슬람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 40%에 달했으며, 전체 은행대비 이슬람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에 7.4%로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바레인 이슬람 은행 총자산은 2006년 12월 기준 약 132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1998년 약 13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IV-7> 바레인 은행 및 이슬람 은행 성장률 추이



자료 : The Central Bank of Bahrain(2007)

<표 IV-32>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 국내 자산 및 외국 자산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국내 자산	외국 자산	전체자산
1998	728	620	1,348
1999	901	776	1,677
2000	1,072	846	1,917
2001	1,162	1,297	2,458
2002	1,359	1,553	2,911
2003	2,077	2,080	4,156
2004	2,535	2,899	5,434
2005	3,893	4,117	8,009
2006	5,980	7,303	13,282

주 :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 금융업을 하는 상업은행, 글로벌 은행, 투자은행을 포함함.
 자료 : The Central Bank of Bahrain(2007)

바레인의 이슬람 은행은 여러 업무 형태가 있다. 우선, 바레인이슬람은행

(Bahrain Islamic Bank), 바레인샤밀은행(Shamil Bank of Bahrain), 알바라카이슬람은행(Al Baraka Islamic Bank)과 같은 이슬람 전문은행이 있다. 그리고 걸프국제은행(Gulf International Bank)처럼 일반은행 내부에 이슬람 금융 업무창구를 설치한 경우와 아랍은행연합(Arab Banking Corporation)의 별도 법인으로 마련한 경우가 있다. 또한 씨티이슬람투자은행(Citi Islamic Investment Bank)과 같이 글로벌 은행이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바레인 은 상당수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중동 뿐 아니라 EU,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다.

2) 자본시장

바레인 정부는 이슬람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5년 만기 약 1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이슬람 국가 최초로 발행했다. 이후 국가 주도의 수쿠크를 지속적으로 발행한 결과 2003년에는 수쿠크 발행액이 일반채권 발행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전세계 수쿠크 발행액의 약 12%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이후 바레인 수쿠크 시장은 전세계 수쿠크 시장의 모범이 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육성에 크게 공헌해 왔다.

바레인의 주식 시장은 GCC지역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금융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3%를 상회할 만큼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33> 바레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백만 달러)	PER	PBR
Ahli United Bank	은행	6,837	16	2
Bahrain Telecom	통신	3,174	12	3
Gulf finance House	금융	3,165	8	4
Investcorp Bank	은행	2,230	7	2
United Gulf Bank	은행	1,783	11	3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다.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현황

1) 보험시장

바레인의 보험시장은 2007년 현재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억 3,560만 바레인 디나르(약 3억 1,90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20.7%가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3년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67.2%)과 자동차보험(16.2%), 건강보험(38.6%)등이 큰 폭의 성장세를 각각 보이며 바레인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전체 시장의 28.6%에 해당하는 3,875만 바레인 디나르를 거수해 전년도대비 무려 67.2%가 늘어났다.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 시장 비중이 대체로 10% 남짓에 불과한 여타 중동국가들 상황을 감안할 때 바레인에서 생명보험 시장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시장의 32.2%를 점유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 자동차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이 자동차 보험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바레인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 관련 회사와 지점은 2007년 말 기준으로 모두 합해 약 70여 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해외에서 보험인수가 가능한 사업체는 38개사 정도이다. 1997년 19개에 불과했던 보험회사 수는 10년 후 2007년에는 33개까지 증가했는데, 33개의 보험회사들 중에서 22개사는 국내사, 11개사는 외국 보험회사로 이들 회사들은 주로 개인보험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레인 국적의 바레인국립보험(Bahrain National Insurance), 바레인 쿠웨이트보험(Bahrain Kuwait Insurance), 걸프연합보험&재보험(Gulf Union Insurance & Reinsurance Co.) 등 3개 대형사가 바레인 전체 보험시장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코(American Life Insurance Co.)와 취리히 인터내셔널생명보험(Zunch International Life Ltd.)이 외국보험회사로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보험회사가 바레인 생명보험 시장

의 68.5%를 점유하고 있는 점은 바레인 생명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외국보험회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IV-34> 바레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구분		수입보험료		
		2006	2007	증가율
생명보험		23,172	38,751	67.2%
손해보험	화재	11,149	11,348	1.8%
	재물	6,735	5,300	-21.3%
	상해	2,807	2,338	-16.7%
	해상	5,655	5,851	3.5%
	항공	1,652	1,027	-37.8%
	자동차	37,541	43,620	16.2%
	기술	9,125	7,222	-20.9%
	배상책임	2,653	2,952	11.3%
	건강	8,352	11,573	38.6%
	기타	3,530	5,626	59.4%
손해보험 계		89,199	96,857	8.6%
합계		112,371	135,608	20.7%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표 IV-35> 바레인 내 보험회사 수 연도별 변동 추이

(단위 : 개)

	1997	1999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국내보험사	9	10	10	9	12	12	19	22
외국보험사	10	10	9	9	9	8	9	11
합 계	19	20	19	18	21	20	28	33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표 IV-36> 바레인 보험회사 총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구 분	회 사 명	총수입보험료
일반보험사 (바레인국적)	Al Ahlia Insurance Co.	9,860
	AXA Insurance (Gulf) Co.	7,575
	Bahrain Kuwait Insurance Co.	15,020
	Bahrain National Insurance Co.	21,003
	Bahrain National Life Assurance Co.	3,930
	Gulf Union Ins.& Re. Co.	11,323
	Life Insurance Corporation (International)	9,154
	Mediterranean & Gulf Ins. & Reins. Co.	2,221
	Saudi National Ins. Co.	719
	Trade Union Ins. Co.	806
	United Insurance Co.	1,264
	소계	82,875
타카풀사	AIG Takaful - Enaya	360
	Takaful International	9,186
	Solidarity	6,184
	소계	15,730
외국보험사	Al- Nisr Insurance Co.	1,003
	American Life Insurance Co.	14,881
	Arabia Insurance Company	1,262
	Iran Insurance Company	1,401
	New India Assurance Co.	3,443
	Royal & Sun Alliance Ins. PLC	2,441
	Zurich International Life Ltd.	12,572
	소계	37,003
합 계		135,608

주 : 2007년도 기준임.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바레인 재보험 시장의 가파른 성장 역시 바레인 전체 보험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제 활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보험 물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7년 재보험 시장도 전년도에 비해 28.2%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아랍보험그룹(Arab Insurance Group (Arig))과 트러스트인터내셔널보험(Trust International Insurance Co.) 두 개사가 전체 바레인 재보험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다.

<표 IV-37> 바레인 재보험회사 및 리타카풀회사 총수입보험료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회사명	2006	2007	증가율
Arab Insurance Group (Arig)	62,680	94,210	50.3%
Trust International Insurance Co.	68,456	69,472	1.5%
Labuan Reinsurance (L) Ltd.	8,099	8,685	7.2%
New Hampshire Insurance Co.	1,909	2,898	51.8%
Hannover ReTakaful	0	5,717	-
합 계	141,144	180,982	28.2%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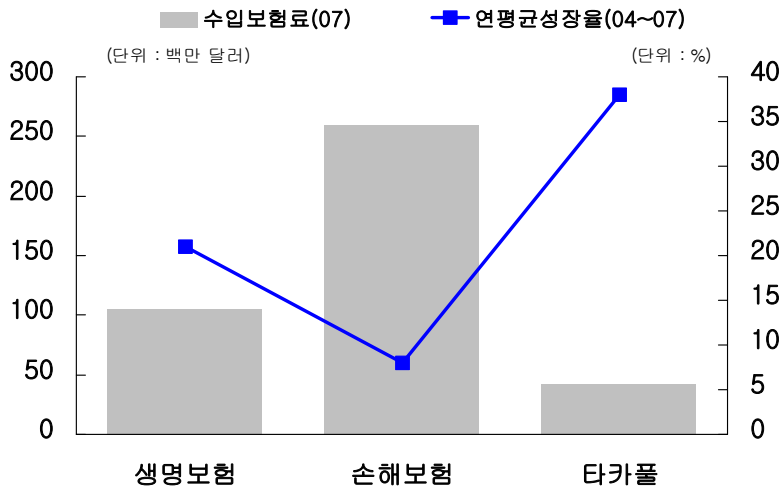
한편, 보험침투율은 2006년 기준 1.98%로 G7³⁸⁾의 9.45%보다는 크게 낮아 바레인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2) 타카풀시장

바레인 타카풀시장은 2007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573만 바레인 디나르(약 4,200만 달러)로 바레인 전체 보험시장에서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의 58.3%, 최근 3년간 약 40%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바레인 타카풀시장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38)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림 IV-8> 바레인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규모 비교



자료 : Swiss Re(2008/5)

다른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바레인도 일반타카풀이 전체 타카풀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타카풀이 전체 타카풀시장의 35%를 점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타카풀(21%), 화재타카풀(14%)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일반보험의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가족타카풀은 124만 바레인 디나르로 전체 비중의 8%에 지나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무려 221%가 증가한 것이어서 향후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한편, 바레인에서 인가받은 타카풀회사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15개사이며 이중 6개사는 바레인 자국회사이고, 9개사는 외국계 회사로 나타나 외국 타카풀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표 IV-38> 바레인 타카풀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구 분		수입보험료		
		2006	2007	증가율
가족타카풀		387	1,241	220.7%
일반 타카풀	화재	1,123	2,151	91.5%
	재물	0	11	-
	상해	0	38	-
	해상	417	315	-24.5%
	항공	170	117	-31.2%
	자동차	3,853	5,457	41.6%
	기술	1,290	1,252	-2.9%
	배상책임	127	368	189.8%
	건강	1,663	3,305	98.7%
	기타	907	1,475	62.6%
일반타카풀 계		9,550	14,489	51.7%
합계		9,937	15,730	58.3%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바레인은 타카풀의 선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타카풀협회(ITA: Bahrain-based International Takaful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이 협회의 목표는 타카풀 산업 부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협회내 회원들의 화합과 타카풀의 독특한 체계와 수익성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그리고 협회 안에 산하기관인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 Bahrain-based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를 설립하여 타카풀을 포함해 세계 이슬람 금융산업의 표준규정을 제정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바레인보험협회(BIA: Bahrain Insurance Association)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레인의 타카풀시장은 향후 2~3년 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타카풀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약 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16%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에는 가족타카풀의 고속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이 되면 타카풀 점유율이 전체 바레인 보험시장에서 약 3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타카풀시장 성장의 전망은 우호적인 관련 법규체제 완비와 증가하고 있는 타카풀회사들의 수를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바레인 타카풀의 주요 판매채널은 직판 채널이지만 새로운 판매채널로 방카타카풀이 중요한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바레인은 이슬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5년 4월 보험규정집을 발행하였다. 이 규정집은 전통적 보험과 타카풀 등의 보험회사의 진입 및 퇴출, 운영 등을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산업 평가계획(FAS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³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은 보험규제의 완성도가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진화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바레인 보험시장 감독은 바레인 금융통화청이 맡고 있었으나, 2006년 9월부터 바레인 중앙은행이 바레인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하여 업무 독립성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법규 관련 전문가⁴⁰⁾들에 따르면 바레인은 중동 내에서 타카풀시장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레인 감독당국은 정책적으로 타카풀 사업 운영에 특혜를 주고 있는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타카풀과 일반 보험업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한 회사 내의 개별 타카풀 사업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보험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지급준비금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개별 사업마다 리스크 요인을 달리 계산하여 적용시키도록 법제화되어 있

39) IMF와 World Bank가 합작하여 1999년 5월에 생겼으며, 개별국가의 금융체제 및 취약성을 측정·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40) Dingwall, Susan, Ali, Shantha and Griffiths, Ffion(2007), Wilson and Rodney(2007)

다. 또한 타카풀회사는 펀드마다 계정을 분리하여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의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타카풀회사는 각각의 펀드 운영 잉여금을 분배하는 규칙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펀드 잉여금 분배는 최소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킨 후에 가능하나, 타카풀회사는 각 펀드가 최소 지급준비금을 충족치 못할 경우 이들 펀드에 자본투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타카풀 상품의 감독은 바레인 중앙은행의 소관이지만 이들 상품의 샤리아 준수여부는 개별 타카풀회사의 몫이 된다. 타카풀회사들은 이밖에도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와 무다라바 이익 배분율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5. 쿠웨이트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쿠웨이트 경제는 2005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2007년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라 GDP 성장률이 4.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에는 고유가, 석유 생산량 증대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 강세에 따라 활발한 민간소비와 정부의 수입증대는 비석유부문 성장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해외투자자산 투자수익 증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6.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의 재정수지는 안정적인 석유수출입에 힘입어 장기간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2007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대외자산의 이자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GDP 대비 42.4%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투자 지출 및 주요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확

대로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38.5%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쿠웨이트의 물가상승률은 1% 내외의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 중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의 개편 결과 2005년 물가상승률은 4.1%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지속적인 쿠웨이트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였으나, 국제곡물가격 상승,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 달러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정부 보조금 증가, 국내소비 확대 등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2008년에는 20년 만에 최대치인 1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풍부한 재정수입을 이용하여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월급과 연금을 일률적으로 인상시키는 한편, 보조금 해당 물품 수와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입관세를 낮추는 등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IV-39> 쿠웨이트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10.7	11.4	6.3	4.9	6.8
GDP(억달러)	594	838	1,022	1,110	1,724
1인당 GDP(달러)	21,229	27,945	31,923	32,653	47,885
재정수지/GDP	24.9	38.0	28.9	42.4	38.5
소비자물가상승률	1.3	4.1	3.0	5.5	13.5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쿠웨이트의 석유 수출은 총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이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07년에는 원유 감소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약 8.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08년에는 생산량

확대와 고유가 지속으로 전년에 비해 약 7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단가 상승과 국내수요 증대로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상품수지 흑자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007년 말 기준으로 30%를 상회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교역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필요한 단기성 부채 증가와 부동산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입 때문이며 상환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2008년까지 최근 5년간의 D.S.R.은 2~3%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오일머니의 지속적인 유입과 막대한 해외투자자산 보유로 채무상환 불이행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표 IV-40> 쿠웨이트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달러당연중, KD)	0.29	0.29	0.29	0.28	0.26
경상수지	18,161	34,308	50,995	47,495	83,686
상품수지	18,426	32,733	44,288	43,084	83,838
수출	30,089	46,971	58,638	63,723	110,763
수입	11,663	14,238	14,350	20,639	26,925
외환보유액	8,350	8,972	12,676	16,776	18,893
총외채잔액	13,200	18,100	25,300	34,900	44,600
총외채잔액/GDP	22.2	21.6	24.8	31.1	25.9
D.S.R.	2.1	1.9	2.8	3.4	2.3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쿠웨이트는 규모면에서는 인구 340만 명, 국토면적 약 18,000km²의 소국이지만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8%에 달하는 약 천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에너지 부국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채굴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관련 산업은 쿠웨이트

GDP의 50% 이상, 정부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에 끼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산업이다.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규모가 막대하여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쿠웨이트 정부는 차세대 기금을 통한 탈석유화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 판매수입의 10%를 차세대 기금(Reserve Fund for Future Generation)으로 적립해 미래 탈석유화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41> 쿠웨이트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업명	구성 비율
석유 및 가스 분야	55
서비스	25
공공서비스	22
제조업	13
계	100.0

주 : 2006년 기준임.

자료 : 쿠웨이트 중앙은행

쿠웨이트는 자국을 중동의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항만, 도로, 투자자유지역 등 국내 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쿠웨이트인 또는 기업들이 국내산업 발전에 주도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 정책, 즉 현지인 에이전트·스폰서 임명 의무 또는 현지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을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경제에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주재국 상공부가 외국기업의 100% 단독투자를 승인해 주고 있으며, 법인소득세(최대 55%)를 최장 10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나. 금융시장 현황

쿠웨이트는 이미 1977년 최초의 이슬람 금융기관이자 자산규모로 세계 2위인 쿠웨이트금융원(KFH: Kuwait Finance House)을 출범시켰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이슬람 금융법을 제정하면서 종전까지 상무성이 관할하던 이슬람 금융 감독권을 쿠웨이트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이슬람 전문은행 뿐 아니라 일반은행의 이슬람 창구업무도 허용하였다.

<표 IV-42> 세계 이슬람 금융기관 순위

순위	금융기관	국가	형태	총자산(백만\$)
1	Bank Meli Iran	이란	국영은행	48,469.9
2	Kuwait Finance House	쿠웨이트	상업은행	37,177.9
3	Al Rajhi Bank	사우디아라비아	상업&투자	33,347.5
4	Bank Saderat Iran	이란	국영은행	32,610.0
5	Bank Mellat	이란	국영은행	32,533.6
6	Bank Tejarat	이란	국영은행	26,340.0
7	Bank Sepah	이란	국영은행	24,142.4
8	Dubai Islamic Bank	UAE	상업은행	22,801.6
9	Bank Keshavarzi	이란	국영은행	16,298.0
10	HSBC Amanah	영국	상업&소매	15,194.0

주 : 이슬람 은행업 전문은행은 총자산을, 이슬람 은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경우는 이슬람 은행업 부문(이슬람 창구업무)의 총자산을 대상으로 함.

자료 : The Banker(2008년 11월호)

1) 은행산업

쿠웨이트에는 2007년 현재 쿠웨이트중앙은행(CBK: Central Bank of Kuwait)과 민간소유 상업은행 6개, 외국계 은행(50% 쿠웨이트인 소유) 지점 1개, 이슬람은행 1개 등 총 8개 일반은행이 영업하고 있다. 그 중 쿠웨이트국가은행(NBK: National Bank of Kuwait)은 쿠웨이트 최대 은행이며, 이외에도

쿠웨이트상업은행(CBK: Commercial Bank of Kuwait), 걸프은행(GB: Gulf Bank), 버건은행(BB: Burgan bank), 쿠웨이트알 알리은행(ABK: Al Ahli Bank of Kuwait), 쿠웨이트&중동은행(BKME: Bank of Kuwait & Middle East) 등의 시중은행들이 있다.

2004년에는 수정 은행법으로 외국은행들의 쿠웨이트 국내영업이 허용되면서 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가 2004년 8월 최초로 쿠웨이트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초에는 아부다비국립은행(Abu Dhabi National Bank), HSBC 중동(Middle East), 씨티은행이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들 은행들은 소매금융보다 자산관리와 투자은행업 등 고수익 분야에 영업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쿠웨이트 정부와 중앙은행, 일반은행들이 공동 설립한 쿠웨이트산업은행(IBK: Industrial Bank of Kuwait)이 있는데, 농업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비의 50%까지 비교적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쿠웨이트중앙은행이 은행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와 은행임원 선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2) 자본시장

쿠웨이트는 여타 GCC 국가들처럼 수쿠크 발행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전세계 비중은 1% 수준으로 이슬람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2001년 이후 쿠웨이트증권거래소(KSE: Kuwait Stock Exchange)는 GCC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상장주식 수는 201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16개 보다 오히려 더 많다. 그동안 양호한 주식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세금관련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2007년 초 외국인들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점차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IV-43> 쿠웨이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백만 달러)	PER	PBR
Zain	통신	28,695	18.02	4.05
Kuwait Finance House	은행	21,804	20.65	3.52
National bank of Kuwait	은행	18,822	16.54	3.01
National Industries Group	복합	13,200	17.98	4.4

주 : 2008년 12월 8일 기준임.

자료 : Bloomberg

다.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현황

1) 보험시장

쿠웨이트는 소득 수준은 높지만 보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총수입보험료는 2007년 기준 7억 3,400만 달러로 세계 69위의 낮은 수준이다. 여타 중동국가들처럼 손해보험 부문이 줄곧 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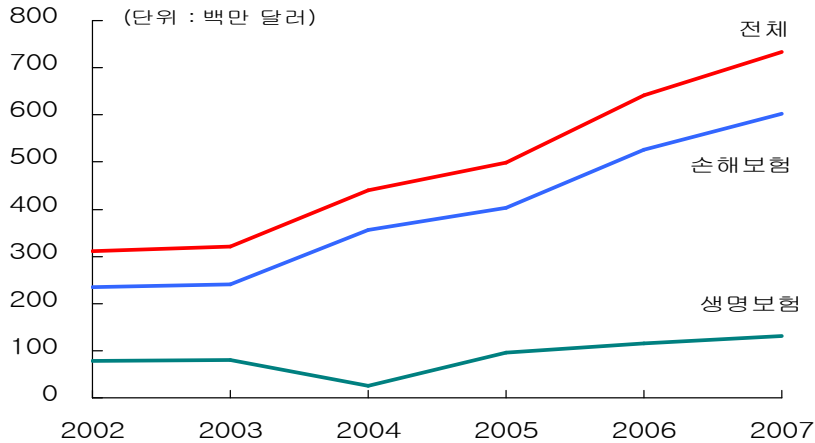
<표 IV-44> 쿠웨이트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78	80	25	95	116	132
손해보험	234	240	356	403	526	602
전체	311	320	441	498	641	734

자료 : Swiss Re

<그림 IV-9> 쿠웨이트 보험시장 규모 추이



자료 : Swiss Re

보험밀도는 257.3달러로 세계 평균 608달러보다 훨씬 낮지만 아시아 평균인 211달러는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험침투율은 불과 0.6%에 지나지 않아 세계 및 아시아 평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쿠웨이트가 보험 신흥시장으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표 IV-45> 쿠웨이트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단위 : 달러, %)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생명보험	46.3	0.1
손해보험	211.0	0.5
전체	257.3(세계 35위)	0.6(세계 64위)
아시아 평균	210.7	6.2
세계 평균	607.7	7.5

주 : 2007년 말 기준임.

자료 : Swiss Re(2008/3)

쿠웨이트의 보험시장에서는 2008년 말 현재 11개의 국내 보험회사와 10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주로 개인보험부문에 치중하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위 4개사가 전체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가 8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걸프보험사(GIC: Gulf Insurance Company)는 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쿠웨이트 제1의 보험회사이다. 그 뒤로 알 알리아보험(Al Alalia Insurance Co.), 와라바보험(Warba Insurance Co.), 쿠웨이트보험(Kuwait Insurance Co.) 등 차상위 3개 회사도 쿠웨이트 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 타카풀시장

낮은 보험밀도와 수입보험료 규모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의 타카풀 시장은 급속히 발전 중이다. 쿠웨이트 최초의 타카풀회사인 애플리(APTLY)사가 2000년 7월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2006년 현재 총 9개 타카풀회사가 영업 중이다. 이는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샤리아에 따른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쿠웨이트 정부의 제4차 재개발계획과 부비얀 섬 개발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 이와 관련한 타카풀 상품시장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 정부는 타카풀회사와 보험회사의 수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 설립시 100% 외국자본 소유가 법률적으로는 허용되는 등 외국 보험회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쿠웨이트 정부는 1961년 보험업법을 제정한 이후 보험과 관련되어 특별히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금융산업평가계획에서 현재도의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쿠웨이트 보험감독기구인 재무통상부(Department of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신보험업법을 담은 개정안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6. 말레이시아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말레이시아 경제는 견실한 수출 증가,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도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민간투자 증가, GDP의 4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9.7% 성장 시현 등으로 인해 6.3%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지만, 견실한 국내수요와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5.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06년에 국제유가 상승, 소비회복 등의 요인으로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3.6%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링깃화의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 정부의 생필품 가격 안정화 대책 등으로 3년 동안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링깃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5.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3~5% 수준의 다소 과다한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세원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 추세에 있다. 2006년부터는 제 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The Ninth Malaysia Plan: 2006~2010년)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석유수입과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원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수입이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수준인 -3.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46> 말레이시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6.8	5.3	5.8	6.3	5.8
GDP(억달러)	1,247	1,380	1,564	1,867	2,192
1인당 GDP(달러)	4,880	5,280	5,870	6,870	7,920
재정수지/GDP	-4.1	-3.6	-3.3	-3.2	-3.1
소비자물가상승률	1.5	3.0	3.6	2.0	5.2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수요 증가와 석유, LNG, 야자유 등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민간소비와 투자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출입이 각각 전년대비 11.0%, 12.3% 증가하며 약 379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유럽 등의 경기 침체로 전체 수출액의 51%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가 둔화되며 주춤한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증가 추세,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따라 흑자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30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47> 말레이시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M\$/\$, 연중)	3.80	3.79	3.67	3.44	3.18
경상수지	15,079	19,980	25,488	30,047	30,608
상품수지	27,572	33,156	36,698	35,860	37,886
수출	126,817	141,808	160,842	182,336	202,401
수입	99,244	108,653	124,144	146,476	164,515
서비스수지	-2,158	-2380,686	-1,889	253	332
자본수지	5,091	-9806,493	-11,894	-10,878	-
외환보유액	65,881	69,858	82,132	101,019	122,520
총외채잔액	52,156	51,981	52,526	53,497	57,417
총외채잔액/GDP	41.8	37.7	33.6	28.7	26.2
D.S.R.	6.2	5.6	4.0	4.6	3.8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007년 총외채규모는 535억 달러 수준이나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은 2003년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D.S.R.도 2006년 4.0%, 2007년 4.6%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치를 기록 중이고, 경상수지 흑자로 확대에 인한 외환보유액도 증가 추세에 있어 외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말레이시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등 제조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발달해 왔다.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제조업 수출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거래 편중현상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지역도 미국, 일본, EU 등에 편중되어 있어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수출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또한 전자산업 등의 부문에서 재료와 부

품의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표 IV-48> 말레이시아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업명	구성 비율
제조업	45.3
서비스업	44.8
농림수산업	9.9
계	100.0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말레이시아는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양부문 모두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비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플랜테이션(plantation)⁴¹⁾과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필요한 숙련 노동인력은 인근 국가로부터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주석 등 광물자원, 목재와 야자유, 고무 등 농산자원을 비롯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야자유 생산국가로서 최근 식이요법, 대체에너지 활용 등에 의한 세계적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국제 상품가격 상승과 투기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빠른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하여 원유는 약 21년, 천연가스는 약 3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잔존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으로서 일본, 한국, 대만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다양하다. 또한,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강하게 추진 중인데 최고 경영자를 정치인이 아닌 젊은 전문경영인으

41) 열대·아열대에서 이루어지는 재식농업(栽植農業)으로 향신료, 고무,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담배 등의 농산물을 주로 경작한다.

로 대체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 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The Ninth Malaysia Plan)을 발표하였으며, 제8차 계획기간(2001~2005년) 동안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소 부진한 경제성장을 나타냈으나, 제9차 계획기간에는 더욱 견고해진 거시경제 기반과 세계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9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①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제고, ②국가 생산성 및 혁신능력 향상, ③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설적 대응, ④삶의 질 향상, ⑤행정실행능력 제고 등이며, 5년간 연평균 6%의 경제성장 시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V-49> 제 8차 경제개발계획 성과 및 제 9차 계획 목표

구 분	8차 경제개발계획		9차 계획
	목표	실적	
GDP 증가율(연평균, %)	7.5	4.5	6.0
1인당 GNP(링깃)	17,779	17,687	23,573
수출 증가율(%)	2.0	5.2	7.1
수입 증가율(%)	1.9	5.6	7.9
경상수지/GNP(%)	3.9	12.7	14.9

자료 : Economic Planning Unit, The Ninth Malaysia Plan

<표 IV-50> 제 9차 경제개발계획 예상 지출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9차 경제개발계획				8차 계획
	정부예산	민간자본	총지출	전체비중(%)	기지출
교육/훈련	41,114	9,472	50,586	23.0	43,729
교통	31,876	634	32,510	14.8	31,813
에너지/공공설비	21,805	0	21,805	9.9	12,722
통상/산업	19,891	310	20,201	9.2	10,174
국방	15,237	1,582	16,819	7.6	17,298
농업	11,435	350	11,785	5.4	7,749
건강/의료	10,710	878	11,588	5.3	9,506
주택	9,947	1,565	11,512	5.2	6,972

자료 : KOTRA(2008)

나. 금융시장 현황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다양성, 효율성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비교적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2007년 현재 GDP의 10.7%를 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연평균 7%대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제력의 주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산 측면에서 은행이 2/3를 차지하고 제2금융권이 1/3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으며, 현재 ASEAN 지역 국가 중 금융산업이 가장 발전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표 IV-51> 말레이시아 금융기관 수 변화 추이

금 융 기 관	1999	2007
· 상업은행	34	22
· 금융회사	32	0
· 투자은행/종금사	12	14
· 종합 브로커	5	1
· 할인상사	7	0
· 이슬람 은행	2	12
· 보험사	56	41
- 생명보험사	7	8
- 일반보험사	38	25
- 복합보험사	11	8
· 재보험사	11	7
· 타카풀사	2	8
· 리타카카풀사	0	2
· 개발금융기관	14	13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8)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서비스는 1969년 순례자자금위원회(Pilgrim Fund Board)가 메카 성지순회를 계획하는 이슬람교 신자의 저축예금을 유통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1983년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이슬람 은행인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BIMB: The Bank Islam Malaysia Bhd.)이 설립됐으며, 1년 후에는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을 다루는 샤리켓타카풀말레이시아(STMB: Syarikat Takaful Malaysia Bhd.)가 세워졌다.

말레이시아는 1983년 시행된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에서 인가한 이슬람 은행에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했고, 이후 은행 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금융 기법이 가장 발전한 국가가 되었다. 2001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를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라는 모토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 정부 주도의 금융특화 정책을 적극 전개한 결과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금융기관을 보유한 명실상부 제 1의 이슬람 금융 시장이 되었다.

<표 IV-52> 세계 이슬람 금융기관 현황

이슬람국가	기관수	이슬람국가	기관수	비이슬람국가	기관수
말레이시아	49(35)	모로코	4	영국	22(12)
바레인	27	인도네시아	4	미국	6
사우디아라비아	10	카타르	3	바하마	5
수단	9	레바논	3	스위스	4
UAE	9	부르나이	3	프랑스	4
이란	8	방글라데시	3	룩셈부르크	4
이집트	8	오만	3	아일랜드	3
터키	7	요르단	2	독일	3
파키스탄	6	나이지리아	2	인도	2
쿠웨이트	5	튀니지	2	스리랑카	2
예멘	5	기니아	2	호주/케이먼군도	2
팔레스타인	5	기타 7개국	7	기타 8개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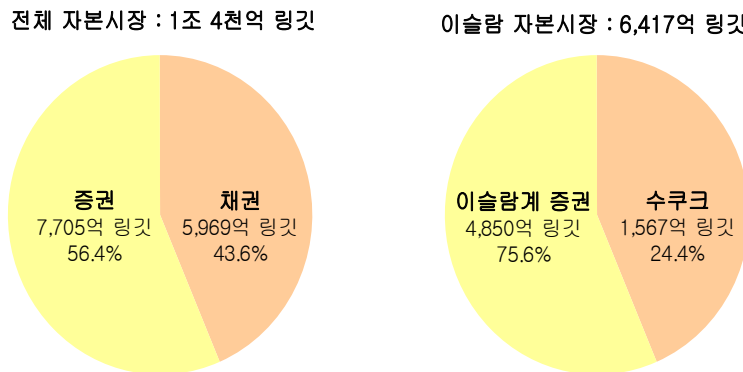
주 : 1) 이슬람국가 30개국 186(35)개, 비이슬람 20개국 85(12)개임.

2) 이슬람국가는 OIC 가맹국이며, ()는 은행 내 이슬람 창구임.

자료 : IIBI, OIC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 규모는 1990년 2천억 링깃에서 2008년 9월 현재 1조 4천억 링깃으로 7배가 급증했다. 이 중 이슬람 금융시장 규모는 6,417억 링깃으로 전체 시장의 약 4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슬람계 증권과 수쿠크 비중은 각각 75.6%와 2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10>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규모 및 이슬람 자본시장 비중



자료 : Nik Ramlah Mahmood(2009)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과 타카풀, 수쿠크, 증권시장 등이 모두 갖추어져 종합 금융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관련법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06년 8월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이슬람 금융 육성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도 잘 알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이슬람 금융 구조로 인해 세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최근 개선된 제도 및 국제이슬람금융센터의 역할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금융의 경쟁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은행산업

1959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은 각종 금융 부문을 감독한다. 중앙은행은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화를 발행하고, 모든 국제 거래에 이용되는 외화를 집중 관리하며,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대출자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1989년에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이 발효되면서 금융 및 신용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예금수취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위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는 2007년 말 현재 22개의 상업은행(13개는 외국계)과 14개의 투자은행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표 IV-53> 말레이시아 내 인가받은 은행기관

	상업은행	투 자 은 행	이슬람 은행
1	ABN AMRO Bank Bhd	Affin Investment Bank Bhd	Affin Islamic Bank Bhd
2	Affin Bank Bhd	Alliance Investment Bank Bhd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 (M) Bhd
3	Alliance Bank Bhd	AmInvestment Bank Bhd	AmIslamic Bank Bhd
4	Ambank (M) Bhd	Aseambankers Malaysia Bhd	Asian Finance Bank Bhd
5	Bangkok Bank Bhd	CIMB Investment Bank Bhd	Bank Islam Malaysia Bhd
6	Bank of America Malaysia Bhd	ECM Libra Investment Bank Bhd	Bank Muamalat Malaysia Bhd
7	Bank of China (M) Bhd	Hwang-DBS Investment Bank Bhd	CIMB Islamic Bank Bhd
8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M) Bhd	KAF Investment Bank Bhd	EONCAP Islamic Bank Bhd
9	CIMB Bank Bhd	Kenanga Investment Bank Bhd	Hong Leong Islamic Bank Bhd
10	Citibank Bhd	MIDF Amanah Investment Bank Bhd	Kuwait Finance House (M) Bhd
11	Deutsche Bank (M) Bhd	MIMB Investment Bank Bhd	Maybank Islamic Bhd
12	EON Bank Bhd	OSK Investment Bank Bhd	RHB ISLAMIC Bank Bhd
13	Hong Leong Bank Bhd	Public Investment Bank Bhd	
14	HSBC Bank Malaysia Bhd	RHB Investment Bank Bhd	
15	J.P. Morgan Chase Bank Bhd		
16	Malayan Banking Bhd		
17	OCBC Bank Bhd		
18	Public Bank Bhd		
19	RHB Bank Bhd		
20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hd		
21	The Bank of Nova Scotia Bhd		
22	United Overseas Bank (M) Bhd		

자료 : Bank Negara Malaysia 홈페이지(www.bnm.gov.my)에서 요약·편집함.

이슬람 전문은행의 설립도 잇따르고 있는데, 1983년에 말레이시아 최초의 이슬람 전문은행인 이슬람말레이시아은행(Bank Islam Malaysia Berhad)이 설립된 이래로 이슬람 은행은 2007년 말 현재 12개(3개는 현지에서 설립된 외

국제 은행)까지 늘어났으며 지점 수 역시 2001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했다.

<표 IV-54>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 수 및 지점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슬람 은행수	2	2	2	2	6	10	12
이슬람 은행 지점수	122	128	132	136	766	1,167	1,271

자료 :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2008)

말레이시아에는 별도의 이슬람 법률과 은행 규정이 전통적인 은행제도와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모든 이슬람 은행들은 이슬람 율법을 토대로 한 은행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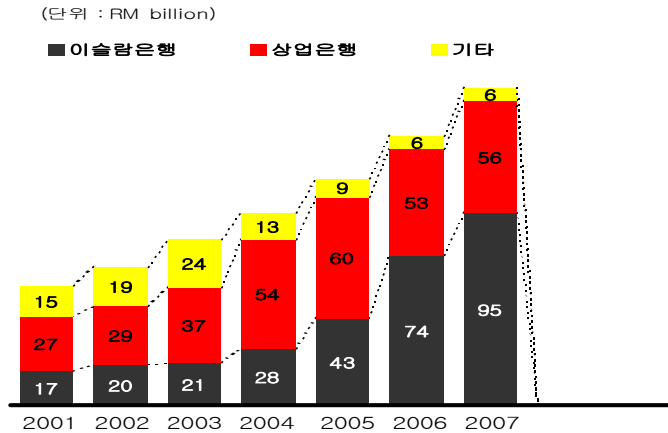
<표 IV-55> 말레이시아 이슬람 은행의 주요 상품

이슬람 율법	설 명	목 적	은행 상품
Al.Wadiah	보증된 보관	예금수취 상품	당좌/저축성 예금
Al Mudharabah	이익분배	투자예치	일반/특수 계좌, PF, 환매조건부 매각계약
Al Murabahah	원가가산	금융설비	운전자본 파이낸싱, 채권, 기업어음(CP)
Bai Bitamin Ajil	연불판매	주택금융	주택대출, 양도성예금증서, 상업재산 파이낸싱, 신용카드, Umrah 파이낸싱
Al Ijarah	리스	리스/차량금융	기계류 리스, 차량금융, 채권
Al.Musyarakah	손익분배	PF	PF, 주식금융, 투자신탁 금융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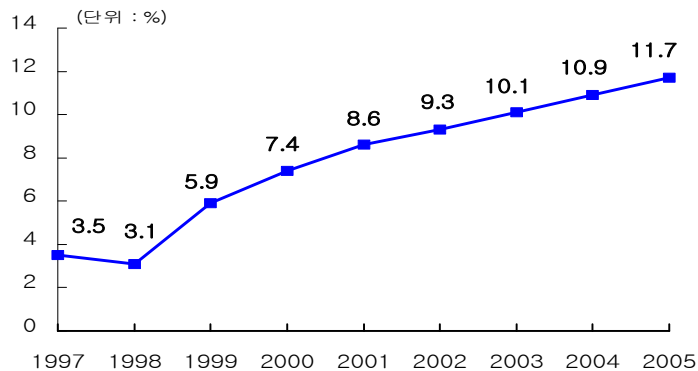
전체 이슬람 은행의 총자산은 2001년 589억 2,900만 링깃에서 2007년 1,571억 2,500만 링깃으로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슬람 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슬람 전문은행 장려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IV-1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자산 추이



자료 :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그림 IV-12> 은행 총자산 대비 이슬람 금융 자산 비율



자료 : Bank Negara Malaysia

1998년 3.1%로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은행 총자산 대비 이슬람 금융 자산 비율 또한 2005년 11.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중인 이슬람 은행 중 대표적인 은행은 쿠웨이트금융원과 메이은행(Maybank), 그리고 CIMB 투자은행이다. 쿠웨이트금융원은 세

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은행으로 지난 2004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첫 번째 외국은행이다. 그리고 메이은행은 2007년 9월 기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CIMB 투자은행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서비스 그룹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투자은행으로 투자은행 최초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락얏은행(Bank Rakyat)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이슬람 공동운용 은행으로 민간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본시장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은 발행 규모 및 건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수쿠크 발행 규모는 1,358억 링깃으로 세계 수쿠크 시장의 약 55%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이미 9월에 1,460억 링깃을 기록하며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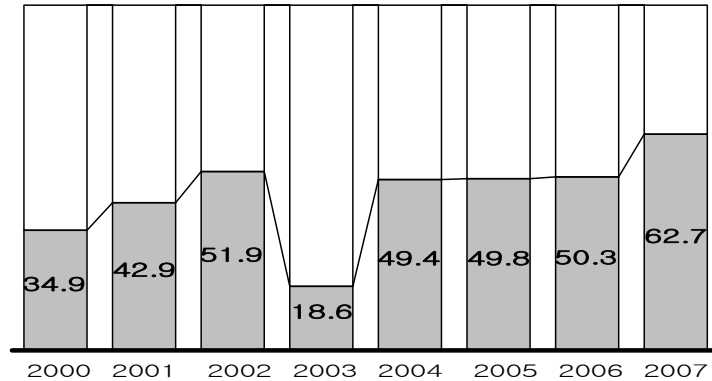
<표 IV-56>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승인된 수쿠크	수쿠크 수(개)	59	36
	수쿠크 규모(10억 링깃)	121.3	24.6
	전체 채권 규모(10억 링깃)	158.8	90.03
	전체 채권 대비 비중	76.4%	27.3%
신규 발행된 수쿠크	수쿠크 규모(10억 링깃)	72.9	37.7
	전체 채권 대비 비중	57.2%	44.9%
유통 중인 수쿠크	수쿠크 규모(10억 링깃)	135.8	146.0
	전체 채권 대비 비중	56%	56%

자료 : Nik Ramlah Mahmood(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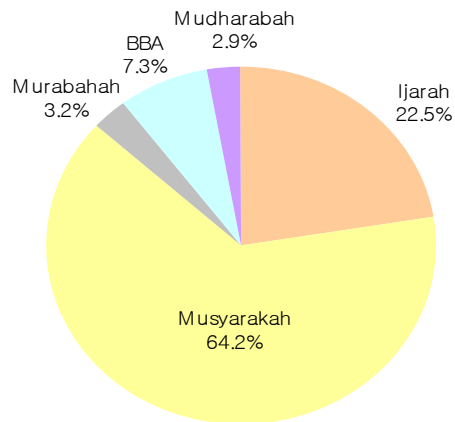
2007년의 발행액은 전년대비 161.2% 증가했으며 사채 발행액의 62.7%를 차지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수쿠크 중에서 무샤라카와 이자라 수쿠크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IV-13> 말레이시아 사채 발행액 중 수쿠크 비중 추이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6~2007)

<그림 IV-14> 말레이시아 수쿠크 종류별 비중



주 : 2008년 1월~9월까지 발행된 총 1,567억 링깃의 수쿠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2008)

말레이시아의 수쿠크 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마스터 플랜에서 수쿠

크 시장 장려 의지를 천명한 한 것 외에도, 국제이슬람금융센터(MIFC) 구상에서는 수쿠크 발행비용의 공제(2010년까지 연장 조치), 이슬람 금융상품인 지세 감면(2006년 9월~2009년 12월), 이슬람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소득세 면세(2007년도 이후) 등 각종 장려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금리수준도 일반채권과 거의 동일하여 거액자금 조달수요가 높다는 장점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동시에 말레이시아가 발행한 링깃화 이외 통화 수쿠크에 대해 원천과세 의무를 면제한 정부 조치 역시 수쿠크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쿠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지원책과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 비이슬람권 금융기관도 말레이시아 수쿠크 시장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과 영국이 대표적 국가들이다.

<표 IV-57> 말레이시아 내 수쿠크를 발행한 외국기업 및 내역

기업명	내역
AEON Credit Services(M) Sdn Bhd	- 2007년 7월 1일, 명목가치 약 1억 2,500만 달러의 은행보증 Islamic Commercial Paper/Medium Term Notes 프로그램 - 일본 기업에 의한 세계 최초의 말레이시아 화폐 이슬람 보험
Tesco Stores(Malaysia) Sdn Bhd	- 2007년 11월 13일, 명목가치 약 10억 9,375만 달러의 Islamic/Conventional CP/MTN 프로그램 - 영국계 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쿠크 발행
Toyota Motor Corporation	- Toyota는 약 3억 1,250만 달러의 수쿠크를 매도했으며, 사업자금과 Toyota 자동차 구매용자를 위해 기금을 이 용함.

자료 : 김현호(2008)

한편, 말레이시아 주식은 말레이시아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샤리아 적격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두 종류의 이슬람 주가지수를 개발하여 서구 및 아시아 뿐 아니라 중동의 기관투자자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증권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펀드 운용사들에 대해 샤리아 원칙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10년간 운용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면

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이슬람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원천 과세 의무도 면제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가지수인 쿠알라룸푸르종합주가지수(KLCI: Kuala Lumpur Compsite Index)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 시작했다. 1998년 초 주가지수인 262.7 대비 약 5배 상승했으며, 전체 주식시장의 자본가치도 3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총선 이후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까지 겹쳐 2008년 12월 26일 현재 867.35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서 샤리아 원칙을 준수하는 이슬람 증권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증권 종류 수는 약 843개로 전체 주식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4,165억 링깃으로 전체 63.6%를 점유하고 있다.

<표 IV-58> 말레이시아 이슬람 증권 시장 규모

내역		규모 및 비중
이슬람 증권 수 ¹⁾		843개(전체 증권 수의 약 85%)
거래 규모	전체 거래 규모	6,553억 링깃
(말잔 기준) ²⁾	이슬람 증권 거래 규모	4,165억 링깃(전체 거래의 약 63.6%)

주 : 1) 2008년 4월 말 기준임.

2) 2008년 10월 말 기준임.

자료 : Nik Ramlah Mahmood(2009)

다.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현황

1) 보험시장

말레이시아의 보험시장은 2007년 현재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88억 2,400만 달러 규모로 이슬람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세계 33위 수준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각각 세계 31위와 4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의 비중이 2002년에 59.6%에서 2007년에 66.7%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명보험 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최근까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투자연동 상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도 최근 3년간 8~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손해보험 시장의 약 44%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약 18%를 차지하는 재물보험이 극심한 가격경쟁의 영향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전체시장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 40.2%에서 2007년에 33.3%로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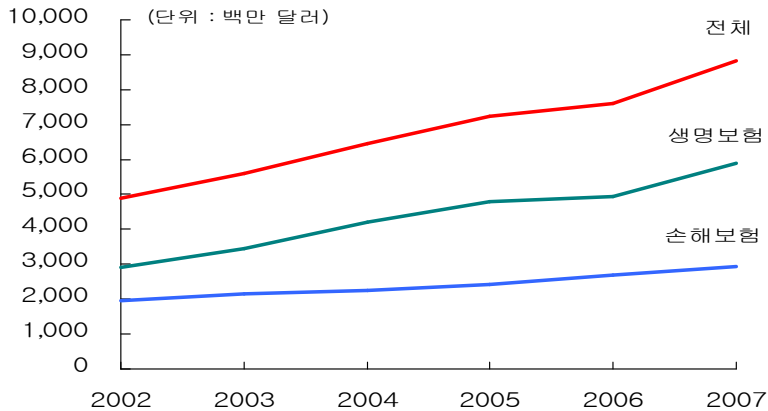
<표 IV-59> 말레이시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2,911	3,455	4,208	4,795	4,932	5,885
손해보험	1,960	2,154	2,245	2,432	2,683	2,939
전체	4,881	5,609	6,453	7,227	7,615	8,824

자료 : Swiss Re

<그림 IV-15>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규모 추이



자료 : Swiss Re

말레이시아의 보험밀도는 세계 44위권인 332달러로 아시아 평균 보다는 높지만 세계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보험침투율도 2007년 현재 4.6%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경제 및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향후 보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60> 말레이시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단위 : 달러, %)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생명보험	221.5	3.1
손해보험	110.6	1.5
전체	332.1(세계 44위)	4.6(세계 32위)
아시아 평균	210.7	6.2
세계 평균	607.7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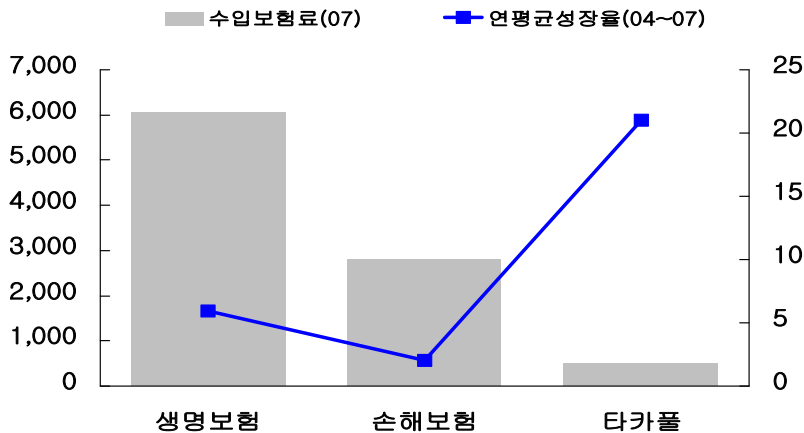
주 : 2007년 말 기준임.
 자료 : Swiss Re(2008/3)

말레이시아에는 2008년 말 현재 41개의 보험회사와 11개의 타카풀회사가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타카풀회사, 금융 시장까지 갖추어진 종합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관련법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 타카풀시장

말레이시아의 타카풀시장은 전세계 타카풀시장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며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1998~2007년의 평균 성장률 약 17%에 달하며, 최근 3년간(2005~2007년)의 성장률 역시 21%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V-16>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규모



자료 : Swiss Re(2008/5)

2007년 말레이시아 타카풀 총수입보험료는 5억 2,600만 달러(25억 5,780만 링깃)로 전년도에 비해 48.6%, 2003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할 만큼 가파

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1인당 타카풀 가입액은 가족 타카풀과 일반타카풀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타카풀(48.4%)과 화재타카풀(27.8%)이 주력인 일반타카풀에 비해 사망보험 위주인 가족타카풀⁴²⁾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타카풀 성장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종교적 이유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는 타카풀 상품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비이슬람교도들의 타카풀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V-61> 말레이시아 타카풀 총수입보험료 추이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입보험료(백만 링깃)	1,014.0	1,123.0	1,333.7	1,720.9	2,557.8
1인당 가족타카풀 가입액(링깃)	30.4	31.0	36.6	46.3	73.2
1인당 일반타카풀 가입액(링깃)	10.0	12.8	13.4	17.9	20.8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8)에서 요약·정리함.

타카풀 총자산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타카풀 총자산은 88억 1,580만 링깃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가족타카풀이 전체 84.4%를 차지하며 타카풀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IV-62> 말레이시아 타카풀 총자산 및 종류별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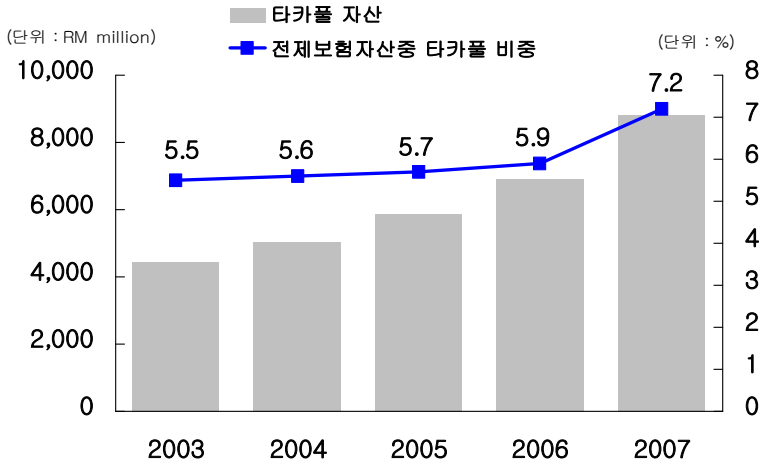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링깃)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족타카풀	3,861.0	4,305.1	5,048.4	5,800.9	7,442.7
일반타카풀	568.1	723.5	830.0	1,098.1	1,373.1
타카풀 총자산	4,429.1	5,028.6	5,878.4	6,899.6	8,815.8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8)에서 요약·정리함.

42) 사망보험 가입자의 90%가 담보대출이 주목적이다.(Swiss Re, No. 5/2008)

<그림 IV-17> 말레이시아 타카풀 자산 및 전체 보험시장 대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8)에서 요약·정리함.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활동하고 있는 타카풀회사는 리타카풀회사 3개사를 포함해서 총 12개사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많은 타카풀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샤리켓타카풀말레이시아(STMB: Syarikat Takaful Malaysia Bhd.)는 1984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에서 최초의 타카풀회사로 처음에는 정부 소유였으나 1996년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민간자본의 회사가 되었으며, 현재 총자산 규모로 세계 2위의 초대형 타카풀회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타카풀회사는 자신들의 금융기관 지점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카타카풀(Bancatakaful)이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20%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나 브로커를 통한 판매가 가지는 직접적인 홍보와 교육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면채널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V-63> 말레이시아 내 인가받은 타카풀회사

구 분	타카풀회사
타카풀사(총 9개)	- CIMB Aviva Takaful Berhad - Etiqa Takaful Berhad - 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l Berhad - HSBC Amanah Takaful (Malaysia) Sendirian Berhad - MAA Takaful Berhad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 -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 Takaful Ikhlas Sendirian Berhad - AIA Takaful International Berhad
리타카풀사(총 3개)	- ACR Retakaful SEA Berhad - MNRB Retakaful Berhad - Munchener Ruckversicherungs-Gesellschaft (Munich Re Retakaful)

자료 : Bank Negara Malaysia(2008)에서 요약·정리함.

<표 IV-64> 세계 타카풀회사 순위(총자산순)

순위	금융기관	국가	총자산(백만\$)
1	Iran Insurance Company	이란	1,516.0
2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말레이시아	1,015.5
3	The Company for Co-operative Insurance	사우디아라비아	733.3
4	Islamic Arab Insurance Company-Salama	UAE	683.8
5	Parisan Insurance Co.	이란	465.7
6	B.E.S.T. Retakaful	튀니지	279.9
7	Al Khaleej Insurance & Reinsurance Co.	카타르	255.9
8	Solidarity Insurance Co.	바레인	227.1
9	Alborz Insurance Co.	이란	189.8
10	Qatar Islamic Insurance Co.	카타르	159.2

자료 : The Banker(2008년 11월호)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말레이시아는 보험을 일반보험과 타카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일반보험은 보험업법(Insurance Act), 타카풀은 타카풀법(Takaful Act)로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1963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금융자문업(FAs: Financial Advisers)의 면허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면서 개정되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Insurance Regulations)을 제정하여 보험업법의 세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 198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T/F팀을 조직하여 타카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84년 말레이시아 의회가 타카풀법(Takaful Act)을 제정한 후, 같은 해 11월 첫번째 타카풀회사인 샤리켓타카풀말레이시아가 설립되었다.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 및 타카풀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외국 및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이슬람은행 및 타카풀회사(International Islamic Bank(IIB) 및 International Takaful Operator(ITO))로 인가함으로써 외국환을 이용하는 모든 이슬람은행업, 타카풀, 리타카풀을 허용하고, 2007년부터 10년간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슬람은행 및 투자은행, 타카풀회사 및 역외은행과 역외 보험회사의 이슬람부분을 대상으로 라부안 현지에서 실제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지 않아도 말레이시아 어느 지역에서나 운영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 및 타카풀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전체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1959년에 중앙은행설치법(Central Bank of Malaya Ordinance)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시아중앙은행(BNM)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바레인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들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의 샤리아 자문위원회는 타카풀 사업과 다른 이슬람 금융영역에 대한 자문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자국내 환경정비는 물론 이슬람권 자본시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국가적 정책목표 하에서 보험시장 기반 및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제 9차 중·단기 말레이시아 경제계획(2006~2010)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은행, 보험부문에 대한 개방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자국을 국제적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타카풀회사에게는 2008년부터 타카풀사업비 및 이익을 조세부과에서 공제조항으로 취급하는 조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말레이시아의 국제적 이슬람허브 목표는 2001년 금융부문 마스터 플랜에 명시되었고, 타카풀은 이 계획의 중요 사업과제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말레이시아의 타카풀시장에 있어서 진입장벽은 일반보험의 진입장벽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타카풀회사 및 지점설립에 대한 납입자본은 일반보험회사의 1/10 수준이며, 더욱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규 타카풀 사업자에게는 우호적인 면세조치와 같은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의 60% 정도가 이슬람교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말레이시아에서의 타카풀 보험시장 성장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 보험과 타카풀 보험영역에서 RBC 제도를 2008~2009년에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7. 인도네시아

가. 경제 현황

1) 국내경제

인도네시아는 2007년 민간소비의 확대, 투자 증가, 수출의 견실한 증가 등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인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석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한 국내수요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 유가 안정 및 루피아화 강세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

년 6.4%로 안정되었으나, 2008년 식료품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4%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초 목표인 4~6%를 상회함에 따라 2008년 10월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기준금리를 9.5%로 0.25%p 인상함으로써 한 해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총 1.50%p의 금리를 인상하였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4년 이후 1%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7년에도 -1.3%를 기록하였다. 2008년 5월 정부가 연료 가격을 평균 28.7% 인상하고 유류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예산 부담이 경감되었고,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2008년에도 1%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65> 인도네시아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경제성장률	5.0	5.7	5.5	6.3	6.1
GDP(억달러)	2,568	2,859	3,646	4,328	5,067
1인당 GDP(달러)	1,140	1,250	1,570	1,840	2,150
재정수지/GDP	-1.1	-0.2	-1.0	-1.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6.1	10.5	13.1	6.4	10.4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2) 대외거래

2007년도에는 주요 수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유가 상승 및 제조업 부문의 기계류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증가폭이 감소되었다. 2008년 세계 원유가격 급등 및 국내 연료소비 증가로 인하여 상품수지 흑자폭이 전년도 327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익 및 배당 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소득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여 2008년 경상수지는 전년도 104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국인투자는 2007년 2/4분기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하게 유입되어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총외채잔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5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외채잔액/GDP는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로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루피하화의 평가절하로 외채상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어서 외채상환 스케줄을 감안할 때 유동성은 당분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66> 인도네시아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경제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E)
환율(Rp/\$, 연중)	8,939	9,705	9,159	9,143	9,235
경상수지	1,562	275	10,837	10,365	2,501
상품수지	20,152	17,532	29,661	32,718	26,924
수출	70,766	86,995	103,528	118,014	143,156
수입	50,615	69,463	73,867	85,296	116,232
서비스수지	-8,811	-9,123	-9,887	-11,102	-13,488
자본수지	-667	-2,253	-644	-1,251	-
외환보유액	34,952	33,140	41,103	54,976	52,894
총외채잔액	139,402	130,709	130,956	140,023	150,997
총외채잔액/GDP	54.3	45.7	35.9	32.3	29.8
D.S.R.	24.1	22.4	19.5	15.8	18.4

주 : 2008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3) 경제구조 및 주요 경제정책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과 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경기가 호황국면을 지

속하더라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경우 경제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전력 생산의 효율성 및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열악해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종족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아체(Aceh)와 파푸아(Papua)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분리독립 움직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V-67>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산 업 명	구성 비율
제조업	46.7
서비스업	39.4
농림수산업	13.9
계	100.0

주 : 2007년 기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8)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으로 가장 오랜 석유생산 역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많은 유전들이 매장량 고갈과 재투자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잔여 확인 매장량 역시 약 43억 배럴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생산량은 OPEC 쿼터를 밑돌았으며 2004년에는 처음으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Summit) 개최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활

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외국인 투자 실적은 983건 103억 4,660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 외국인 투자 실적을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에 들어서도 상반기 투자규모가 이미 2007년 연간 실적인 544건에 103억 8,06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68>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실적

	2007년도 투자 내역
투자건수	983건(전년도 867건 대비 13.4% 증가)
투자규모	103억 4,660만 달러(전년도 59억 9,700만 달러 대비 72.5% 증가)
주요 투자업종 (건수/금액)	- 교통 및 운송보관(16건/66억 4,780만 달러) - 금속기계 및 전자(56건/5억 4,330만 달러) - 자동차 및 수송기계(21건/4억 6,580만 달러) - 화학 및 제약(18건/4억 4,100만 달러)
투자국가 (건수/금액)	- 모리셔스(3건/64억 7,690만 달러) - 싱가포르(82건/9억 1,320만 달러) - 일본(68건/8억 8,260만 달러) - 말레이시아(33건/2억 2,990만 달러) - 독일(10건/1억 5,180만 달러)

주 : 금융 및 석유가스분야는 투자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 BKPM, KOTRA

나. 금융시장 현황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부터 이슬람 금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슬람 금융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최근 수쿠크와 샤리아 은행에 관한 법률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S&P는 인도네시아를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표 IV-69> 세계 이슬람 금융 잠재시장 규모

지역 및 국명	이슬람 교도수 (백만명)	순위	1인당 소득 (달러)	GDP (10억달러)	가중치 ⁴⁾ (%)	잠재이슬람 금융시장 (10억 달러)	조정후 순위
인도네시아	229	1	3,580	820	75	615	1
파키스탄	158	2	2,180	344	50	712	1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1	3	850	128	50	64	15
북아프리카	145	4	3,100	450	75	337	5
인도	142	5	2,900	412	75	309	7
방글라데시	129	6	1,300	168	50	84	13
중앙아시아 ¹⁾	96	7	5,250	504	50	252	8
터키	71	8	7,890	560	75	420	4
이란	63	9	6,900	435	75	326	6
아라비아반도	55	10	12,480	686	75	515	2
레반트 지역 ²⁾	57	11	2,000	114	50	57	16
러시아	22	12	9,870	217	75	163	11
중국	18	13	5,080	91	75	69	14
유럽 ³⁾	15	14	31,250	469	100	469	3
말레이시아	14	15	9,500	133	75	100	12
미국	6	16	39,500	237	100	237	9
총계/평균	1,371			5,768	70	4,188	

주 : 1) 파키스탄은 제외함.

2) 동부 지중해 연안 국가(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및 이라크 등)

3) 발칸반도 국가들을 포함함.

4) 개도국은 50%, 경제 신흥국은 75%, 선진국은 100%의 가중치로 산정함.

자료 : S&P(2006)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은 1995년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정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증권업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총자산은 2천 64조 루피아로 전

년대비 16.6%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산업 총자산 중 은행산업이 82.1%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보험, 연금, 리스, 벤처 캐피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은행산업과 연금 및 벤처 캐피털 산업의 비중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보험업과 종합금융산업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70>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구조 추이

(단위 : 조 루피아)

금융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자산	비중	자산	비중	자산	비중	자산	비중	자산	비중
은행업	1,213.5	85.9	1,272.1	82.9	1,469.8	83.1	1,693.9	82.1	1,986.5	-
보험업	94.1	6.7	119.9	7.8	131.2	7.4	174.9	8.5	-	-
종합금융업	50.1	3.5	78.9	5.1	96.5	5.5	108.9	5.3	127.3	-
연금업	49.64	3.5	57.83	3.8	63.98	3.6	77.53	3.8	-	-
저당업	2.7	0.2	3.5	0.2	4.8	0.3	6.0	0.3	7.4	-
벤처 캐피탈업	2.3	0.2	2.4	0.2	2.9	0.2	2.4	0.1	-	-
총 계	1,412.3	100	1,534.6	100	1,769.3	100	2,063.6	100	-	-

자료 : Bank Indonesia(2008)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수쿠크를 발행하거나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샤리아 बैं킹사업을 벌이도록 장려하는 법률을 이미 통과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샤리아 금융제도를 도입한 상태이다. 새로 제정된 인도네시아 샤리아은행법 하에서 모든 샤리아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을 통해 샤리아국가 위원회(DS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형태의 샤리아제도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이다.

1) 은행산업

인도네시아중앙은행과 정부의 규제완화로 1983년부터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의 인출 사태 등의 유동성 부족과 같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도네시아은행구조조정청(Indonesian Banking Restructuring Agency)을 설립해 은행업계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⁴³⁾ 이후 1996년 239개에 달하던 은행 수는 2000년 151개로, 최근 130개까지 감소되었으며, 민간은행은 1996년 164개에서 2007년에는 57%가 감소한 71개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표 IV-71> 인도네시아 은행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은행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영은행	7	7	5	5	5	5	5	5	5	5
지역개발은행	27	27	26	26	26	26	26	26	26	26
국립민간은행	164	130	81	80	76	76	72	71	71	71
합작벤처은행 &외자계은행	41	44	39	34	34	31	30	29	28	28
총 은행수	239	208	151	145	141	138	133	131	130	130
총 지점수	5,919	6,254	5,379	6,765	7,001	7,730	7,939	8,236	9,110	9,680

주 : 연말기준

자료 : Bank Indonesia(2008)

만디리은행(BMRI: Bank Mandiri Tbk), 중앙아시아은행(BBCA: Bank Central Asia Tbk), 네가라 인도네시아은행(BBNI: Bank Negara Indonesia

43)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04년 1월 'Indonesian Banking Architecture Law'을 제정하여 최소자본과 영업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주축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은행인수 및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Tbk), 락얏은행(BBRI: Bank Rakyat Indonesia Tbk), 다나몬은행(BDMN: Bank Danamon Tbk) 등 인도네시아의 5대 은행은 전체 자산총액의 50.4%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표 IV-72> 인도네시아 주요 은행의 자산·대출·예금 변화 추이

(단위 : 조 루피아)

은행	2005			2006			2007		
	자산	대출	예금	자산	대출	예금	자산	대출	예금
BMRI	255.3	100.8	198.9	256.0	108.5	197.4	306.6	125.3	235.3
BBCA	150.7	54.1	129.6	177.6	61.5	152.7	218.6	82.5	189.2
BBNI	123.1	75.4	96.9	155.0	90.3	124.7	204.0	114.4	165.5
BBRI	150.6	62.4	116.0	168.9	66.5	135.9	184.5	87.8	145.4
BDMN	66.8	35.9	44.4	79.7	41.1	54.4	86.7	51.1	58.0
5대은행계	746.5	328.5	585.8	837.1	367.9	665.1	1000.3	461.0	793.4
은행업 총계	1,469.8	695.7	1,127.9	1,693.9	792.3	1,287.1	1,986.5	1,002.0	1,511.2
5대은행비중	50.8%	47.2%	51.9%	49.4%	46.4%	51.7%	50.4%	46.0%	52.5%

자료 : Bank Indonesia(2008)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부유한 자바섬 지역이 은행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예금과 대출의 50% 정도가 자바섬의 자카르타특별구(DKI Jakarta)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자카르타 특별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중앙정부가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73> 인도네시아 지역별 은행 및 대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조 루피아)

	예금			대출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자바	77.3	74.4	74.7	77.3	76.5	76.1
자카르타 특별구	52.0	48.2	49.7	51.0	50.0	50.6
수마트라	12.4	13.9	13.6	12.1	12.8	50.6
칼리만탄	4.1	4.6	4.5	3.4	3.5	3.5
슬라웨시	2.9	2.9	2.9	3.5	3.7	3.8
기타지역	3.4	4.2	4.3	3.6	3.6	3.6
총금액	1,127.9	1,287.1	1,510.8	695.6	792.3	1,001.7

자료 : Bank Indonesia(2008)

1998년에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이슬람 금융 지점 설립이 허가되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은행 지점을 설치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샤리아서민신용금고(Bank Perkreditan Rakyat Syariah)나 샤리아촌락금융조합(Baitul Maai wat Tamwil)으로 불리는 소규모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금융 시스템 규제와 감독 및 외환관리 등을 책임지며 중앙정부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자본시장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동남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향후 세계 최대의 수쿠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이미 20여 종류의 수쿠크를 발행한 상태이나, 앞으로 기업 수쿠크법이나 조세 중립성이 담보된다면 수쿠크 발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수쿠크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는 많은 공·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쿠크를 발행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쿠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채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세의 중립성이나 거래비용의 중립성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

루어져 전통적인 이윤창출형 리바 채권 대신 기업이 수쿠크를 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증권거래는 1952년에 개장하여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로 개명한 자카르타 증권거래소(JSX)에서 거래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수는 2002년 331개에서 2008년 1분기 현재에는 387개로 대폭 증가했다. 유통되는 주식수와 거래량 및 1일 거래량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외형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74> 인도네시아의 증권 거래 추이

(단위 : 개, 백만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Q1
상장기업수	331	333	331	336	344	383	387
주식수	939,545	829,360	656,447	712,985	924,489	1,128,174	1,271,618
신규상장기업수	22	6	12	8	12	22	6
상장폐지기업수	7	4	15	3	4	8	2
거래량	171,207	234,031	411,768	401,868	436,936	1,039,542	196,021
1일거래량	699	967	1,709	1,654	1,806	4,226	3,439
외국인순매수량 ¹⁾	2,781	9,524	23,946	27,938	25,451	38,170	-529
JCI ²⁾ 최고지수	551.607	693.033	1,004.430	1,192.203	1,805.523	2,810.962	2,830.263
JCI ²⁾ 최저지수	337.475	379.351	668.477	994.770	1,171.709	1,678.044	2,294.524
연말종가	424.945	691.895	1,000.233	1,162.635	1,805.523	2,745.826	2,447.299

주 : 1) 외국인순매수량 = 외국인매수량 - 외국인매도량

2) 자카르타 종합지수(Jakarta Composite Index)

자료 : Indonesia Stock Exchange(IDX)

특히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집중 투자하면서 2007년 외국인 순매수량은 2002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상위 10개사의 시가총액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거래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수의 종목에의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

자는 기관투자자이며 개인투자자는 전체 거래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최근의 규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주식매매 및 장외시장을 포함하는 주식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변동성 역시 증가했다. 여기에 작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해졌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성장이 당초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아직 성장의 여지가 더 남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0.1%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투자자수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주식 및 자본시장은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펀드나 주식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보험시장 및 타카폴시장 현황

1) 보험시장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은 2007년 말 기준 약 69억 달러로 이슬람 국가 중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엄청난 인구수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이다.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연금의 건조한 상승세에 힘입어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물가불안과 보험료 인하 가격경쟁, 휘발유 보조금 삭감으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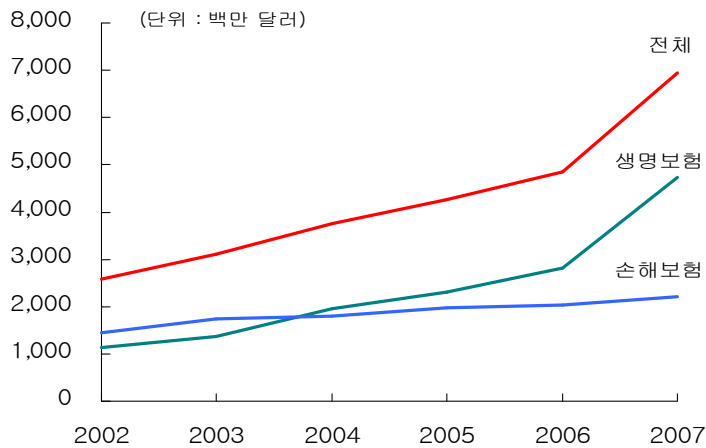
<표 IV-75> 인도네시아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보험	1,140	1,373	1,955	2,303	2,820	4,728
손해보험	1,439	1,733	1,792	1,968	2,025	2,210
전 체	2,579	3,107	3,747	4,271	4,846	6,938

자료 : Swiss Re

<그림 IV-18>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규모 추이



자료 : Swiss Re

인도네시아의 보험밀도는 2007년 기준으로 약 30달러로 세계 최하위권(79위)이다. 이는 많은 수입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보험침투율 역시 1.6%에 불과해 인도네시아 보험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76> 인도네시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

(단위 : 달러, %)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생명보험	20.4	1.1
손해보험	9.5	0.5
전체	29.9(세계 79위)	1.6(세계 32위)
아시아 평균	210.7	6.2
세계 평균	607.7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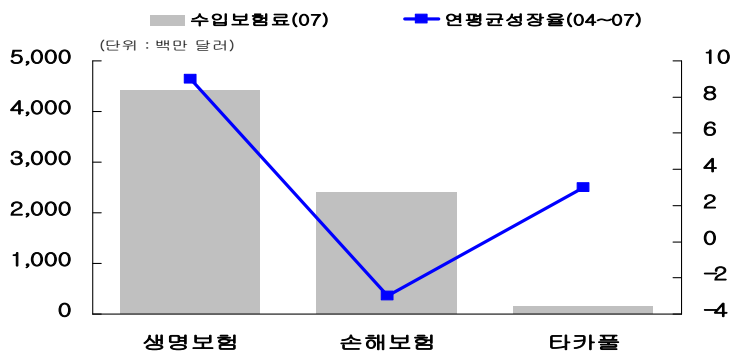
주 : 2007년 말 기준임.

자료 : Swiss Re(2008/3)

2) 타카풀시장

인도네시아의 타카풀시장은 2006년 5,600만 달러에서 2007년 1억 5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타카풀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타카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2015년에는 타카풀시장 규모가 최대 1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IV-19> 인도네시아 보험시장 및 타카풀시장 규모



자료 : Swiss Re(2008/5)

<표 IV-77> 인도네시아 타카풀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십억 루피아)

구 분		타카풀		전체보험시장
		금액	점유율	
가족타카풀	2006년 12월	282.1	0.96%	29,197.8
	2007년 9월	292.3	0.89%	32,951.6
일반타카풀	2006년 12월	216.9	1.21%	17,917.7
	2007년 9월	369.5	2.55%	14,507.4

자료 : IDIC(2008)

2008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보험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3개의 타카풀 전문회사들과 35개 일반 보험회사들이 타카풀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표 IV-78> 인도네시아 타카풀회사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7년 말 기준
타카풀 전문 보험사	Family Takaful	2
	General Takaful	1
일반 보험사	Family Takaful 사업부	13
	General Takaful 사업부	19
	재보험사의 Takaful 사업부	3
합 계		38

자료 : IDIC(2008)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방카타카풀이 주요 판매채널이지만 브로커와 설계사들을 통한 판매채널이 점차 선호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을 통한 대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브로커와 설계사가 효과적인 판매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타카풀은 단체보험보다는 개인

보험에 유용하며 규격화된 가족타카풀 판매에서는 이미 확고한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인도네시아에는 특히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푸르덴셜의 경우,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도 소비자 점유율이 초기 26%에서 37%(2007년)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장 가능성이 큰 농촌으로의 영업 지역 확장 전략과 샤리아 연계 투자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한 덕분이었다. 푸르덴셜은 인도네시아의 투자상품 중 타카풀 상품들의 마진이 기존의 상품들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리안츠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MICRO 보험과 밀접한 타카풀의 손해보험상품과 가족상품을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보험 관련 제도 및 감독 구조

인도네시아의 보험산업은 보험업법으로 규제받고 있지만 타카풀 관련 법률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1992년 설립된 재무부 보험감독국(Ministry Bureau of Insurance)이 보험산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보험감독청(Directorate of Insurance)으로 이관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법규에 따라 국영업체, 유한회사, 상호회사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타카풀 또는 샤리아원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상호회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카풀 발전에 중립적 위치를 취하고 있으며, 타카풀회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와는 달리 타카풀회사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반 보험회사와 같이 타카풀회사는 RBC에 근거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 보험회사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타카풀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타카풀에 대한 회계는 일반보험과 구분되어야 하며, 타카풀회사의 경우에는 샤리아 준수 금융상품에 대한 진위를 판결할 샤리아위원회 중 1인 이상을 상임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V. 다국적 보험회사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1. AIG 타카풀-에나야

가. 진출 배경 및 과정

AIG는 타카풀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미래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6년 7월 바레인중앙은행으로부터 AIG 타카풀회사의 설립허가를 받고, 동년 10월에 100% 출자한 AIG 타카풀-에나야(AIG Takaful-Enaya B.S.C.)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AIG가 바레인에 타카풀회사를 설립한 것은 바레인을 중동지역 타카풀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그 이유로는 바레인 타카풀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바레인 정부가 시장 친화적 정책 및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받는 금융관리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바레인 정부 또한 진출 당시 자산규모로 세계 최대의 보험그룹이었던 AIG의 보험 및 금융 상품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바레인에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IG 타카풀-에나야는 상해타카풀, 에너지타카풀, 건강타카풀, 자동차타카풀 등 다양한 타카풀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쟁 타카풀회사들이 가족타카풀과 일반타카풀 모두를 취급하는 것에 비해서 AIG 타카풀-에나야는 일반타카풀 상품으로 한정하고, 특히 에너지타카풀과 같은 독창적이면서도 향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차별화 및 집중화 전략으로 신생 타카풀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AIG 타카풀-에나야는 2007년 7월에 최고 타카풀회사에게 주어지는 세계타카풀어워드(The International Takaful Award)에서 최고 영예인 베스트 타카풀기업상(Best Takaful Company)을 수상함으로써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타카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매출 현황

바레인 타카풀시장은 1989년에 설립되어 타카풀회사로서는 비교적 긴 20년의 역사를 가진 타카풀인터내셔널(Takaful International)과 타카풀 전문그룹 솔리더리티(Solidarity)가 바레인의 타카풀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AIG 타카풀-에나야의 시장 점유율은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약 2.3%에 불과하지만, 경쟁사들 모두가 모기업이 중동이라는 점과 AIG 타카풀-에나야가 설립된 지 3년이 채 안된 신생회사라는 점, 그리고 중동에서 기피국가인 미국계 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진출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현재 AIG 타카풀-에나야는 가족타카풀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레인과 중동의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생명보험 혹은 가족타카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일반타카풀 중 주로 배상책임과 자동차, 화재 및 재해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타카풀의 경우 경쟁사인 타카풀인터내셔널과 솔리더리티는 총수입보험료에서 각각 42%와 2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AIG 타카풀-에나야는 상대적으로 자동차타카풀의 판매가 전체의 13.6%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가족타카풀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반타카풀시장에만 집중하는 현재 전략이 향후에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AIG 타카풀-에나의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표 V-1> AIG 타카풀-에나야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종 목	년도	AIG 타카풀-에나야	Takaful International	Solidarity	합계
가족타카풀	2007	0	789	452	1,241
	2006	0	364	23	387
화재타카풀	2007	27	1,673	451	2,151
	2006	0	739	384	1,123
재물타카풀	2007	11	0	0	11
	2006	0	0	0	0
상해타카풀	2007	38	0	0	38
	2006	0	0	0	0
해상타카풀	2007	2	186	127	315
	2006	0	171	246	417
항공타카풀	2007	0	117	0	117
	2006	0	170	0	170
자동차타카풀	2007	49	3,877	1,531	5,457
	2006	0	3,075	778	3,853
기술타카풀	2007	2	500	750	1,252
	2006	0	196	1,094	1,290
재해타카풀	2007	104	0	264	368
	2006	0	0	127	127
건강타카풀	2007	0	1,558	1,747	3,305
	2006	0	820	843	1,663
기타	2007	127	486	862	1,475
	2006	0	213	694	907
합 계	2007	360	9,186	6,184	15,730
	2006	0	5,748	4,189	9,937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표 V-2> AIG 타카풀-에나야 종목별 판매 건수

(단위 : 건)

종 목	년도	AIG 타카풀-에나야	Takaful International	Solidarity	합계
가족타카풀	2007	0	244	660	904
	2006	0	45	136	181
화재타카풀	2007	1	2,191	1,027	3,219
	2006	0	1,624	1,071	2,695
재물타카풀	2007	17	0	0	17
	2006	0	0	0	0
상해타카풀	2007	6	0	0	6
	2006	0	0	0	0
해상타카풀	2007	5	1,485	1,626	3,116
	2006	0	1,359	1,612	2,971
항공타카풀	2007	0	1	0	1
	2006	0	1	0	1
자동차타카풀	2007	278	24,587	6,401	31,266
	2006	0	21,485	2,299	23,788
기술타카풀	2007	4	234	72	310
	2006	0	138	78	216
재해타카풀	2007	25	0	211	236
	2006	0	0	69	69
건강타카풀	2007	0	32	37	69
	2006	0	26	18	44
기 타	2007	278	276	68	622
	2006	0	292	145	437
합 계	2007	614	29,050	10,102	39,766
	2006	0	24,974	5,428	30,402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이와 같이 사실상 2007년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한 AIG 타카풀-에나야가 비록 경쟁사에 비해 매출규모는 작지만, 경영 첫 해 7천 바레인 디나르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2위사인 솔리더리티(Solidarity)가 107만 9천

디나르의 적지 않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V-3> AIG 타카풀-에나야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 바레인 디나르)

구 분	AIG 타카풀-에나야	Takaful International	Solidarity
총수입보험료	360	9,186	6,184
지급보험금	1	5,507	2,516
영업이익	69	4,328	2,261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	51	1,622	74
당기순이익	7	251	-1,079

주 : 2007년도 기준임.

자료 : Central Bank of Bahrain(2008)

다. 판매 상품

AIG 타카풀-에나야가 판매하는 상품은 상해 및 건강타카풀, 자동차타카풀, 재해타카풀, 에너지타카풀, 해상타카풀, 재물타카풀 등이다. 재해타카풀은 업무중 상해와 배상책임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주로 근로자재해(Workmen's Compensation), 산재보험(Employer's Liability), 공공배상(Public Liability)을 담보한다. 에너지타카풀은 유전, 공장 등의 시설 및 공장, 화재, 파업 과 관련된 담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상타카풀은 화물과 관련된 수입 및 수출, 그리고 인프라 시설의 국가간 이동 및 운용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한다. 표준화된 재물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재물타카풀은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과 파업 및 테러(Sabotage and Terrorism)를 담보(1억 달러 한도)하는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V-4> AIG 타카풀-에나야 상해 및 건강타카풀 담보 주요 내용

담 보	주요 내용
여행	패키지로 사망, 질병 및 상해, 의료비용, 긴급비용 등을 담보
단체상해 (Group Personal Accident)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상해사망 및 부상과 관련된 비용을 담보
학교단체상해(School Group Personal Accident)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타카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상해발생시 관련된 비용을 담보
가족상해(Family Personal Accident Plan)	상해사망 또는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교육 (Education Protection Plan)	부모의 영구장해 또는 사망시에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특정시점에 월별 보험금 지급
중대질병 또는 상해 (Critical Care)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일시금 지급
입원(Hospital Cash Plan)	다른 보험담보에 추가하여 입원시 일당 특정급부를 제공하며,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보통 365일 보장

자료 : AIG Takaful-Enaya B.S.C.(2008)

라. 중장기 전략

AIG가 타카풀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시장으로서 타카풀시장이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전통적 보험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이슬람 금융 및 타카풀이 비교적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덜 받으며 향후에도 견조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기업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한 AIG는 바레인의 타카풀시장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지만, 결코 바레인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것은 아니다. 오일머니 유입으로 당분간 중동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

상하고 이에 이슬람 금융과 타카풀 사업의 성장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포석이라고 판단된다. UAE와 더불어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레인에 AIG 최초의 타카풀 자회사를 설립하여 단기적으로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타카풀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이 설립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AIG 타카풀-에나야는 언론을 통해 중동의 타카풀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시현한 후, 조만간 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모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개척 시장으로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푸르덴셜 BSN 타카풀

가. 진출 배경 및 과정

푸르덴셜 BSN 타카풀(Prudential BSN Takaful Berhad)은 2006년 8월 말레이시아 심파난국립은행(BSN: Bank Simpanan Nasional)과 영국의 푸르덴셜홀딩스(Prudential Holdings)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으로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한 타카풀 전문기업이다. 1848년에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사업을 시작한 푸르덴셜홀딩스는 전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 지점을 둔 글로벌 금융그룹이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80년 전에 진출하여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심파난국립은행은 1974년 설립되어 현재 총 5,100명의 임직원들이 전국 400여 개에 달하는 지점을 통하여 약 9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요 은행 중 하나이다.

푸르덴셜 BSN 타카풀 역시 AIG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타카풀시장에서 신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아시아 및 이슬람 금융 허브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과 천만 명 가까이 되는 심파난국립은행의 고객을 주 타깃 고객으로 하는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푸르덴셜 BSN 타카풀은 푸르덴셜의 대리점 등 판매채널의 강점과 심파난국립은행의 긍정적인 기업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짧은 설립역사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나. 매출 현황

합작사 설립 후인 2006년 1,935만 링깃을 기록한 가족타카풀의 영업수익은 불과 1년 만에 7,989만 링깃으로 4배 증가했다. 일반타카풀 영업수익은 가족타카풀 보다 적은 519만 링깃을 기록했는데, 그 중 화재타카풀은 274만 링깃, 자동차타카풀 24만 링깃, 기타 221만 링깃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가족타카풀은 4,412만 링깃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에 반면 일반타카풀은 128만 링깃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표 V -5>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가족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 링깃)

구 분	2006(7.12~12.31)	2007
영업수익	19,350	79,894
지급보험금	-	13,088
세금	-	45
당기순이익	17,912	44,119

자료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2008)

<표 V -6>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일반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 링깃)

구 분		2007
영업수입	화재타카풀	2,737
	자동차타카풀	238
	기타	2,213
	합 계	5,188
지급보험금		728
세금		195
당기순이익		-1,278

자료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2008)

다. 판매 상품

푸르덴셜 BSN 타카풀 상품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와칼라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있다. 와칼라모델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각출금(보험료)을 기초로 하여 공유펀드(shared fund)를 만드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보험금 지급은 사망, 장애 또는 사고시에 공유펀드에서 지급된다. 가입자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각출금을 펀드에 불입하고 사후에 필요시 사용한다.

푸르덴셜 BSN 타카풀은 대리점을 통해서는 가족타카풀의 주력 상품인 변액타카풀과 저축타카풀을 주로 판매하며, 은행 지점을 통해서는 신용타카풀, 교육타카풀, 상해타카풀을 판매하고 있다.

<표 V -7> 푸르덴셜 BSN 타카풀의 판매상품 현황

구 분		상 품명
대리점	가족타카풀	변액타카풀(Takafulink), 저축타카풀(Takaful Saver)
	일반타카풀	상해타카풀(Takaful Perindung), 재물타카풀(Takaful Rumahku)
방카 타카풀	가족타카풀	신용타카풀(PruBSN Kasih), 교육타카풀(PruBSN Impian)
	일반타카풀	상해타카풀(PruBSN Perindung)

자료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2008)

가족타카풀 중 변액타카풀은 사망담보 및 영구장애담보가 기본계약으로 구성된다. 다시 사망담보는 적립금액(Participant's Unit Account)과 보충금액(Individual Special Account)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약으로 상해사망, 장해, 의료비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변액타카풀의 펀드할당비율의 경우, 다양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보험기간 동안 저축에 대한 계약자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표 V-8> 변액타카풀(Takafullink) 펀드 할당 비율

보험기간	1년	2년	3년	4년	5~6년	7년 이상
할당비율	40%	50%	65%	70%	90%	100%

자료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2008)

<표 V-9> 변액타카풀(Takafullink) 수수료(Wakalah Charge)

구 분	내 용
Takafulink Dana Bon	연보험료의 0.5%
Takafulink Dana Ekuiti	매년 1.5%
Takafulink Dana Urus	매년 1.3%

자료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2008)

일반타카풀 중 상해타카풀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 계약으로 가입은 18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하며, 갱신형의 경우에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급부금액은 100만 링깃으로 상해사망 및 영구장해가 기본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타카풀은 상해사망 및 영구장해의 경우 성인계약의 20%까지 가능하며 기타 담보는 100%까지 가능하다.

라. 중장기 전략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자국회사 뿐만 아니라 2006년 한해만도 푸르덴셜

BSN 타카풀을 포함해 4개 타카풀회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만큼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타카풀시장에 진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푸르덴셜 BSN 타카풀이 내세우는 전략은 우선 160년 역사와 말레이시아에서만 80년의 전통을 가진 푸르덴셜이라고 하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말레이시아 최고 은행 중 하나인 심파난국립은행의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 타카풀회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변액타카풀 중심의 가족타카풀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샤리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중동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샤리아 원칙을 적용하는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 특성을 심분 고려하여, 국제 수준의 투자연계 상품 개발과 푸르덴셜의 금융 노하우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CI(critical illness) 및 건강타카풀 상품과 같은 질병 관련 상품판매에도 매진하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식하락으로 투자형 상품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푸르덴셜홀딩스와 심파난국립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7천개가 넘는 대리점과 전국 400여 개의 지점들이 판매채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신생 푸르덴셜 BSN 타카풀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이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의 심화로 골치를 앓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전국에 산재된 보험대리점과 은행지점들을 통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타카풀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푸르덴셜 BSN 타카풀은 바로 상품개발 및 경영 노하우가 있는 다수의 외국계 보험회사가 타카풀시장 진출시 왜 현지 은행간의 합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홍콩토쿄해상타카풀

가. 진출 배경 및 과정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기업인 토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은 2001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타카풀 사업을 하

고 있을 만큼 일본 금융기관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타카풀에 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다.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타카풀 사업 확대를 목표로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그룹 중 하나인 홍콩그룹(Hong Leong Group)과 제휴하여 합작사인 홍콩토쿄해상타카풀(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 Berhad)을 설립하여 2006년 11월 3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표 V-10> 홍콩토쿄해상타카풀 설립 개요

구 분	내 용
사명	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 Berhad
본사 주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자본금	1억 링깃
출자자(출자비율)	Hong Leong Bank Berhad(55%),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35%), Hong Leong Assurance Berhad(10%)
대표자	Ezamshah Ismail(말레이시아 생명보험협회 회장)
종업원 수	18명(개업일 기준)
설립일	2006년 6월 19일
영업 개시일	2006년 11월 30일
취급 상품	가족 타카풀 및 일반 타카풀

자료 : HLTMT(2008)

파트너 회사인 홍콩그룹은 건축, 금융, 부동산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화교 그룹으로 금융 자회사로는 상업은행(자산 규모로 말레이시아내 5위), 보험회사(수입보험료 규모 7~8위권), 홍콩이슬람은행(Hong Leong Islamic Bank) 등을 거느리고 있다.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홍콩그룹 산하의 이슬람 은행 영업망(186개 지점)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인 대리점망 구축을 통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나. 매출 현황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진출 첫해인 FY2007(2006년 7월~2007년 6월) -268만 3천 링깃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FY2008(2007년 7월~2008년 6

월)에는 27만 3천 링깃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788만 9천 링깃이었던 FY2007 영업수익이 연이어 출시한 상품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FY2008에는 약 21배가 증가한 1억 7,470만 5천 링깃으로 급증한 덕분이었다. 이 영업수익은 말레이시아 타카풀 전체 시장에서 3위에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신설 보험회사가 흑자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성장세이다. 또한 판매상품 대부분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과 자동차 대출과 연계된 상품들이어서 판매채널 비용 및 아웃소싱을 통한 사무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표 V-11>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의 당기순이익 및 영업수익

(단위 : 천 링깃)

구 분	FY07(2006.7~2007.6)	FY08(2007.7~2008.6)
당기순이익	-2,683	273
영업수익	7,889	174,705

자료 : HLTMT(2008)

일반타카풀의 FY2008 총수입보험료가 FY2007보다 5.2배 증가한 126만 9천 링깃으로 그 중 95% 이상이 화재타카풀이 차지하였다.

<표 V-12>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의 일반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 링깃)

구 분	FY07(2006.7~2007.6)			FY08(2007.7~2008.6)		
	화재타카풀	기타	합계	화재타카풀	기타	합계
총수입보험료	240	-	240	1,211	58	1,269
지급보험금	31	-	31	300	7	307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	84	-	84	364	19	383

자료 : HLTMT(2008)

가족타카풀의 FY2008 총수입보험료는 1억 6,933만 4천 링깃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8배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후기업인 홍콩은행의 넓은 판매망을 발판으로 다양한 상품이 현지고객 니즈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금 보장형 및 배당형 투자연계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 뿐만 아니라 투자연계사업 손익도 전년에 비해 약 30배 증가하여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이 말레이시아에서 조기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표 V-13>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의 가족타카풀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 링깃)

구 분	FY2007(06.7~07.6)	FY2008(07.7~08.6)
총수입보험료	5,994	169,334
지급보험금	102	2,673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	193	2,673
투자연계사업 손익(세후)	5,332	155,405

자료 : HLTMT(2008)

다. 판매 상품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손생보 통합상품 및 원금 보장형 투자 결합 상품 등 기존 상품군에 다양한 형태의 타카풀 상품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설립초기, 생손보 겸영면허의 이점을 살려 가족타카풀과 일반타카풀을 결합해 말레이시아 최초로 생손보 통합 타카풀 상품인 통합형모기지 타카풀(Comprehensive Mortgage Takaful)을 개발해 시판했다. 이 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사망, 고도장해 리스크와 화재 리스크를 주택용자 상환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상품으로 홍콩그룹 산하 이슬람은행의 영업망인 186개 지점에서 판매되어 신생 타카풀회사로서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이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에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듬해인 2007년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글로벌 금융기업 씨티뱅크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과 제휴하여 자체 첫 원금 보장형의 투자상품을 시판해 1개월 만에 1억 링깃을 돌파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3년 만기인 이 상품은 유럽 15

개국의 부동산주 및 부동산 투자신탁(REIT)으로 구성하는 EPRA 지수와 도쿄 증권거래소 REIT 지수(TSEREIT) 및 석유, 아연 등의 광물지수 지수를 벤치마크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를 포함해 약 3%로 시장 최저 수준이다.

최근에는 보험료 하나로 투자까지 가능한 가족타카폴 결합상품 아이-인베스트(i-Invest)가 낮은 리스크로 비교적 높은 배당을 원하는 중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인컴펀드(income fund)와 중·저리스크로 중장기형 투자에 적합한 균형펀드(balanced fund) 두 종류로 고객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가 되었을 때는 보험료의 125%와 그동안의 투자금액이 지불된다.

라. 중장기 전략

후발주자격인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이 경쟁이 치열한 말레이시아의 타카폴시장에서 단기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인지도가 높고 말레이시아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화교계 이슬람 은행과의 제휴로 광범위한 판매망을 확보하여 비교적 진출이 용이한 방카타카폴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한 점,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개발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최초의 통합형 타카폴 상품과 같은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상품을 개발해 집중 판매한 점, 그리고 세계 타카폴시장에 본격 진출한지 10여 년의 짧지 않은 기간에 체득한 타카폴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노하우 등이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의 조기정착을 견인한 주요 요인이다.

향후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은 현재의 은행지점을 통한 개인성 타카폴 판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상사나 자동차 제조사, 건설사, 유통사 등 많은 일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및 기업성 상품시장 개척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슬람교도 전용의 식품 수송이나 수쿠크로 자금을 조달한 빌딩 건설 등에 부대한 보험으로 타카폴이 적격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을 설립한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이

일본의 이온 크레디트서비스와 제휴협정을 맺은 사실을 이러한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한 일환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슬람 금융산업에 진출한 이온 크레디트서비스가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의 사업파트너이자 판매 대리점이 되어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의 상품들을 판매하게 될 경우 현재보다 홍콩토쿄해상타카폴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 금융 분야에서 일본계 기업끼리 업무를 위해 제휴하는 것은 이번 토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과 이온 크레디트서비스의 제휴가 처음으로 두 회사는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타카폴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VI. 시사점

1. 타카풀 운용현황에 기초한 시사점

가. 이슬람 율법 및 금융 관련 심층 연구 및 전문가 양성

타카풀을 포함하여 이슬람 금융은 모두 샤리아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이슬람 보험이나 금융 상품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지를 이슬람율법위원회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타카풀시장의 진출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요구된다. 또한 이슬람 금융 관련 회사들은 지역별로 다른 이슬람율법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이들 사이에는 이슬람 율법에 관한 판단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부연하면, 이슬람 보험분야에서 존경받는 이슬람 율법학자가 범세계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이나 합의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슬람율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축적도 필요하다. 여기에 앞서 타카풀의 모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슬람 보험은 계약관계에 따라 다양한 응용모델이 가능하다. 와칼라-와크프 혼합모델과 같이 영리와 비영리의 적절한 혼합 혹은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과 같이 대리인계약에 의한 수수료 협정방식과 공동사업자로서 이익배분방식의 적절한 혼합 등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또한 이슬람 율법 및 현지의 특성 등 이슬람권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요구된다.

한편 이슬람 보험에 관련된 연구는 국외의 학자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 근거하여 이슬람 보험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⁴⁴⁾, 이슬람권 빈곤의 원인⁴⁵⁾, 이슬람권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슬람보험의 적합성⁴⁶⁾, 이슬람보험에 관한 연구 서적⁴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슬람 보험의 연구에 관한 한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 역시 학자들 못지않게 적극적이다.⁴⁸⁾ 반면, 국내에서는 이슬람 보험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슬람 금융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는 최인환·김수연(2007)의 지적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타카풀시장에의 진출이나 이슬람 금융의 도입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슬람권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연구, 이슬람 금융권의 금융정책, 금융시스템,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각국 금융기관의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활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연구자료 발간, 외부 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워크샵,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연구 교류활동과 더불어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나. 타카풀시장의 잠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타카풀은 틈새시장으로 신규개척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수반된다. 현재 타카풀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여러 가지 방법과 가정에 입각하여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균형된 시각으로 정밀하게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타카풀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⁴⁹⁾나 인터넷내셔널 헤럴드 트리뷴⁵⁰⁾, 무디스 등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조건에 입각하여 성장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제조건은 각기 상이하다. 예를 들

44) Billah(2002, 2001a, 2001b, 2000), Mankabady(1989), Vogel & Hayes(1998)

45) Kuran(1996, 1995)

46) Billah & Patel(2003), Patel(2008, 2006, 2005), Malaikah(2006)

47) Lhorshid(2004)와 Siddiqi(1984)의 A Modern Approach to Islamic Banking

48) Allianz Group(2007), Amana Takaful Insurance(2008), A.M. Best(2008), Bank Al Jazira(2001), Gulfnews.com(2006), Lloyd's Looks to Islamic Insurance(2008), Prudential Bsn Takaful(2008), Standard & Poors(2006), Wong-Fupuy(2008) 등이 좋은 예이다.

49) 말레이시아타카풀 등

50)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10 Oct 2006, “Premiums soar for Islam-based insurance”)

면, 이슬람교도수 성장만을 고려한다든지, 보험전체의 시장보다는 타카풀시장만의 성장에 입각하여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전망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슬람 국가의 보험침투도는 GDP의 1% 수준으로 비이슬람권의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성, 타카풀은 윤리적인 투자, 계약의 완전한 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비이슬람교도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모두를 고려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타카풀시장 발전 잠재력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카풀과 전통적인 보험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타카풀은 운영회사의 수수료를 명확히 하는 등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리스크 가격책정이 임의적일 때, 특히 계약자에게 더욱 공정해야하는 리스크의 공유, 다른 많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건강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한다는 점이 일반 보험상품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타카풀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야할 많은 단점도 있으며, 이것은 타카풀의 글로벌 표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다. 리타카풀시장에 대한 동시 고려

타카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회사가 급증하고, 리타카풀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영향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리타카풀운영사는 아직도 소수이지만, 독특한 상관습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리스크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이라고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즉, 리타카풀시장은 세계적으로는 매우 소수의 플레이어(시장참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단된 시장에 전통적인 보험시장의 가격 사이클이 어디까지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관점으로는 고객베이스가 다른 한, 샤리아 적적인 시장과 종래의 보험시장 발전과는 상반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카풀의 고객이 종래의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좋은 조건의 담보에 대해서 저항감을 나타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카풀 하에서는 종래의 보험시장 사이클을 반영한 효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타카풀시장은 오일 쇼크 등 지역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리타카풀 운영회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독특한 상관습을 알아야 하며, 국제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샤리아에 입각한 사업모델과 주문에 의한 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카풀운영사는 종래의 재보험회사에 출재했을 때, 그들의 사업모델이나 고객베이스, 상품 아이디어의 특이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특약’이라는 전문용어의 적용만으로, 잉여금의 환불의무나 대리인 수수료를 기본으로 한 구조는 재보험계약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계획이나 통제 등에 있어 관리 노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타카풀 펀드로는 적어도 일반적인 리타카풀의 경우에, 리스크를 직접 견인할 것은 없고, 사망률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가족타카풀과는 다르고, 일반타카풀의 풀(pool)제는 각 리스크의 불확실한 요소에 의해 고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풀제는 타카풀의 특징 중 하나인 동시에, 리스크를 삭감하고 공유하는 주된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폭넓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타카풀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장참여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우선 국제수준의 리스크 분담 원칙을 적용하고, 리스크 분담의 범위가 넓은 만큼 기능도 문제없이 합리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며, 소비자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상품 개발, 마케팅, 샤리아 적격에 관한 문제점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대리인을 기본으로 한 리타카풀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타카풀에서도 출재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동 관리하고, 경쟁사와 인수성적도 공유하도록 하는 타카풀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부와 이윤공유라는 구조 내에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참가자의 펀드를 모집하는 것만으로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균형조정은 같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항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별 시장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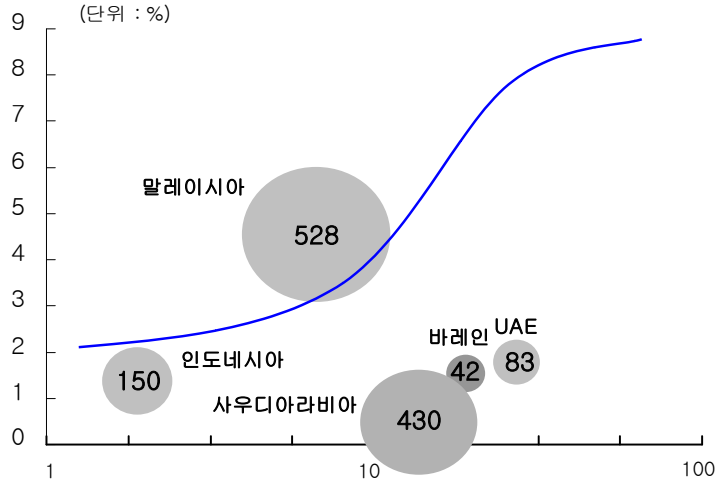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 7개국의 타카풀시장은 시장의 발전 측면과 법규제반의 환경측면에서 타카풀시장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신흥개도국 경제권에 포함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다국적 보험회사들의 관심은 다른 이슬람국가에 비해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보험시장 성장 가능성을 일인당 GDP 대비 적정 보험침투율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보험침투율이 4.6%로서 적정수준이 대략 3%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포화상태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보험침투율이 1.6%로 적정수준 2%에 비해 보험시장은 아직 적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험침투율이 0.6%로 적정수준인 6%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바레인과 UAE는 보험침투율이 각각 2.0%(2006년), 1.9%로 적정수준인 6%와 7%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걸프 연안의 3개국이 서남아시아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러나 보험침투율만으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장들의 인프라 상호비교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1) Swiss Re(No.5/2008), The Geneva Paper(Vol.25, No.3)

<그림 VI-1> 주요 5개국 타카폴시장 규모 및 보험침투율



주 : 1) x좌표는 1인당 국민총생산(1,000달러)을 로그로 변환한 값이고, y좌표는 보험침투율(총수입보험료/GDP)을 나타냄.

2) 곡선은 경제수준 대비 적정 보험침투율을 나타냄.

3) 원크기는 보험시장 규모를 나타내며 단위는 백만 달러임.

자료 : Swiss Re(No.5/2008), The Geneva Paper(Vol.25, No.3)

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UAE의 보험시장 인프라는 인도네시아만큼 잘 형성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UAE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동국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험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손해보험시장이 발달된 것과 대비되게 생명보험시장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UAE도 생명보험시장이 손해보험시장의 20% 규모이나 중동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AE의 생명보험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한 것은 생명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사회·종교적 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국제금융센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근로자의 생명보험 수요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운영하는 카타르의 생명보험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5.6%임을 고려해 볼 때, UAE 생명보험 시장의 상대적 발전은 사회적 인식에 더 크게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보험시장을 발전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정부정책과 법규를 살펴보면 특별히 보험을 장려하거나 또는 반대로 억제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은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지만 보험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AE는 안정적인 보험시장의 인프라 상황에서 7.6%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카풀시장의 발달은 보험시장에 비해 저조한 상황인데(보험시장의 2.3%) 이는 타카풀시장에 대한 혜택이나 우호적인 법규가 없는 것도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해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의 비중이 각각 5.6%, 4.8%에 이르는 극히 왜소한 시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타카풀시장이 보험시장에 비해 각각 11%, 23%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유사점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이들 국가가 보험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비슷하기 때문인데, 특히 보험에 대한 사회·종교적 거부감이 타카풀시장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는 보험시장에 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보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66년 제정된 보험업법은 현재의 시장을 감독하기에 다소 미흡하다. 국제금융센터와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카타르의 금융센터지역은 특별한 관리 감독 규범이 적용되며, 타카풀 사업자와 보험사를 차별을 두지 않고 한 가지 법규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이나 펀드간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이슬람 국가와 대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타카풀 사업에 대한 특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으로 타카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보험에 대한 니즈가 타카풀로 대체될 수 밖에 없는 사회·종교적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타카풀의 대체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국가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험시장의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보험에 대한 감독 및 운용 규정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보험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불명확하며, 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시장 영업에 대한 제약 사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내의 다국적 보험회사는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합작 형태의 주식회사여야 하고 자산운용에도 제약이 뒤따르는 등 진입에 장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보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종교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타카풀시장이 발달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바레인

바레인의 보험시장에 대한 인프라 수준은 UAE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이 중립적이며, 보험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적고, 법규도 중립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은 보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두 국가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은 중동국가 내에서 생명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데(손해 보험시장의 29%, 2007년 기준), 그 원인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종교적 거부감이 적고, 국제금융센터 지역의 생명보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바레인은 잘 구축된 보험시장 인프라와 6.7%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보험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레인의 경제규모가 UAE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규모도 UAE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타카풀시장과 관련해서는 두 국가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바레인의 타카풀시장은 13%를 차지하여 2.3%를 차지한 UAE보다 더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카풀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UAE보다 앞서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규 관

런 전문가들은 바레인이 중동 내에서 타카폴시장을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⁵²⁾ 그밖에 국제금융센터지역의 타카폴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모델을 명시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보험영업은 와칼라, 투자는 무다라바) 이러한 규정으로 타카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타카폴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상황이 바레인과 흡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쿠웨이트는 바레인처럼 국제금융센터 특별 지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동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정부가 허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100%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보험사의 쿠웨이트 보험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있으며, 보험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적은 것도 쿠웨이트 보험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2007년 현재 쿠웨이트는 손해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의 비중이 21%로서 중동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카폴시장과 관련해서 쿠웨이트는 외국자본의 타카폴시장 진입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동시에 이들 외국자본의 100% 자본 소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타카폴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다른 6개국에 비해 타카폴시장의 발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앞서 있다. 타카폴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측면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는 자국을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타카폴 사업자에

52) Dingwall, Susan, Ali, Shantha and Griffiths, Ffionl(2007), Wilson and Rodney(2007)

게 조세면제의 혜택을 주는 등 2001년의 금융부문 마스터플랜 구상부터 타카풀 사업을 핵심 사업과제로 설정하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이 보험시장 발전에 강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타카풀 사업자의 영업이익 공유가 비이슬람교도들의 타카풀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타카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이슬람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감독규정에 있어서도 말레이시아 정책은 대체적으로 타카풀시장에 우호적 이어서 타카풀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카풀회사 및 지점 설립에 대한 납입자본금은 보험회사의 10분의 1에 해당하여 타카풀시장 진입이 보험시장 진입보다 훨씬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7개국 중 타카풀시장, 특히 생명보험 부문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이러한 인프라가 최상의 상태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6.3%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은 타카풀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성장엔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5개국에 비해서는 타카풀 시장 발달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타카풀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은 사회·종교적 분위기는 보험시장 중에서도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는 인도네시아의 보험시장에 1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타카풀시장에는 전문업체 3개와 겸영사 3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카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지만 특별히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이 없으며, 감독기관은 타카풀 사업자와 보험회사 모두 Risk-Based Capital 적정성 모델에 근거하여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험과 타카풀 모두에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처럼 잘 정비된 보험시장 인프라와 6.3%에 이르는

는 높은 경제성장은 보험시장, 특히 생명보험시장을 성장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타카풀시장을 견조하게 발전시켜온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 주요 7개 이슬람 보험시장 성장 잠재력

(2007년 기준, 백만 달러)

	1인당 GDP(\$)	GDP (억 \$)	경제 성장률 (%)	생손보 + 타카풀	생보+ 손보	생보	손보	타카풀	보험 침투율 (%)	보험 밀도 (\$)
UAE	35,406	1,841	7.6	3,638	3,555	617	2,938	83	1.9	811.6
사우디	15,206	3,695	3.5	2,289	1,859	86	1,773	430	0.6	94.0
카타르	72,444	639	11.3	600	538	29	509	62	0.9	640.2
바레인	23,720	190	6.7	361	319	72	247	42	2.0	-
쿠웨이트	32,653	1,110	4.9	849	734	132	602	115	0.6	257.3
말레이시아	6,870	1,867	6.3	9,350	8,824	5,885	2,939	526	4.6	332.1
인도네시아	1,840	4,328	6.3	7,088	6,938	4,728	2,210	150	1.6	29.9

주 : 바레인의 보험침투율은 2006년 기준이며, 보험밀도는 파악되지 않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Swiss Re(2008/3, 2008/5)

3. 사례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가. 진출 초기 현지 금융기관과 제휴 전략

말레이시아 타카풀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서 푸르덴셜홀딩스와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이 택한 전략은 바로 광범위한 지점망을 가진 현지 대형 은행과 제휴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들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들 모두 상품 개발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상품을 판매할 전국적 유통망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의 주요 채널인 방카타카풀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판매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수의 은행 방문 고객들을 고스란히 타카풀 고객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타카풀 상품 중 방카타카풀 상품이 저렴하고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 등은 타카풀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손쉽게 방카타카풀을 주요 유통채널로 고려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현지 은행과의 제휴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제휴와 관련된 법규 및 감독에 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휴 대상 은행 선정시 브랜드 인지도와 지점망 등을 파악해 제휴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유통채널로써의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지명도가 낮은 만큼 제휴를 통해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논리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구조가 다소 복잡한 타카풀에 대한 현지 은행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도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나. 면밀한 현지 시장조사와 경험 축적

AIG 타카풀-에나야, 푸르덴셜 BSN 타카풀, 홍콩토쿄해상타카풀은 모두 2006년에 설립된 신생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타카풀시장에 진출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이는 타카풀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타카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꽤 오랜 기간 이슬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점도 작용했다.

AIG 그룹과 푸르덴셜홀딩스는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지점망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타카풀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푸르덴셜홀딩스의 경우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400여 개의 막강한 지점망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최고의 은행 중 하나인 심파난국립은행과의 제휴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타카풀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는 시장이고 현재까지는 규범의 체계화나 글로벌화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타카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카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더불어 예상 진출지역 및 이슬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사전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면에서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이자 일본 보험회사들 중 타카풀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의 전략 및 행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2006년에 홍콩토크해상타카풀을 설립하기 이전에도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약 10년간의 현지 시장조사 및 본격적인 타카풀 사업을 통해 타카풀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2001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자회사를 만들어 은행대출 연계로 타카풀 상품을 처음 판매하면서 본격적인 타카풀 사업을 시작한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2004년 리타카풀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했으며, 같은 해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해 타카풀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은행과 합작으로 기업용 일반타카풀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타카풀 전문회사를 설립했으며, 2007년에는 이집트보험감독청(EISA: Egyptian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으로부터 일반타카풀과 가족타카풀 모두에 대한 사업 인가권을 승인받아 곧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의 다섯번째 타카풀 회사이자 이집트 최초의 외국계 타카풀회사의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이 다양한 이슬람 국가에서 타카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샤리아를 적용하는 기준과 해석이 다르고, 금융 및 보험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규범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은 타카풀 사업을 미래 수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플랜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시행착오는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홍콩토크해상타카풀처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만에 말레이시아의 타카풀시장 점유율 3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수·김진홍,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대응전략과 시사점」, 2007.
- 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최근 이슬람 금융의 영업 전략」, 2008a.
- _____, 「국제금융 이슈- 최근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활용 현황」, 2008b.
- 김용백, 「이슬람 금융, 신용경색 및 강화된 율법기준 적용으로 성장 둔화」, 국제금융센터, 2008b.
- _____, 「이슬람 금융시장 개요 및 최근 동향」, 국제금융센터, 2008a.
- 김현호, 「말레이시아, 이슬람 자본 시장동향」, KOTRA, 2008.
- 박복영, 「한-중동 미래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박철형, 「중동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박해식, 「이슬람 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금융연구원, 2008.
- 안수현, 「이슬람 금융과 각국의 금융법·제도 정비 현황」, KRX Review, 2009.
- 옥진주,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슬람 금융상품」, The Banker, 2008.
- 이장균, 「투자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MENA」, 한국증권연구원, 2008.
- 최태영, 「이슬람보험에 관한 고찰」, 2008.
- 홍석빈, 「최근 중동 경제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2008.
- 외교통상부, 「중동 지역별·국별 진출가이드- 사우디아라비아」, 2006.
- _____, 『중동진출가이드』, 200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GCC 3개국의 금융허브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07.
- 신한은행, 「세계 금융시장의 블루오션 이슬람」, 2007.
- 한국경제신문,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을 잡아라」, 2007.
- 보험일보, 「이슬람시장은 新보험금광 ‘Takaful’시장을 잡아라」, 2007.
- 한국수출입은행, 「막대한 오일머니로 급성장하는 이슬람 금융」, 2006.
- _____, 『2008 세계 국가 편람』, 2008.
- _____, 『국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각 호, 2008.
- _____,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중동 GCC 국가의 대응경과 및 시사점」,

2008.

- _____, 『중동 및 동남아시아 Country Profile』 각 호, 2008.
- _____, 「중동 주요국(GCC)의 국부펀드 현황 및 전망」, 2008.
- _____, 「중동에너지강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7.
- _____, 「해외경제정보- UAE 금융제도」, 2007.
- _____, 「해외경제정보- UAE, 금융부문 현황」, 2008.
- _____, 「GCC 지역, 이슬람 은행의 현황 및 과제」, 2008.
- _____,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2008.
- 한국증권업협회,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2008.
- 에너지경제연구원, 「Country Profile- 카타르」, 2008.
- KOTRA, 『동서남아 진출, 이슬람 금융으로 하라』, 2008.
- _____,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
- 糠谷英輝, 『世界に廣がるイスラム金融と中東マネー』, 2008.
- 工藤宏之, 『イスラム債券市場の現状と展望』, 國際通貨研究所, 2008.
- 國際協力銀行海外投資情報財團, 『イスラム金融の概要』, 2007.
- 武藤幸治, 「イスラムと保険, 研究ノート」, ITI 季報 Spring No.47, 2002.
- 福岡藤乃, 「タカフル(イスラム保険)について」, 損害保険研究 第69卷 第4号, 2008.
- 清水聰, 『マレーシアの債券市場と擴大するイスラム債發行』, 環太平洋戰略研究センター, 2008.
- Abu Dhab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conomy", 2008.
- Ahmad and Mohamad Salihuddin, "Takaful in Southeast Asia: The Growing Pains and Challenges?", ICMIF, 2007.
- Ahmad, Saiful Yazan. "Indonesia: The Untapped Takaful Market", ICMIF, 2007.
- Ajmal Bhatti, "Will Takaful Penetration Match Conventional Insurance?", TokioMarine Middle East, 2008.
- Allianz Group, "Islamic insurance: A growing market", 2007.

- Amana Takaful Insurance, "How we operate-General Takaful Operational Flow Chart", 2008.
- Badiuddin Ahmed, Mohammed Abdul and M. Shakeel Ahmed, Takaful (Shariah Complaint Insurance) Education, 2005.
- Bank Al Jazira Takaful Taawuni, "Seven Misconceptions about Insurance and Takaful", 2001.
- Bank Negara Malaysia, Annual Report 2007, 2008.
- Bank Negara Malaysia, Annual Takaful Statistics 2007, 2008.
- Business Times, "Poor corporate governance in MENA insurance sector undermining growth", 2007.
- Central bank of Bahrain, Insurance Rulebook, TA Takaful/Retakaful, 2007.
- Central Bank of Bahrain, "Insurance Market Review", 2008.
- CIA, The World Factbook 2007, 2008.
- David A. Robalino, "Pension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orld Bank, 2005.
- David Testa, "Operational and Business Structural Issues in starting an Islamic Financial Services Unit- Focus on Capital Markets", Gatehousebank, 2009.
- Dingwall, Susan, Ali, Shantha and Griffiths, Ffion, Regulatory Approachers to Takaful, 2007.
- EFG-Hermes, "GCC Insurance Primer", 2007.
- Ernst & Young, The World Takaful Report, 2008.
- A.M. Best, "Takaful (Sharia's Compliant) Insurance Companies, Best's Rating Methodology", 2008.
- Etsuaki Yoshida, "Japan: Case Studies on Sukuk Issuance and Recent Developments in Islamic Finance", 2009.
- Euromoney, "Both in Islamic Insurance: Trends Opportunities and Future of Takaful", 2008.
-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Franklin MENA Equity Fund," 2008.

- HLTMT,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 2008", 2008.
- IDIC, "Islamic Finance & Islamic Deposit Insurance in Indonesia", 2008.
- IFSB, "Issues in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akaful(Islamic Insurance)", 2006.
- III, International Insurance Fact Book 2008-09, 2009.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008.
-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FACT BOOK 2008, 2008.
- KPMG, "Insurance Insights-New issues and strategies in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2007.
- Liaquat Ali Khan, "How does takaful differ From insurance?", 2007.
- M. Kabir Hassan and Mervyn K. Lewis, Handbook of Islamic Banking, 2007.
- Maher Hammoud & Peter Vayanos, "Promoting the Growth and Competitiveness Sector in the Arab World," Booz Allen Hamilton Inc. 2007.
- Marie-Luc Robert, "TAKAFUL Insurance According To the Shari'ah (Muslim) Law," SOA 2008 Life Spring Meeting 16-18 June 2008 Quebec City.
- MENAFN, "MENA insurance sector must embrace new opportunities," 2008.
- MIF, "MIF monthly 2008 Supplement Series-Takaful Supplement," 2008.
- _____, MIF 2008 Annual Report, 2008.
- Mohammad Khan, "Islamic Insurance(Takaful and Retakaful)," PWC, 2008.
- Moody's Gblal Insurance, "Middle East Insurance Set for Continued Strong Expansion", 2008.
- Nik Ramlah Mahmood, "Overview of the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Perspectives of Regulators," Seminar on Islamic Finance 2009, 2009.
- Nortom Rose, "Islamic Insurance Briefing-Takaful Insurance", 2005.

-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 2008, 2008.
- S&P, "Takaful May Stimulate Middle East Insurance Growth But Business Model Is Unproven", 2007.
- _____, "Islamic Finance Comes of Age: Why? How? How Far?", 2006.
- Saiful Azhar Rosly, "Critical issues on Islamic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Bloomington, Ind.", AuthorHouse, 2005.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Consumer Issues and Natural Disasters: KSA regulator's perspective", Presentation to the 44th Annual Seminar of the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2008.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The Saudi Insurance Market Survey Report, 2008.
- Swiss Re, "Insurance in the emerging markets: overview and prospects for islamic insurance", No. 5/2008.
- _____, World Insurance, 2003.
- _____, World Insurance, 2004.
- _____, World Insurance, 2005.
- _____, World Insurance, 2006.
- _____, World Insurance, 2007.
- _____, World Insurance, 2008.
- Sohail Jaffer, "2005 Global Takaful Review: Evolving Trend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06.
- Takaful Re, Annual Report 2007, 2008.
- The Business Times, "Poor corporate governance in MENA insurance sector undermining growth," 2007.
-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Premiums soar for Islam-based insurance", 2006.
- The Review, A Guide to Insurance and Reinsurance in Qatar, 2007.
- The World Bank, 2008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2008.

- _____, Regional Brief-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04.
- Tobias Frenz, Madhu Sridharan and Krishna Iyer, "Developing a Takaful product in India-Risks and Challenges," 10th Global Conference of Actuaries, 2008.
- UNCTAD, "Insurance Services Liberalization and Capacity-building: the Case of Africa", 2007.
- Wilson and Rodney, "Concerns and Misconceptions in the Provision of Takaful", 2007.
- Zainal Kassim, Richard Letarte and Marie-Luc Robert, "Takaful Insurance", Life 2008 Spring Meeting, 2008.

[부 록]

1. 이슬람 주요국 개황

가. UAE

구분	분 야	내 용
일반	국명	아랍에미레이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위치	걸프만 연안, 사우디 · 카타르 · 오만과 접경
	면적	83,600km ² (한반도의 1/3, 99%가 사막지대)
	기후	고온다습, 아열대 및 사막성기후
	인구	520만 명('07)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147만 명)
	주요도시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민족	남아시아계(50%), 아랍 및 이란계(23%), 토후국인(19%)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페르시아어
	종교	회교(수니파 80%), 기독교, 힌두교
정치	독립일	1971.12.2(영국)
	정치체제	7개 토후국 연방 절대군주제(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Sheikh Khalifa bin Zaye al-Nahyan 대통령
	의회	연방평의회(40석, 자문기관)
	국제기구가입	UN, IMF, GCC, IBRD, IFC, OPEC, WHO, WTO 등
경제	화폐단위	UAE 디르함(UAE Dirham : Dh)
	회계연도	1.1~12.31
	주요수출품	('07) 원유, 채수출
	주요수입품	('07)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경제적 강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풍부, 중개무역항
	경제적 약점	석유에 편중된 산업구조, 노동 · 기술인력 부족

자료 : UAE 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나. 사우디아라비아

구분	분 야	내 용
일반	국명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위치	아라비아 반도
	면적	215만km ² (한반도의 10배)
	기후	- 내륙 지역 :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 홍해연안과 걸프 연안 : 고온 다습
	인구	2,430만 명(2007년)
	수도	리야드(Riyadh)
	주요도시	리야드, 제다, 담맘, 메카, 메디나 등
	민족	아랍족(베드윈 27%, 정착민 73%)
	언어	아랍어
정치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독립일	9. 23(사우디 왕국 선포일)
	정치체제	전제 군주제(정교 일치)
	국가원수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 - 국왕의 자문기구인 SHOURA COUNCIL이 정부법
	의회	안을 심의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을 가짐. - SHOURA COUNCIL 120명 위원은 국왕이 임명
경제	정부성향	- 대외적 : 친서방, 온건 노선 - 국내적 : 정교일치의 보수 이슬람
	화폐단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 Saudi Arabian Riyal)
	환율	US\$1 = SR 3.745(고정 환율)
	회계연도	7.1~6.30
	주요수출품	(‘07) 석유 및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수입품	(‘07) 수송기계, 금속철강, 식품농산물 등
	주요부존자원	석유(세계 1위), 천연가스(세계 4위)

자료 : 사우디 통계청, EIU,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다. 카타르

구분	분 야	내 용
일반	국명	카타르(State of Qatar)
	위치	아라비아반도 동쪽, 걸프만 인접국
	면적	11,521km ² (한반도의 1/20, 경기도만한 크기)
	기후	사막기후(고온건조)
	인구	90만 명('07)
	수도	도하(Doha : 32만 명)
	주요도시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민족	아랍계(40%), 파키스탄계(18%), 인도계(17%), 이란계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종교	회교(77.5%), 기독교(8.5%)
정치	독립일	1971.9.3(영국)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국가원수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국왕
	의회	국왕이 임명하는 자문회의에서 법안과 주요정책 심의
경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GCC, IBRD, OPEC, WHO, WTO 등
	화폐단위	카타르 리알(QR: Qatar Riyal)
	회계연도	4.1~3.31
	주요수출품	('07) 석유, 천연가스
	주요수입품	('07) 기타 운송기계류, 항공 및 기계류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경제적 강점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석유중심의 산업구조, 국내시장 협소

자료 : 카타르중앙은행(QCB),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홈페이지

라. 바레인

구분	분 야	내 용
일반	국명	바레인 왕국(Kingdom of Bahrain)
	위치	사우디 동부 및 카타르 북부 걸프만 중앙
	면적	712km ² (총 36개 섬으로 구성, 한반도의 1/334)
	기후	아열대 해양성 사막기후
	인구	80만 명('07)
	수도	마나마(Manama : 15만 명)
	민족	바레인인(62.4%), 아랍인
	언어	아랍어, 영어
정치	종교	회교(81.2%), 기독교
	독립일	1971.8.15(영국)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국가원수	Hamad bin Isa al-Khalifa 국왕
	의회	1975년 해산, 국가자문회의(40석, 임명제, 입법권 없음)
경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GCC, IBRD, IFC, ILO, WHO, WTO 등
	화폐단위	바레인 디나르(BD: Bahraini Dinar)
	회계연도	1.1~12.31
	주요수출품	('06) 석유 80%, 알루미늄 13%
	주요수입품	('06) 석유 54.8%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어류, 진주
	경제적 강점	산유국, 걸프만 지역의 금융 중심지
	경제적 약점	노동력 부족, 국내시장 협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마. 쿠웨이트

구분	분 야	내 용
일반	국명	쿠웨이트(State of Kuwait)
	위치	아라비아반도 동북단, 페르시아만 서북단
	면적	17,818km ² (한반도의 1/12)
	기후	열대성 사막기후(고온건조)
	인구	340만 명('07)
	수도	쿠웨이트 시티(Kuwait City : 39만 명)
	민족	쿠웨이트인(45%), 기타 아랍인(35%), 아시아인(9%)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종교	회교(수니파 60%), 기독교, 힌두교
정치	독립일	1961.6.19(영국)
	정치체제	입헌군주제(왕정)
	국가원수	Sheikh Sabah al-Ahmed al-Jaber a-Sabah 국왕
	의회	단원제(50석)
국제기구가입		UN, IMF, IFC, ILO, OPEC, WHO, WTO 등
경제	화폐단위	쿠웨이트 디나르(KD: Kuwait Dinar)
	회계연도	4.1~3.31
	주요수출품	('07) 석유
	주요수입품	('07)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수산물
	경제적 강점	석유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주변정세 불안, 산업구조 취약

자료 : EIU,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바. 말레이시아

구분	분야	내용
일반	국명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위치	말레이반도 및 보르네오섬 북부
	면적	33만km ² (한반도의 1.5배)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기후
	인구	2,720만명('07)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158만명)
	민족	말레이족(62%), 중국계, 인도계
	언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등
정치	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독립일	1957.8.31(영국)
	정치체제	연방형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Yang di-Pertuan Agong 국왕
	의회	양원제(상원 69석, 하원 222석)
경제	국제기구가입	UN, IMF, WTO, APEC, IBRD, ADB, ASEAN 등
	화폐단위	링깃(Ringgit) 또는 Malaysian Dollar(M\$)
	회계연도	1.1~12.31
	주요수출품	('07) 전자 및 전기기기, 석유 및 천연가스, 목재류
	주요수입품	('07) 기계부품, 석유제품, 플라스틱, 운송기계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천연고무
	경제적 강점	부존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종족간 및 지역간 심한 소득격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사. 인도네시아

구분	분야	내용
일반	국명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위치	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
	면적	190만 4천km ² (한반도의 8.5배)
	기후	열대성 기후
	인구	2억 3,470만명('07)
	수도	자카르타(Jakarta : 840만명)
	민족	자바족(45%), 순다족(14%) 등 300여 민족
	언어	인도네시아어, 종족 지방어
	종교	이슬람교(86%), 기독교, 카톨릭, 불교 등
정치	독립일	1945.8.17(네덜란드)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의회	국민협의회(국회 550석, 지역대표 128석)
	국제기구가입	UN, IMF, APEC, IBRD, ADB, ASEAN, WTO 등
경제	화폐단위	루피아(Rp: Rupiah)
	회계연도	1.1~12.31
	주요수출품	('07) 원유, 천연가스, 섬유류, 목재류
	주요수입품	('07) 원자재·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원목
	경제적 강점	풍부한 부존자원 및 노동력
	경제적 약점	사회간접자본 미비, 빈부격차 심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2. 전세계 타카풀회사 및 타카풀 전문교육기관 목록⁵³⁾

1. 타카풀 전문회사(총 170개사)

번호	회사명	국가명
1	Salama	Algeria
2	Takaful Australia ^{*54)}	Australia
3	Islamic Takaful & Re-Takaful	Bahamas
4	AIG Takaful-Enaya BSC *	Bahrain
5	Al-Salam Islamic Takaful Co.*	Bahrain
6	Allianz Takaful	Bahrain
7	Bahrain Islamic Insurance Co	Bahrain
8	Sarikat Takaful al-Islamiyah	Bahrain
9	Solidarity Islamic Takaful & Retakaful Co.*	Bahrain
10	Takaful International Co.*	Bahrain
11	Takaful Islamic Insurance Co. EC.	Bahrain
12	T'azur Co BSC	Bahrain
13	Fareast Islami Life Insurance Co. Ltd	Bangladesh
14	Islami BIMA (Takaful-Megna Life Insurance)	Bangladesh
15	Islami Insurance Bangladesh Limited	Bangladesh
16	Islamic Commercial Insurance Co.	Bangladesh
17	Prime Life Insurance Limited*	Bangladesh
18	Takaful Islamic Insurance Limited	Bangladesh
19	Insurans Islam TAIB *	Brunei
20	Takaful BIBD Sdn Bhd	Brunei
21	Takaful IBB Berhad	Brunei
22	Takaful IDBB	Brunei
23	Arab Orient Takaful Insurance Co.	Egypt
24	Egyptian Banks for Takaful Insurance Co	Egypt
25	Egyptian Saudi Home Insurance	Egypt
26	Wethaq Takaful Insurance Co.	Egypt
27	Takaful Company	Gambia
28	Metropolitan Insurance Co. Ltd	Ghana
29	Asuransi Mubarakah	Indonesia
30	Asuransi Takaful Keluarga *	Indonesia

53) ICMIF Takaful 홈페이지(www.takaful.coop)를 참조(2008년 말 기준)

54) * 표시는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이다.

1. 타카풀 전문회사(계속)

번호	회사명	국가명
31	Islamic Insurance Society *	Indonesia
32	PT Asuransi Tri Pakarta	Indonesia
33	PT Syarikat Takaful	Indonesia
34	Takaful Umum *	Indonesia
35	Alborz Insurance Co. *	Iran
36	Asia Insurance Co.	Iran
37	Bimeh Iran	Iran
38	Bimeh Parsian	Iran
39	Bimeh Sina	Iran
40	Bimeh Toseh-eh	Iran
41	Dana Insurance Co. *	Iran
42	Day Insurnace Company *	Iran
43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Company (EIIC)	Iran
44	Hafez Insurance Co. *	Iran
45	Karafarin Insurance Co. *	Iran
46	Mellat Insurance Company *	Iran
47	Omid Insurance Co. *	Iran
48	Razi Insurance Co. *	Iran
49	Saman Insurance Co.	Iran
50	Al Barakh Takaful Co. *	Jordan
51	First Insurance Co.	Jordan
52	Islamic Insurance Co.	Jordan
53	1st Takaful Insurance Co. *	Kuwait
54	Ain Takaful Insurance Co.	Kuwait
55	Al Safat Takaful Co. *	Kuwait
56	AL-Muthanna Takaful Insurance Company *	Kuwait
57	Gulf Takaful Insurance Co. *	Kuwait
58	Moallem Insurance Company *	Kuwait
59	National Takaful Insurance *	Kuwait
60	T'azur *	Kuwait
61	Takaful International	Kuwait
62	Takaful International Kuwait	Kuwait
63	Takaful Islamic Insurance Company	Kuwait
64	Warba Takaful Insurance Co. KSCC *	Kuwait
65	Wethaq Takaful *	Kuwait
66	Al Aman Takaful Insurance SAL *	Lebanon
67	Takaful Insurance Co.	Libya
68	International Insurance Co	Luxembourg

1. 타카풀 전문회사(계속)

번호	회사명	국가명
69	Takafol S.A.	Luxembourg
70	Agilentrisk Limited *	Luxembourg
71	CIMB Aviva Takaful Berhad *	Malaysia
72	Etiqa Takaful Berhad *	Malaysia
73	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l Berhad *	Malaysia
74	MAA Takaful *	Malaysia
75	Prudential BSN Takaful Berhad *	Malaysia
76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	Malaysia
77	Takaful Ikhlas *	Malaysia
78	SMAI Isamique	Mauritania
79	Taamin assurances Islamiques	Mauritania
80	First Takaful Insurance	Pakistan
81	Pak Qatar Family Takaful	Pakistan
82	Pak Qatar Genral Takaful	Pakistan
83	Pak-Kuwait Takaful Company Limited *	Pakistan
84	Takaful Pakistan Limited *	Pakistan
85	Al-Takaful Palenstinian Insurance Company PLC	Palestine
86	Takaful Company	Palestine
87	General Takaful Company GTC	Qatar
88	Islamic Takaful	Qatar
89	Qatar Islamic Insurance Co. *	Qatar
90	Al Ahlia Insurance Co. for Cooperative Insurance *	Saudi Arabia
91	Al- Sagr Saudi Insurance Co.Al- Sagr Saudi Insurance Co.	Saudi Arabia
92	Al-Aman cooperative insurance (Al-Rajhi)	Saudi Arabia
93	Allied Cooperative Insurance Group (ACIG) *	Saudi Arabia
94	Al-Tawfeek Co.	Saudi Arabia
95	Arab Eastern Insurance Co. Ltd, E.C.	Saudi Arabia
96	Arabia Insurance Cooperative Company *	Saudi Arabia
97	Arabian American Insurance Co. ESC	Saudi Arabia
98	Arabian Malaysian Takaful	Saudi Arabia
99	Arabian Shield Insurance Company	Saudi Arabia
100	Bank Al Jazira Takaful Ta'awuni	Saudi Arabia
101	BUPA Arabia	Saudi Arabia
102	Commercial Services Company Arabia	Saudi Arabia
103	Company for Cooperative Insurance *	Saudi Arabia
104	Family Takaful	Saudi Arabia
105	Global Islamic Insurance Co.	Saudi Arabia
106	Gulf Cooperation Insurance Company Ltd	Saudi Arabia

1. 타카풀 전문회사(계속)

번호	회사명	국가명
107	Gulf Union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Company E.C.	Saudi Arabia
108	International Islamic Insurance Co. *	Saudi Arabia
109	Islamic Arab *	Saudi Arabia
110	Islamic Corporation for Insurance of Investment and Export Credit*	Saudi Arabia
111	Islamic Insurance Co., Riyadh	Saudi Arabia
112	Islamic International Company for Insurance	Saudi Arabia
113	Islamic International Insurance Co. (Salamat)	Saudi Arabia
114	Islamic Security	Saudi Arabia
115	Islamic Universal Insurance	Saudi Arabia
116	Mediterranean and Gulf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y BSC*	Saudi Arabia
117	Saab Takaful	Saudi Arabia
118	Salama	Saudi Arabia
119	Sanad For Cooperative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y	Saudi Arabia
120	Saud Re For Cooperative Insurance Company	Saudi Arabia
121	Saudi Arabian Insurance Company BSC	Saudi Arabia
122	Saudi General Insurance Company EC *	Saudi Arabia
123	Saudi National Insurance Co. BSC *	Saudi Arabia
124	Saudi United Co-operative Insurance *	Saudi Arabia
125	Takafol Islamic Insurance Co. *	Saudi Arabia
126	Tawuniya *	Saudi Arabia
127	Trade Union Insurance Co. *	Saudi Arabia
128	UCA Insurance Co. E.C.UCA Insurance Co. E.C. *	Saudi Arabia
129	Islamic Takaful & Re-takaful Co.	KSA & Bahamas
130	Salama	Senegal
131	Sosar Al Amane	Senegal
132	Syarikat Takaful	Singapore
133	Amana Takaful Ltd *	Sri Lanka
134	Ceylinco Takaful Limited	Sri Lanka
135	Al Salama Insurance Co	Sudan
136	Al-Baraka	Sudan
137	Blue Nile Insurance Co. *	Sudan
138	El Nilein Insurance Co.	Sudan
139	General Insurnace Co.	Sudan
140	Islamic Insurance Co. *	Sudan
141	JUBA Insurance Co.	Sudan
142	Middle East Insurance Co.	Sudan
143	National reinsurance Co.	Sudan
144	Red Sea Insurance Company Limited *	Sudan

1. 타카풀 전문회사(계속)

번호	회사명	국가명
145	Savana Insurance Co. Ltd	Sudan
146	Sheikhan Insurance & Reinsurance	Sudan
147	The New Sudan Insurance Company Limited	Sudan
148	The United Insurance Co	Sudan
149	Watania Co-operative	Sudan
150	Al Aqeela Takaful Co.	Syria
151	Aman Syria for Takaful Insurance	Syria
152	Noor Takaful Insurance Co.	Syria
153	Syrian Qatar Takaful Co	Syria
154	Finansa Life Assurance	Thailand
155	Dhipaya Insurance Public Company Limited	Thailand
156	Kamol Sukosol Insurance Company Ltd	Thailand
157	Muang Thai Life Assurance Co. Ltd *	Thailand
158	Takaful T & T Friendly Society	Trinidad & Tobago
159	Ihlas Sigorta A.S.	Turkey
160	Isik Insurance Co.	Turkey
161	Abu Dhabi National Takaful Co. *	UAE
162	Dubai Islamic Insurance & reinsurance Co.	UAE
163	Methaq Takaful *	UAE
164	Mithaq Lil Takaful	UAE
165	Salama *	UAE
166	Takaful Al Emarat	UAE
167	Takaful House Company	UAE
168	The Islamic Arab Insurance Co. *	UAE
169	Salaam Halal Insurance *	UK
170	Yemen Islamic Insurance Company (Y.S.C)	Yemen

2. 리타카풀회사(총 18개사)

번호	회사명	국가명
1	Islamic Takaful & Retakaful Co. (IRTCO.) *	Bahamas
2	Hannover ReTakaful B.S.C. ©	Bahrain
3	Solidarity Islamic Takaful & Retakaful Co. *	Bahrain
4	PT Reassuransi Internasional Indonesia *	Indonesia
5	Amin Reinsurance Company *	Iran

2. 리타카폴회사(계속)

번호	회사명	국가명
6	Al Fejr Retakaful Insurance Co.	Kuwait
7	Asean Re-Takaful International	Malaysia
8	MNRB Retakaful Berhad	Malaysia
9	Islamic Takaful & Re-takaful Co.	Saudi Arabia
10	Islamic Takaful and Re-Takaful Co. (ITRCo.)	Saudi Arabia
11	Tokio Marine Nichido Retakaful Pte Ltd	Singapore
12	National Re-insurance Co. (NRICo.)	Sudan
13	Sheikhan Insurance & Reinsurance *	Sudan
14	Sudanese Insurance & Reinsurance Co *	Sudan
15	BEIT Iaadat Ettamine Tounsi Saoudi Re-insurance (B.E.S.T. Re)*	Tunisia
16	ACR ReTakaful Holdings Limited	UAE
17	Dubai Islamic Insurance & reinsurance Co. *	UAE
18	Takaful Re Limited *	UAE

3. 타카폴 창구업무를 하는 일반보험사(총 6개사)

번호	회사명	국가명
1	The Cooperators *	Canada
2	Bumiputera 1912	Indonesia
3	Ampro Holding Singapore Pte Ltd	Singapore
4	HSBC	Singapore
5	Keppel Insurance	Singapore
6	NTUC Income	Singapore

4. 타카폴 전문교육기관(총 6개 기관)

번호	회사명	국가명
1	Gulf Insurance Institute (GII) *	Bahrain
2	The Bahrain 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 (BIBF)*	Bahrain
3	Islamic Banking and Finance Institute Malaysia *	Malaysia
4	Islamic Finance Training *	Malaysia
5	AlHuda-CIBE (Pakistan) *	Pakistan
6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 Insurance *	UK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
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연구논문집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1호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개발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 보험동향(계간)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68-4414, 4415 팩스 : (02)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이 진 면

전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현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 정책분과 위원
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겸 동향분석실장
(E-mail : jmlee@kiri.or.kr)

이 정 환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원
(E-mail : jhlee@kiri.or.kr)

최 이 섭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석사
현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E-mail : e-sub@kiri.or.kr)

최 태 영

현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 tychoi@pknu.ac.kr)

정 중 영

현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
(E-mail : jjeong@deu.ac.kr)

조사보고서 2009-0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발 행 일 2009년 3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400

ISBN 978-89-5710-081-3

정가 10,000원